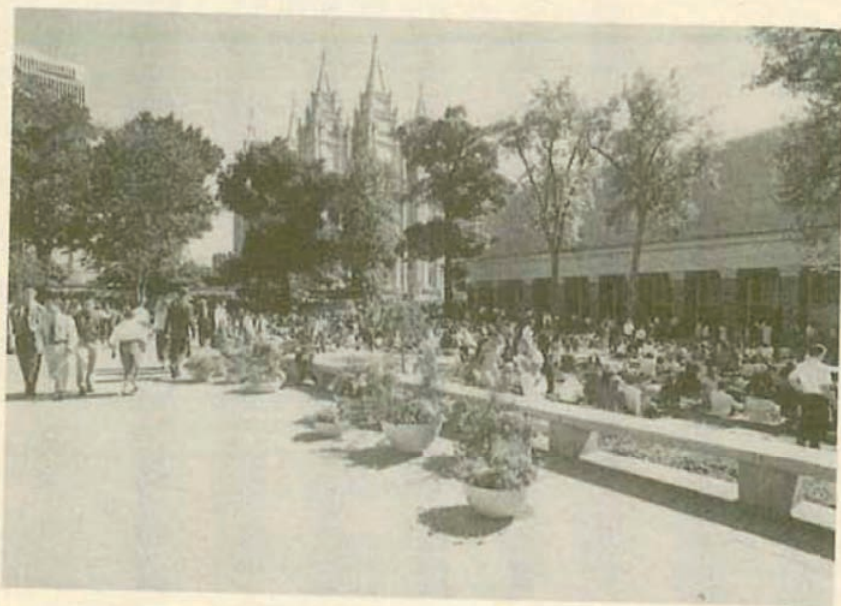


노아의 기르침이 경멸받음, 해리 앤다는 그림.

“주께서... 노아를 성임하시고 저에게 명하시도, 세상에 가서 주의 복음을... 인간의 자녀에게 선포하리 하시니라... 그러나 자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더라.” (요제서 8:19~20)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3차 반연차 대회 보고

1993년 10월 2~3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네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대회 진행 절차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의 생각이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라고 10월 연차 대회의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대관장단 제1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말씀했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제 벤슨 대관장님의 연세가 아흔다섯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예언자라는 성스러운 직분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며,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또 힝클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 교회는 신성한 원리를 토대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예언자들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 이름에 그분의 이름이 담겨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몇몇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잘못 인도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연차 대회 모임의 사회는 힝클리 부대관장과 대관장단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맡았다.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는 조 게이 크리스스턴슨 장로와 몬트 게이 브러프 장로 및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가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에 지지받는 주요한 행정 조치가 있었다. 에드니 와이 고마즈 장로와 야콥 디야저 장로 및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는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받았다.(4쪽의 “교회 역원 지지”와 109쪽의 “교회 소식” 참조)

대회 모임은 3천개 이상의 지역에 위성 중계되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5개 지역에는 동시 통역으로 전달되었다.

—편집자

색인

성도의 빛은 만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폴란드어-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시모이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심이사도 정회원: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미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로버트 이 윌즈

통 권: 제334호, 제31권, 제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4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한 상 익
발행소: 만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서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엄 인쇄 (주) 이 세 웅
© 1993년 재단법인 만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10/92 번역 승인-10/92
January 1994 International Magazine의 번역본.
Korean 94981 320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과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폴란드,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외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ies.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래의 주제는 다음 연사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다.

- 가르침-벤 비 벵크스
- 가족-로버트 디 헤일즈, 조 제이 크리스티슨, 벤 비 벵크스, 애드니 와이 고마쯔,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엠 러셀 벨라드(상호부조회 대회)
- 간중-조셉 비 워스런, 제프리 알 홀랜드,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데이비드 비 헤이트
- 감사-애드니 와이 고마쯔
- 격려-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 결심-몬트 제이 브러프, 엘레인 엘 잭
- 결혼-보이드 케이 패커, 델린 에이치 옥스
- 교만-스펜서 제이 콘디
- 교회 평의회-엠 러셀 벨라드(일요일 오후 모임)
- 구원의 계획-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 기도-존 에이치 그로버그, 진 이노우에
- 도덕-조 제이 크리스티슨, 에이치 버크 피터슨,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 마음의 변화-스펜서 제이 콘디
- 모성(어머니의 역할)-보이드 케이 패커,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진 이노우에(상호부조회 대회)
- 배도-닐 에이 맥스웰, 제임즈 이 파우스트
- 봉사-아곱 디야거,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 부모의 역할-로버트 디 헤일즈, 벤 비 벵크스,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 사랑-제프리 알 홀랜드, 로버트 디 헤일즈
- 상호부조회-엠 러셀 벨라드(상호부조회 대회),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 선교 사업-존 에이치 그로버그,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데이비드 비 헤이트
- 선택-엘 톰 페리
- 성결케 됨-에프 엔지오 부쉬
- 성별(남성과 여성)의 역할-보이드 케이 패커, 엠 러셀 벨라드
- 성신-스펜서 제이 콘디
- 성약-엘레인 엘 잭
- 소년단 활동-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 축적-조셉 비 워스런, 러셀 엠 넬슨,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후 모임), 로날드 이 포울맨
- 드 이 포울맨
- 순결-델린 에이치 옥스
- 순수함-에이치 버크 피터슨
- 순종-엘 톰 페리, 더블류 유진 헨스, 리차드 지 스코트
- 습관-스펜서 제이 콘디
- 시원-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 신권-로버트 디 헤일즈, 보이드 케이 패커, 러셀 엠 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엠 러셀 벨라드(일요일 오후 모임)
- 신앙-제프리 알 홀랜드, 닐 에이 맥스웰,

- 존 에이치 그로버그,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리차드 지 스코트, 엠 러셀 벨라드(상호부조회 대회), 지에코 엔 오가자키
- 십일조-고든 비 힝클리
- 아론 신권-휴 더블류 피녹크,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 어린이-벤 비 벵크스
- 영성-조 제이 크리스티슨, 엘레인 엘 잭
- 예수 그리스도-조셉 비 워스런,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지에코 엔 오가자키(상호부조회 대회)
- 와드와 지부-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 외설-에이치 버크 피터슨
- 용기-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몬트 제이 브러프
- 용서-로날드 이 포울맨
- 위안-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지에코 엔 오가자키(상호부조회 대회)
- 의로움-더블류 유진 헨스
- 자비-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상호부조회 대회)
- 준비-휴 더블류 피녹크, 데이비드 비 헤이트
- 지도력-엠 러셀 벨라드(일요일 오후 모임)
- 지식-리차드 지 스코트
- 진리-에프 엔지오 부쉬
- 책임-휴 더블류 피녹크
- 청소년-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 충성-제임즈 이 파우스트, 몬트 제이 브러프
- 태도-아곱 디야거
- 행복-아곱 디야거, 엘 톰 페리, 더블류 유진 헨스
- 회개-에프 엔지오 부쉬, 에이치 버크 피터슨, 로날드 이 포울맨
- 회복-닐 에이 맥스웰,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10월 반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신 연사들 (가나다 순)

- | | |
|---------------------|-------------------|
| 고든 비 힝클리, 4, 51, 54 | 에이치 버크 피터슨, 42 |
| 닐 에이 맥스웰, 18 |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92 |
| 델린 에이치 옥스, 72 | 에프 엔지오 부쉬, 24 |
| 더블류 유진 헨스, 81 | 엘 톰 페리, 66 |
| 데이비드 비 헤이트, 61 | 엘레인 엘 잭, 96 |
| 러셀 엠 넬슨, 33 | 엠 러셀 벨라드, 76, 89 |
| 로날드 이 포울맨, 84 | 제임즈 이 파우스트, 36 |
| 로버트 디 헤일즈, 8 | 제프리 알 홀랜드, 13 |
| 리차드 지 스코트, 86 | 조 제이 크리스티슨, 11 |
| 몬트 제이 브러프, 63 | 조셉 비 워스런, 5 |
|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79 | 존 에이치 그로버그, 35 |
| 벤 비 벵크스, 28 | 지에코 엔 오가자키, 94 |
| 보이드 케이 패커, 21 | 진 이노우에, 96 |
| 스펜서 제이 콘디, 15 |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44 |
| 애드니 와이 고마쯔, 30 | 토마스 에스 몬슨, 47, 68 |
| 아곱 디야거, 31 | 휴 더블류 피녹크, 40 |

목차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3차 반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4.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5. 우리의 주 구세주 조셉 비 워스런 장로

8.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11. 오염된 환경에서 자녀를 키움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

13.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15. 마음의 큰 변화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18. "태초부터" 닐 에이 맥스웰 장로

토요일 오후 모임

21.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24. 문제는 진리입니다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26. 주님의 바람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28. 자녀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벤 비 벅크스 장로

30. 감사함 에드니 와이 고마즈 장로

31. 봉사 및 행복 야곱 디야저 장로

33. 변화 속의 불변 러셀 엠 벨슨 장로

신권 모임

36. 성약을 지키고 신권을 존중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40. 기쁨으로 가득 찬 영원한 운행을 위한 개인 점검표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42. "사악한 은사나 불결한 것은 손에 대지 않도록 하라"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

44. 영원한 시각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

46.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스카우트상 수상

47. 위로 향한 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51. 나의 간증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54. 자녀를 빛과 의로움 안에서 키우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61. 선교 사업-우리의 책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63. 이스라엘의 현대 용사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66.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엘 톰 페리 장로

68. 삶의 고난을 헤치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72. 위대한 행복의 계획 델런 에이치 우스 장로

76. 협의의 힘 엠 러셀 벨라드 장로

79. 와드/자부 가족: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계획의

일부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스 장로

81. 행복의 추구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

84. 하나님의 용서 로널드 이 포울먼 장로

86. "영적인 지식을 얻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상호부조회 대회

89. 다양성을 통한 평등 엠 러셀 벨라드 장로

92. 상호부조회: 그 지도적인 원리인 사랑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

94. 구세주께로부터 나오는 힘

지에코 엘 오펜자키 자매

96. 기운을 내어 진 이노우에 자매

98. "네 발의 행할 침경을 평탄케 하며"

엘레인 엘 잭 자매

101.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102.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103. 교회 및 지역 소식

대회 사진을 촬영한 사람들: 제드 에이 클라크, 윌던 앤 더슨, 필 셔틀리프, 크레이그 다이먼드, 존 루크, 페기 켈 링하우젠, 매트 레이어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형 제 자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 명단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톱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처드 지 스코트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던 엘 라슨 장로와 제임즈 엠 패러모어 장로와 함께 리처드 클라크 장로가 칠십인 정원회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이 총관리 역원들에게 그분들의 충실한 봉사에 대해 감사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칼로스가 애이시 장로, 왈스 디디에이 장로, 엘 알든 포터 장로, 조 제이 크리스틴슨

장로,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그리고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의 회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드니 와이 고마즈 장로, 아콕 디야거 장로, 그리고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가 명예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총관리 역원들에게 그분들이 오랫동안 충실히 봉사해 오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현재 엘리스 성전의 성전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엘 라이오넬 켄드릭 장로가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의 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켄드릭 장로에게 감사드

우리 주 구세주

조셉 비 워스런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평화와 행복과 안전을 찾고 악과 이 세상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장으로서 주신 그분의 글과 말씀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싶
습니다.

우리는 루시퍼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
다도 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상의
죄와 죄악과 사악함의 면에서 우리는 우
리 시대를 홍수 전 노아의 시대와 비교
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이나,
정서적 또는 영적인 면에서 환난과 어려
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도 없습니다. 부도덕, 폭력, 이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슬픔이 온 세상 사회를 괴
롭히고 있습니다.

평화와 행복과 안전을 찾고 악과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
다(골로새서 4:2:16 참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요 구속
주이시며 인간 영혼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시는가는 우
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각자에게 영
향을 주었으며 이 생의 나날과 영원을
두고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와 하시는 일은 유한한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성신을 통해 그 실재
를 알게 되었습니다.

구세주이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종들을 통해 교회를 인도해 주심
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
회입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를 관리하는 평의회와 총관리 역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그분들의 동
기는 주님의 뜻에 따라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섬순하게 봉사하는
것입니다(고리와 성약 4:2)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
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니파이인들
에게 "교회도 나의 이름으로 부르라...

이 거룩한 모임에서 말씀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을 간구합니다.
에зра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
은 왕국의 모든 열쇠를 지닌 유일한 분
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열 네 분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벤슨 대관장님의 큰 영향력은 많은 면에
서 느껴집니다. 귀중한 물문경을 읽으라
는 그분의 시기 적절하고 영감적인 권고
로 인해 그의 지시를 따른 모든 사람들
은 이 거룩한 경전에 대한 감사함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벤슨 대관장님의 증손
녀의 결혼식이 있었던 성전의 거룩한 방
에서 그분에게서 품어 나오는 힘을 목격
했습니다. 그분이 방으로 들어오셨을 때
95세의 연세로 노쇠해지신 모습을 보았
습니다. 모두 일어나 예언자요 교회의
대관장이신 그분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분은 마스함과 사랑과 평화의 위대한
영을 지니셨습니다.

우리 나라와 전세계의 안닝이 혼란스
럽고 열려되는 이 시대에 벤슨 대관장
님의 모범과 고귀한 생애 및 교회 대관

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 제이 케더스토운 장로를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
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
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
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
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
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 일치로 모두 지지를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에 대
해 감사드립니다. □



만일 교회가 사람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면 이는 사람의 교회라. 그러므로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가 내 복음 위에 세워진 바 곧 나의 교회라”(니파이삼서 27:7~8).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님은 말일에 그분의 회복된 교회가 말일절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일컬어져야 한다고 계시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15:4 참조).

주님은 높은 산에서 모세와 마주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없는 세계를 내가 창조하였나니... 아들(을)시켜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세상의 이야기만을 네게 들려주노라. 지금 존재하는 세계도 많도다. 이들은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로되, 내게는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니라. 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요 내가 이들을 알고 있음이니라”(모세서 1:33, 35).

이 경전의 짧은 구절은 창조주로서의 주님의 무한하심과 위대하심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줍니다. 한 현대의 천문학자는 더 큰 통찰력을 줍니다. “우주는 존재하거나, 존재했거나 존재할 모든 것이다... 우주의 규모와 나이는 일반적인 인간의 이해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우

주의 규모는 너무 커서 알고 있는 거리 단위를 무색케 한다. 대신 우리는 빛의 속도로 거리를 측정한다. 1초에 빛 한 줄기는 약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1년이면 약 9조 킬로미터를 간다. 그 길이의 단위 즉 빛이 1년에 가는 거리! 1광년이라고 한다.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 거리, 그것도 엄청난 거리를 재는 것이다... 우주는 대부분 비어 있다... 우주는 귀중하다... 은하계는 가스과 먼지와 수십, 수백억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별은 누군가에게는 태양이 될 수도 있다... 은하계의 수는 약 천억개가 되는데 각기 평균 천억개의 별로 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은하계가 은하계군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못 찾고 있으며, 태양과 지구를 찾는 데도 오랜 세월이 걸렸었다... 은하계에는 복잡하면서도 질서 정연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떠다니는 약 4천억개의 온갖 별들이 있다. 그 모든 별 가운데 지구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 하나밖에 모르고 있다.”¹

하나님은 모세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독생자는 지금이나 장차에도 구세주가 될 자라.”(6절) 인간의 불사 불멸과 영생은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지금껏 일어났고 장차 일어날 사건 중에 가장 뛰어난 사건”입니다.² 그것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사보다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할 사랑의 행위입니다. 속죄는 불사 불멸을 모든 이에게 주며 불사 불멸도 무한하고 우주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삶과 같은 영생의 기회로,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속죄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아담의 타락의 결과 즉 필멸의 종말인 육적인 사망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구속해 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부모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니파이일서 11:21) 니파이가 시현을 통해 본 “모든 자녀들 가운데 누구

보다도 뛰어나게 아름답고 우아한 처녀” 마리아였습니다(15절). 그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지상에서 과거나 미래에 그러한 부모를 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필멸의 속성으로 인해 그분은 “필멸의 권세, 즉 육과 영이 분리되는 죽어야 할 권세”를 지니셨습니다.³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신성 때문에 그분은 불사 불멸의 권세, 즉 영원히 살거나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불사 불멸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지니셨습니다.⁴ 구세주께서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요한복음 10:17~18).

“우리의 주님이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사람이 이러한 신성과 필멸의 상태를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택에 따라 살거나 죽을 권세를 지니셨고, 목숨을 버리고 다시 취한 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만민에게 그 부활의 결과를 가져다 주시으로써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할 권세를 지니셨습니다.”⁵

재림의 때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예외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무덤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한복음 5:22, 26~29) 물론 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담의 가족에 속하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 간에 각각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하느니라)(물론서 3:20).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

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마태복음 25:31~34, 41)

예수님의 존재와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감사함을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속성과 성역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요한복음 17:3). “하나님에 대해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격체이심을 배우며, 아버지와 아들 모두 어떤 특별한 속성과 권세를 지니고 계심을 알 때 그분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다는 면에서, 우리는 그분들이 행하시는 것과 같은 일을 즐겨하고 경험할 때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시는 대로 느끼며, 그분이 지니신 권세를 지니며, 그분이 이해하시는 진리를 이해하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며, 그분과 같은 삶 즉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⁶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베드로후서 1:4). 그분은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

구세주의 생애와 성역과 가르침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즉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35)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언쟁, 다툼, 투쟁 또는 가정 불화가 없을 것입니다. 말로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서로를 비난하거나 모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불필요한 송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종교의 미명하에 자행되는 전쟁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신성에 대해 많은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의 때로부터 야벳의 동생을 포함한 고대 예언자들은 구세주를 여호와라는 영의 형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팔레스타인에 있는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베드로후서 1:16) 부활하신 주님이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여 가르치셨을 때 그분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 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니파이삼서 11:9~10)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아버지와 아들은 거룩한 숲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방문에 대해 요셉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서 1:17) 구세주께서 키텔랜드 성전을 그분의 집으로 받아들이셨을 때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더리는 “주께서 설교단 흥벽 위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새것만 눈 같고, 그 얼굴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증보자니라”(교리와 성약 110:2~4) 하늘의 시현을 통해 예언자와 시드니 리그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대

화했으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제가 살아 계시다 함이 나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리와 성약 76:22-23)

저는 운이 좋게도 어린 소년으로 와드 간증 모임에 참석하여 나이가 더 많은 회원들의 뜨거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신 여러 분께 복음의 참됨과 구세주의 살아계심 및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거룩한 부름에 대해 간증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저희 와드 회원들이 제게 했던 것처럼 나이가 적은 사람들의 간증을 키워 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주 간증하여 자녀들의 마음에 확신을 굳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교리와 성약 107:23)의 한 사람이 된 것에 겸손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는 압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에 따르며 기도한다면 우리 생활에서 그분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와 교회가 성공하고, 교회 회원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파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는 그분이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와 구원에 대한 아버지 및 그의 아들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조 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시며, 그분의 자녀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현재의 예언자인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남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계승자 모두가 예언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참고 문헌

1. 칼 새전, 우주, 뉴욕: 랜덤 하우스, 1980년, 4-5, 7, 10쪽.
2. 브르스 알 맥콩키, *부활의 메시지*,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2년, 15쪽.
3. 브르스 알 맥콩키 *약속된 메시지*,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8년, 471쪽.
4. 같은 책, (같은 쪽에).
5. 같은 책, (같은 쪽에).
6. 브르스 알 맥콩키, *신약전서 교리 주해서*, 전3권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레프트사, 1965~1973년, 1:762.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관리 감독

여러 면에서 지상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합니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모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 배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저는 아내인 메리와 두 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제 삶에 가져다 준 모든 기쁨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가족과의 이러한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부모님에게서 보았던 모범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는 제가 지니고 있는 신권에 대해서, 그리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서로에게 지니셨던 관계를 존경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침 받은 경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제게 신권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주었습니다. 아론 신권에서 봉사하는 동안 우리는 스텐레스 성찬기로 성찬을 전달했었는데, 성찬기가 넘친 불로 인해 얼룩이 져서 보기 흉할 때가 가끔 있었

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저는 성찬 준비를 도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 성찬기들을 집에 갖고 오게 하셨으며 저희는 성찬기가 반짝반짝해질 때까지 수세미로 닦았습니다. 성찬을 전달 할 때 저는 우리가 성찬 의식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데 참여했음을 느꼈습니다.

휴가 중에 아버지는 저희를 교회 역사상 잘 알려진 유적지로 데려가 우리의 지식과 간증을 쌓게 해주시곤 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열 두 살의 집사였을 때, 아버지는 제게 뉴욕 쿠퍼스타운의 야구의 전당으로 가고 싶은지, 뉴욕 팔마이라 근처의 구모라 언덕 야외 연극 공연에 가고 싶은지 물으셨습니다. 이곳은 후에 요셉 스미스가 물론경으로 번역한 금판을 얻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또한 저를 성스러운 숲으로 데려가셨는데, 이곳은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숲에서 함께 기도했으며 우리가 지닌 신권에 참되고 충실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했습니다. 아버지는 후에 우리가 기도했던 장소를 그림으로 그려 제게 주셔서 그날 우리가 했던 약속을 상기토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 사무실에 걸려 있으며 매일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지상의 아버지와도 했던 약속과 거룩한 경험을 기억케 해줍니다.

또 한번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스케하나 강으로 데려가셨는데, 이곳은 1829년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 요한의 방문을 받고 아론 신권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권의 회복이 이 경륜의 시대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저희 누이와 고모들을 자상하게 보살피시는 모습에서 여성을 존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식탁에서 맨 먼저 일어나 식탁을 치우셨습니다. 제 누이와 저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매일 밤 설거지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함께 부엌을 치우시곤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아버지는 충실하게 어머니를 보살피셨습니다. 어머니 생애의 마지막 두 해 동안은 스물 네 시간 간호를 해야 했는데 어머니는 밤낮으로 계속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소중한 아내를 사랑으로 보살피시던 모범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십 년이 넘게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아버지께 헌신하신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뉴욕시에 있는 큰 광고 회사의 상업 미술가이셨습니다. 한번은 아버님이 금요일 밤에 돌아오셔서 밤새 일을 하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원에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하신 뒤, 신제품 광고를 제작기 위해 작업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제 누이와 저는 서로 쫓고 쫓기는 장난을 하며 주방을 뛰어다녔는데, 그 주방은 아버지의 작업실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소한 두 번 이상 그만 멈추라고 하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계단을 뛰어 올라와 제 목덜미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앉히신 뒤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귀찮아도 소리지르거나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창작 과정, 즉 굳이 말하자면 영적인 과정과 해야 할 일을 알기 위해서는 조용히 숙고하고 영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시간을 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교훈을 배웠으며 제 생애에서 거의 매일 그 교훈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모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범과 간증으로 복음 원리를 가르칠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7년이 되었지만 저는 그분을 사랑과 존경으로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표가 되는 추억들을 몇 가지 살펴 보겠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의논하고 있다.

· 부엌 주위에서 춤추실 때 아버지의 발동에서 계시는 어머니와 실내화를 신으신 어머니의 작은 발,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을 표시하시던 것에 관한 추억

· 어린 소년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그분들의 침대 가에 앉아서 돌아가며 큰 소리로 성구를 읽던 추억

· 세월이 흐른 뒤 솔트레이크 성전에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엔다우먼트 의식에 참여하시는 것을 지켜 보던 추억

· 저희 자녀들도 그들이 가진 추억으로 생활에 지표를 삼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름은 거룩한 것이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과 책임은 부모가 되는 것, 즉 주 하나님의 자녀를 지상에 데려오는 일을 돕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할 거룩한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지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를 대표합니다.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모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 배웁니다. 지상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게 된 뒤, 자녀들은 자주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서도 똑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사실 자녀들은 부모가 참으로 염려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느낄 때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훌륭한 부모도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견해 차는 때리거나, 소리지르거나 물건을 던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음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은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며 조용히 대화하는 것을 보고 느껴 자신의 생활에서 견해 차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교훈과 모범으로 자녀를 가르치도록 권고를 받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 : 25, 28)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부모와 함께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자녀는 나이가 들어서도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살아 계심을 믿도록 가르침 받는 자녀는 성장함에 따라 더욱 자주 영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사랑의 느낌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며 세심한 가르침을 받은 자녀라도 성인이 되면 여러 이유로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의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우리는 생의 경험이 복음대로 살려는 소망과 능력을 다시 얻는 데 도움이 되길 간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자녀이며 우리는 항상 그들을 사랑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집의 문도 마음의 문도 닫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 가운데 한 명이라도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 자신은 교회 부름을 받거나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름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영적으로 깊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가족들은 아무

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모범이 훌륭하지 않다면 그 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분명히 부모들은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겠지만, 겸손, 신앙, 기도 및 연구를 통해 각자 더 나은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가족들의 생활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전통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축복하여 훈계하리니”(시편 32 : 8)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니파이삼서 18 : 20).

가족 관계의 문제에서 그 핵심은 주로 이기심에 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에 초점을 맞출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느낌이나 필요 사항을 듣거나 이해하거나 고려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리스도다운 태도를 지니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사려깊게 대해야 합니다. 그분은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인내심을 갖고 우리 각자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똑같은 사랑을 [아내]와 자녀에게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다음과 같음을 명심하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대회 보고 1983년 10월).

벤슨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불의한 행위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스스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교회의 어떤 회원, 즉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가 어떻게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신권 소유자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구세주의 성품을 닦아야 합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교리와 성약 121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 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참음과 온화함과 은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41절).

이러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의 자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질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간구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지닌 사랑에 대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고통스러운 속죄의 희생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 : 1, 3)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과 서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회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5, 23~24절)

비록 우리가 필멸의 상태에서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기도를 마친 것은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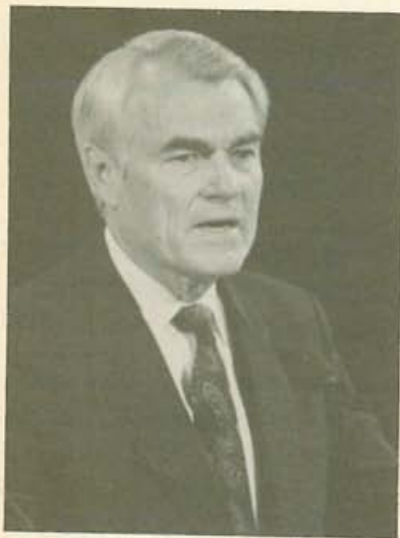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삽고 저회(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삽나이디(25절).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한 지식과 모범과 사랑으로 인해 속죄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이자 특별히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인 우리 모두는 모범과 사랑과 관심을 통해 자녀들로부터 하나님과 구세주께서 지니신 자질을 가진 것으로 기억되어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언젠가는 해의 왕국에 계시는 그분들의 면전으로 가족과 함께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오염된 환경에서 자녀를 키움

조 제이 크리스텐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두려워 하지 말고 도덕적인 표준과 지침을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얼마 전 저는 도덕적으로 오염된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크게 염려하는 일단의 젊은 부모들과 즉석 대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길을 찾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오염된 물질적인 환경, 즉 산성비, 스모그, 유독성 폐기물 등에 대해 많이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은 훨씬 더 위험한 도덕적, 영적인 오염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대회에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은 “도덕적 환경을 조사해 보면, 오염 수치가 급속히 상승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엔사인 1992년 5월호, 66쪽).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디모데후서 3:1). 그리고 말세에 관하여 예언자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

했습니다.

“참으로 심한 부패가 이는 날이 땅에 나타나리니”(몰몬서 8:31)

슬프게도 이 큰 오염의 영향은 아마도 대중 매체, 영화, 텔레비전 및 대중 음악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 미상원 의원인 로버트 디 버드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나라에서 계속하여 살인, 폭력, 마약 중독, 성도착, [및] 음란 물등의 형상을 수많은 어린이들의 눈 앞에 심는다면 몇 날, 몇 해가 지난 뒤, 우리는 우리 사회의 기초가 문둥병처럼 썩어 들어간다 해도 놀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마이클 메드베르, *할리우드 대 미국*, 뉴욕: Harper Perreniel, 1992년 194쪽)

물론 고무적인 예외도 있지만 대중 매체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가족, 종교, 애국심 등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 경시되는 반면에, 혼전 혼외 관계가 조장되고, 매혹적으로 보여 집니다. 불경스럽고 저속한 말은 이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저속하게 만듭니다. 보고에 따르면, 한 성인 영화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저속어가 무려 256회나 쓰였다고 합니다! 인간 생명 자체가 계속되는 폭력과 살육 장면으로 하얗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십대의 임신과 성병을 막고자 산아 제한이라는 잘못된 방법이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관행이 많은 젊은 이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그러면서 자신만 지키면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젊은 부모들이 그 끔찍한 영향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을 완수하

고자 할 때 매우 염려하게 된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도전은 비회원 뿐만 아니라 교회 회원들도 직면합니다.

진실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모들은 기초 즉 복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적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네 가지 구체적인 제언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두려워 하지 말고 도덕적인 표준과 지침을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존 로스몬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니오’라는 비타민을 매일 정기적으로 [먹이십시오.] 이 필수 영양소는 단순히 [아니오]라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이 아니면 많은 자녀들이 비타민 ‘아니오’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마음이 좋아서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주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지 않는 부모들이 이들을 망쳐 놓았습니다.”(존 케이 로스몬드, *행복하고 건강한 자녀를 기르는 존 로스몬드의 여섯 가지 계획*,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앤드루스 앤드 맥밀 출판사, 1989년, 114쪽)

비록 자녀들이 “다른 애들은 새벽 한두시까지 돌아다녀도 부모들이 상관하는데, 왜 나는 안되죠? 질 못믿으세요?”라고 말할지라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어떤 부모들은 오로지 자녀가 인기를 얻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데에 거의 비정상적으로 염려하여 더 훌륭한 판단을 하는 데 저해가 되는 많은 것들, 즉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비싼 옷이나 물건을 사고, 단정치 못한 옷을 입고, 늦게 귀가하고, 열여섯 살 전에 데이트를 하고, 성인 영화를 보는 등의 일을 허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와 부모 모두 올바른 것만을 고집하다 보면 때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갈 데도 없고, 파티에도 빠지며, 어떤 영화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형성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은 인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녀 친구들의 부모와 함께 만나 오락, 귀가 시간 및 활동 등에 관해 좀더 받아들여질 만한 높은 표준을 세울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결국 그들은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 건전한 지



심이사도 정원회의 앤 러셀 블라드 장로와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침과 표준을 세울 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점차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지 않은 모든 것은 어른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자녀들에게 일하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특히 도시에서는 수많은 자녀들이 충분히 일할 만한 것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름에 온종일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열 세 살의 어린 소년과 같습니다.

그 소년은 “글쎄요, 아침 열 시나 열한 시쯤 일어나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고, 그런 다음 애들과 함께 농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서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지나가는 여자애들도 보고 그렇죠.”라고 대답했습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가라는 질문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개 한, 두 시경이죠. 친구네 집에 가서 비디오도 몇 편 보지요. 정말 굉장해요. 제 친구 엄마는 뭐든 자기 아들이 원하면 다 빌려 줘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 어린 말일성도 소년의 장래도 몹시 걱정이 됩니다.

저는 김블 대관장님이 이 주제에 관해 하신 말씀을 좋아합니다.

“게으른 자녀들입니다! 매일 할 일 없이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는 부모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일거리를 주시길 원합니다.”

“시장도 보고, 병원에서 봉사도 하고, 이웃과 교회 관리인을 돕고, 설것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잠자리도 보고, 식탁도 차리고, 바느질과 요리도 배우십시오.”

“양서를 읽고, 집을 청소하고, 옷을 다리고, 낙엽을 쓸고, 눈을 치우고, 신문 배달도 하십시오.”

그리고 김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입법가들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과욕으로 오히려 도움보다는 해가 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률도 여기 제한한 대부분의 일들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스펜서 더블류 김블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김블 편,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2년, 360~361쪽)

그 이외도 자녀들이 악기 연주 및 기타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기 수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집에 들린 외관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망이 처진 문을 통해 그는 어린 소년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 의자 옆에는 소년의 야구 장갑과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애 꼬마야, 엄마 집에 계시니?”라고 묻자 “엄마가 없으면 내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려깊은 부모

님을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자녀는 몇 가지 기술이나 재능을 익혀 성취감을 맛보고, 자긍심을 갖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배우고 자제력을 키운 선교사들은 훨씬 성공적으로 행합니다.

셋째, 가정에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예를 들면

· 매일 가족 기도를 하십시오. 각자 계획을 세워 한번 이상 가족 기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녀를 기도의 영적인 보호막 없이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옷을 충분히 입히지 않고 눈보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 매주 가정의 밤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이 시간은 자녀들과 간증을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시간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한 느낌을 나눌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이 성신이 임재하는 때를 느끼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의 밤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 매일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으십시오. 경전에는 실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상고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전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악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책 외에는 어떤 책도 여러분의 삶에 영성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엔사인, 1986년 5월호, 43쪽)

물론 경전이 여러분의 독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매리온 지름니 부대관장이 부모들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풍성한 약속을 헤아려 보십시오.

“저는 가정에서 부모가 혼자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물론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는다면, 그 위대한 책의 영이 가정에 가득 찰 것임을 확신합니다. ... 경전의 영이 커질 것이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분쟁의 영은 떠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조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고에 더욱 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이 커질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가정과 생활에 가득하여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엔사인, 1980년 5월호, 67쪽)

우리는 이 열 가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예언자들의 권고를 따르십시오. 이 대회에서 그분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전 대회부터 우리에게 주신 권고를 다시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 및 가족의 관행이 받은 권고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변화시켜야 합니다.

해럴드 비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계명이... [그리고 교리와 성약을 인용하셔서 마치] '[주]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인 것처럼 이들 말씀과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교리와 성약 21:4~5).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와 신앙을 요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권능을 통해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치적 소견과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소견과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회 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안전은 주님이 그분의 교회를 관장하도록 세우신 분들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대회보고, 1970년 10월, 152~153쪽)

개인적인 견지에서 볼 때 우리가 그분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변화하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제안들과 여러분이 덧붙일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적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오염의 수치가 급상승해 가는 세상에서 영적, 도덕적으로 생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목적은 자녀들을 세상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들을 악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요한복음 17:15 참조).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은 영의 자녀이며 그분의 그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교회는 살아 계신 예언자들이 인도하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강권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도록 하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칠십인 정원희

두려움과 절망이 만연해 있는 듯하고 어떤 세상적인 의사들에게서도 인간성을 찾을 수가 없는 때에 저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저는 교회 회원 뿐만 아니라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비회원들께도 인사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아침에 저희와 함께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든 삶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암흑기라고 하기에 적절한 때가 있었으며, 훨씬 그 후, 즉 백년 전쟁이나 흑사병이 만연하던 시대로 되돌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에 없던 물질적인 축복과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기에 태어난 것을 행복하게 여기지만, 이 사회, 저 사회에서, 그리고 작은 나라들과 큰 나라들에서 커져가는 근심과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개인들과 가족들을 봅니다. 바로 좌절, 낙담, 절망이 우리 시대의 '흑사병'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시대는 혼돈과 곤고의 시대입니다(누가복음 21:25 참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들 중에는 침묵과 고독한 슬픔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또 어떤 고통은 과격하게 표출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한 연구자가 지적했듯이 “분노하고 무장했으며 위협스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도시에서 차를 타고 가며 사람에게 총을 쏘는 것이 비밀 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락을 싸가듯 총을 학교에 가지고 갑니다.

시대가 혼란하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으며 그 잘못을 바로잡을 만한 현명하고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단지 공무수행 기관일 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역 사회의 가치관과 이웃에 대한 자부심이 때때로 추상적이거나 아예 존재치도 않으며 가정이 파탄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더욱이 오늘날 많은 사회적, 정치적 치료가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 같으며 자칭 의사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 해주어야 할 방법을 모른 채, 그저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찰스 에드워드 제퍼슨, 예수님의 성품, 솔트레이크시티: 팔리어먼트 퍼블리셔스, 1968년, 17쪽).

저는 오늘 아침 용기를 내어 “치유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재강화시켜야 하며 소망을 다시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회개해야 하며 반드시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종반에 도덕적인 무질서가 발생한 것은 바로 영적인 충실함의 부재 때문입니다. 종교적 회의론을 권장했던 사회가 이제는 실존 철학이 낳은 절망감으로 고통받고 있

습니다.

종교적 신앙도 없고, 현실과 영적인 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세상은 무의미하며 무의미한 세상은 공포의 장소입니다. 세상이 영적인 것에 의미를 갖는다면 인간이 계속 진전하고 노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릿이 그토록 지혜롭게 간구했듯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자비의 천사요, 사자여, 우리를 지켜주소서"(제1막 제4장, 39행).

오늘 저는 엘마가 우리에게 명했듯이 "거룩한 일들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바라 보아" 산다면 언제나 자비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 줄 것임을 간증드립니다(엘마서 37:47). 우리는 더 많은 기도와 겸손, 더 많은 신앙과 용서, 더 많은 회개와 계시와 하늘로부터의 위안—바로 이런 것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제를 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개인 및 집단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분의 소망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위즈워드는 우리가 "고향인 하나님을 떠나... 영광의 구름을 타고 지상에 왔다"(불멸의 송가)고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신앙을 찾지 못하며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으며 세상에 무관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정하지도, 변덕스럽지도, 심술궂지도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가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세상의 크고 첫째되는 계명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고리와 성약 59:5; 마태복음 22:37 참조).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 첫째되는 약속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생각한다면(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그분은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이 그분을 우시게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대화보다 더 운유한 장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머지 백성을 보시며 우시니..."

"예복이 주께 가로되, 당신은 거룩하



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어떻게 우실 수 있사옵나이까?"

"주께서 애굽에게 이르시되, 네 형제들을 보라. 저들은 내 손의 솜씨니 내가 저들에게 지식을 주었고... 내가 저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도다."

"또 네 형제에게 내가... 서로 사랑하고 저들의 하나님을 택하라는 계명을 주었도되, 저들에게는 아무런 애정도 없어 자신의 혈족을 미워하시는도다."

"온 하늘이... 통곡하게 되리라 어찌 하늘이라 할지라도 이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보고 울지 아니하겠느냐?"(모세서 7:28, 29, 32~33, 37)

자비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들은 늘 우리 주위에 있으며 그들의 거룩한 군주이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비는 그분의 사명이며 사랑은 그분의 유일한 일입니다. 언젠가 존 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제 왔어야지'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너희 음성을 들으리라...' 만일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추위에 얼었으며, 구름에 쌓여 햇빛을 못받고 낙담하고 좌절해 있으며, 질식하여 실신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가리니, 새벽녘으로가 아니요 한낮의 태양으로 가서 모든 그림자들을 몰리 치리라...*"(설교 모음집)

엘마는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그러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엘마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내가 온갖 재난과 괴로움과 갖가지 고통에 처했을 때 위로받으며... 나를 구해 내셨으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는 늘 나를 구원하시리라."라고 간증했습니다(엘마서 19:26, 36:27).

오늘 아침 저는 우리가 "거룩한 일들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바라 보아 산다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며, 또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그 약속에 대한 가장 큰 확증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귀중한 장자를 보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을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위로하고, 구원하고 세상을 안전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제 이웃에 케이트 루이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빠인 랜디는 우리 감독님이십니다. 엄마인 맬라니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빠인 지미는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루이스 자매님은 아들 지미의 병을 알게 되었을 때 가족에게 다친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지미와 같은 모진 병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어떤 어머니라도 겪게 될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충실한 말일성도답게 루이스 자매님의 가족은 곧 소망과 희망을 지니고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도하고 금

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어느 날 루이스 자매는 성전 의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피로와 근심에 쌓여 있었으며, 그 많은 낮과 밤을 오로지 큰 신앙으로 견디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들어가자, 네 살된 케이티가 눈에 사랑을 가득 담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봉치를 들고 엄마에게 뛰어와 그 종이 봉치를 내보이며 “엄마, 이게 뭔지 아세요?”라고 조르듯이 물었습니다. 루이스 자매는 처음에는 아이와 놀아 줄 기분이 아니니 나중에 보자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자녀들을 생각했으며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면 후회할 수 있다는 것과 아이들은 빨리 자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슬픔 대신 미소를 지으며 “아니, 케이티야, 엄마는 모르겠는데, 네가 말해 주렴”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경전 구절들이에요.” 케이티가 미소지으며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세요?”라고 물었습니다.

루이스 자매는 미소를 멈추고 이 어린 아이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아이의 키에 맞게 무릎을 구부리고 “말해주렴 뭐라고 쓰여 있지?”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케이티는 갔습니다.

루이스 자매는 네 살된 딸의 낙서장을 들고 일어섰을 때 지친 영혼을 평안의 팔이 꼭 껴안고, 거룩한 교요가 그녀의 혼란스런 마음을 잠잠케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비의 천사요, 사자”인 케이티 루이스야, 나도 네 말에 동감한다. 낙담과 슬픔과 너무 많은 죄로 가득찬 세상에서 두려움과 절망이 만연해 있는 듯하고 어떤 세상적인 의사에게서도 인간성을 찾을 수가 없는 때에 저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큰 노를 잠잠케 하시고 폭풍우를 잠재우게 하십시오. 그분은 환난 중에서 인간을 영원히 구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극히 날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고
주의 구속 믿고
주의 일 힘써 하겠네”

(찬송가, 112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마음의 큰 변화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칠십인 정원희

물론경에 나오는 강한 교리 중의 하나는, 우리는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실제로 변화를 가져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구세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행동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처럼 온전해지라는 계명(마태복음 5:48; 니파이삼서 12:48)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 영혼을 기울여 따라야 할 계명입니다. 사람들은 온전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약점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관계로, 인내와 신앙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홀로 적과 투쟁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경에는 성신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교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니파이와 물론은 우리가 악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성신이 열심히 돕는다고 가르쳤습니다(니파이서서 26:11, 물론서 5:16 참조). 베냐민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적인 욕으로 난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영의 설득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모사이아서 3:19 참조) 앰올레크 역시 “성령을 대적하여 다투지 말라”(앨마서 34:38) 라고 했으며, 또 모로나이는 성신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설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이더서 4:11).

적극적으로 관여하다, 설득하다, 다투다라는 말들은 모두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침을 표시하는 강한 행동을 나타내는 말들로서, 성신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여 우리가 온전을 추구하는 일을 돕는 데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 늘 불행에 빠져 있는 루시퍼는 우리가 영원한 목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수천 가지 계락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이 모든 계락을 사탄의 두 가지 커다란 전략에 포함된다고 말씀

몇 해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태버내클을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랑스런 자매님이 다가오더니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힝클리 부대관장님.”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매님. 저는 칠십인 정원희의 콘디 장로입니다.”하고 말하자, 그 자매의 밝은 표정은 금새 실망하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뒤 1분이 채 못되어서 또 다른 자매가 우리에게 똑같은 말로, “안녕하세요? 힝클리 부대관장님.”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는 그전 자매에게처럼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자매의 손을 잡고, “자매님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하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는 지 몇 달 후에 힝클리 부대관장님이 포르투갈을 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 죄를 고백하자,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그 특유의 사랑스런 목소리로, “콘디 형제님, 내 흉내를 내시려면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립니다.

교만과 실망

그 첫번째는 교만으로서, 벤슨 대관장님은 이것을 “시온의 큰 장애물”(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8쪽)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탄의 두번째 주요 전략은 실망으로써, 이 실망은 신앙과 희망과 인내심을 잃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 악질적인 악마의 전략은 변화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변화는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과 마음을 낮추어 겸손해지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실망한 사람들에게는 “나에게는 나 자신이나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라는 생각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교만으로 괴롭히든 실망으로 괴롭히든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그것이 내 인생이야.”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강한 교리 중의 하나는, 우리는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실제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모사이아서 5:2, 엘마서 5:14 참조). 물론경은 또한 우리에게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며(엘마서 41:10),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니파이이서 2:25)”이라고 가르칩니다. 죄에서 벗어나 기쁨에 이르기 위한 여정에는 마음의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악습을 버림

저에게는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오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가끔 사업으로 인해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혜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물질을 취하곤 했습니다. 삶의 스트레스가 점점 더 쌓여감에 따라 취하는 술의 양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술에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 친구는 자신의 노력적인 자유의지를 해치기 시작한 알콜 중독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영의 속삭임을 느끼고는 사무실을 나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드리면서, 자신에게서 영성을 빼앗아 가고 그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위협하고 있는 이 알콜 중독으로부터

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자신의 힘을 기울여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 동안을 있자, 점차 그를 정화시키는 감미로운 영이 그의 영혼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술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깨끗이 사라지고 제명을 지키겠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감독님은 제 친구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 친구에게 아론 신권을 맡아 일하도록 부름을 주었습니다. 그는 열성적이고도 천부적인 청소년 지도자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그 친구는 새로운 감독으로 부름받아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권고하는 모든 능력으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습관은 쉽게 형성됩니다. 좋은 습관과 마찬가지로 나쁜 습관도 쉽게 형성됩니다.”(뉴 이라, 1972년 7월호, 23쪽)

저는 복음의 축복을 받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난 또 다른 선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일련의 불행한 사건들을 통해 동성 연애를 접하게 되었으며, 점차로 이 행위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배울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불결한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었지만, 자신이 택한 삶의 방향을 도저히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선교사 토론회를 거절했습니다. 두 장로는 아파트를 떠나기 전에 물론경을 한 권 주면서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책을 책장에 꽂아 둔 채로 몇 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동성 연애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해가 거듭될수록 불행한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흑시라도 교훈이 되며, 마음을 밝게 해주고 자존심을 되찾아 줄 책이 있을까 하고 책장을 뒤지고 있다가 수년 전에 선교사들이 주고 간 군청색 표지로 된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친구는 2쪽에서 리하이가 시현 속에서 책을 받으며 읽으라는 부탁을 받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부친이 책을 읽어 나아감에 주의 영이 충만해졌으

며”(니파이이서 1:12) 책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제 친구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배나민 왕이 마음에 큰 변화, 즉 작은 변화가 아닌 큰 변화를 경험하라고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읽었으며, 이노스와 엘마와 암몬 및 아론의 개심 이야기를 읽으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께서 고대 니파이 백성들을 방문하신 기록을 접하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경 마지막 쪽에 이를 때쯤에, 그는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모로나이서 10:32)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교회를 찾아 복음을 배우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사랑스런 여인과 결혼하여 아름다운 자녀를 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내와 함께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매우 열심히 주님을 섬김으로써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나쁜 습관에 포로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포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강화시킴

몇 년 전에 저는 아내와 함께 다른 나라에 있는 성전 앞뜰을 걷고 있다가 백발이 유난히도 빛나는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 밝고 그리스도와 같은 표정이 주변 사람들과는 너무 달라서 저는 그 자매님에게 어찌서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님은 웃음을 머금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몇 년 전에 저는 서둘러 결혼을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몇 개월 후에 결혼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실은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오히려 수년 동안 저를 헐뜯으며 저를 매우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러한 상태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남편과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시는지를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자 영이

제가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던 몇 가지 사실을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저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영성이 부족한 것에 대한 저의 조급함과 인내심이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더 애정과 사랑과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변화하기 시작하자 남편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교회에 가자고 잔소리 하기 전에 남편 스스로 저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부부는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으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에서 함께 하루를 보냅니다. 정말이지 남편은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벤은 대관장님은 “교만은 누가 옳은가에 관심을 갖는 반면, 겸손은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을 둡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면 영이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내 영의 능력이 만물을 살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33:16)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은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진리를 갈구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간증하시며, 상한 심령을 정화하시어 깨끗하게 해주시며, 앞에 놓여 있는 위험을 경고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성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고의 음성

1975년 1월의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철쭉같이 어두운 밤, 태즈메이니아에서 7,000톤급 바지선이 동쪽 만을 가로질러 호바트와 태즈메이니아를 연결하는 타스만 다리 교각 둘을 들이받아 다리 세 칸이 부서졌습니다. 그 때 링이라는 성을 가진 한 오스트레일리아인 가족이 차를 몰고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 가로등 불이 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차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쳐 가던 차가 그들 바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머레이 링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자, 차가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다



심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대회장 안에 모이면서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조셉 비 워스린 장로, 델린 에이저 옥스 장로, 앤 러셀 벨러드 장로

리가 끊어진 곳에서부터 1미터도 채 못 되는 곳에서 가까스로 멈추어 섰습니다.

머레이는 가족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사고 현장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차들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려움 속에서 마치 미친듯이 두 팔을 휘둘러대는데도 차 한 대가 “그를 피해 지나가서는 물 속으로 빠져 버렸습니다.” 두번째 차는 가까스로 멈추어 섰지만 세번째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더니 다리 가장자리에 있던 링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갑자기 사람을 가득 실은 버스가 경고를 무시한 채로 머레이씨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운전석 쪽으로 짹짹 뛰여 피하면서 “다리가 끊어졌요!”하고 소리쳤습니다. 버스가 방향을 틀며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채로 가까스로 멈추어 섰습니다. 수십 명이 목숨을 구했습니

다.(스티븐 존슨, “끊어진 다리 위에서”, 영문 리더스 다이제스트, 1977년 11월호, 127~130쪽)

저는 우리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여러 총관리 직원들에게도 그분들이 끊어진 다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교화시키며 이끌어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이분들은 “그리스도 일로 감힌자 된”(에베소서 3:1, 4:1, 빌레몬서 1, 9, 디모데후서 1:8) 분들로서, 이분들의 소망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외에 어떤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경고의 음성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

“태초부터”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그 복음의 “간결하고 진귀한”(니파이이서 13:40)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복음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간결한 말씀을 경멸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였”(야곱서 4:14)입니다.



역 사상 대배도가 있을 때마다 회복된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늘 그것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보다는 교회 회원들을 위한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종파간에는 의견을 같이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배푸는 친절 한 행위는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형제 자매 여러분과 함께 다른 종교를 가진 많은 분들이 배푸신 선행과 신앙의 음성에 기쁨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로마 교황청에서 순결에 대해 발표한 것은 적절하고도 용기 있는 행위로써, 저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회원들이 충만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없이도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그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도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이 지구상의 최초의 인간이며,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같이 복음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천사가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몸소 하시기도 하고 성신의 은사로써 선포하기도 하여 태초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이같이 모든 일은 거룩한 의식으로써 아담에게 수여되었[습니다]”(모세서 5:58~59).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특별한 양식이 주어졌으며, 그것은 말일에도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저들에게 일러 주님의 영광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여 사람들은 그 때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따르기 시작하였고, 주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시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마련된 구원의 계획을 알려 주셨습니다.”(앨마서 12:29~30, 또한 모세서 5:58~59 참조)

그러나 초기의 이 충만함을 잃게 되어, 그 결과 교회가 분열되어 사방으로 흩어지고 왜곡되어서 세계적으로 기독교와 비기독교 모두 헤아릴 수도 없이 수 많은 종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분열 속에서도 일정한 율법과 의식이 “아담의 후손을 통해 온 땅에 전파되었으며, 그것이 순수한 그대로 남거나 약간은 변질되기도 하며 계속 이어져서 홍수 때까지 내려왔으며, 그 뒤 노아를 통해...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나라와 국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과는 독립된 채로 그 역사가 홍수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소위 그리스도를 모르는 국가들 사이에서 기독교적인 잔재를 발견한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설교집, 15:325; 앨마서 29:8 참조)

복음의 충만함 뒤에 “여호와와 말씀 을 듣지 못한 기갈”(아모스 8:11)을 겪는 기간이 따르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이 복음에서 멀어져서 의식을 바꾸고 성약을 깨뜨리며 거역한 것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이사야 24:5, 에스겔 2:3 참조).

“씨뿌리는 자”(교리와 성약 86:2, 또한 유다서 1:17, 모사이아서 26:1 참조)들인 사도들이 죽은 뒤에 대배도가 일어났습니다.

신약전서의 서한들에는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역이 아니라 크게 만연될 심각한 배도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내에 싸움과 다툼이 일고 있다고 꾸짖었으며(야고보서 4:1 참조), 바울은 교회에 “분쟁이” 있으며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 할 것이라며 탄식했습니다(고린도전서 11:18, 사도행전 20:29~31). 바울은 배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행...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권고했습니다(데살로니가후서 2:3, 7).

말년에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디모데후서 1:15)며, 배도가 이미 만연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로마서 3:8)라고 가르쳤다는 모략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같은 중상 모략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선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이 죄를 범해야 한다고 느낀시 가르치는 니콜라당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요한 계시록에서 니콜라당의 유해한 교리와 행위를 꾸짖으신 것이 놀랄 일이 아닙니다(요한계시록 2:6, 15, 말일성도 판 성경 사전 영문, “니콜라당” 참조).

사도들은 사방에 만연하고 있는 음란한 성행위와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의 음성을 높였으며(고린도전서 5:9, 에베소서 5:3, 유다서 1:7 참조), 요한과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탄식했습니다(고린도후서 11:13, 요한계시록 2:2). 교회가 악에 사로잡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멀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바울이 한 번은 특별한 상황 하에서 홀로 된 채로 “다 나

를 버렸”(디모데후서 4:16)다고 탄식했으며, “집들을 온통 엮드리치는”(디도서 1:10~11 참조) 사람들의 행위를 꾸짖었습니다.

어떤 지역 지도자들은 저회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해서 사도들을 접대하지 않고 거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요한삼서 1:9~10 참조).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신권이 교회로부터 거두어졌다고들 말하지만 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신권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설교집, 12:69).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및 바울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과대 망상증적인 발로가 아니라 “베도”에 대한 예언적인 경고였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힘도 작용하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가 헬레니즘 문화를 접목하는 것이었습니다. 윌 두랜트는 “문명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철학을 주도해 온 그리스 언어는 기독교 문화와 의식의 매체가 되었다(시저와 그리스도 제3부, 뉴욕: 시몬 앤 서스터, 1944년, 595쪽). 그리스에서는 나름대로 이미 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려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이 쉽게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로버트 엠 그랜트, 다신과 유일신,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출판사, 75~81, 152~158 참조).

또 다른 학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그들에게 깊이 자리잡고 있는 교육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을 단순하고 간결한 상태로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가 불가능했다.”(에드윈 헤치, 기독교에 미친 그리스 사상의 영향, 글라우세스터, 매스: 피터 스미스, 1970년 재인쇄판, 49쪽).

바울이 아테네에서 겪은 일을 보아도 그리스 철학이 이론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가득한 청중들은 바울에게 “이 새 교가 무엇”이라고 질문하며,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 주니”라고 말했습니다(사도행전 17:19~20). 그리고 바울이 살아 계신 하나님과 부활에 관해 말하자 사람들은 그를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사도행전 17:18, 또한 29절 참조)으로 생각하고 그를 “기롱”(사도행전 17:32)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물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그리스와 동양 철학을 대표하는

사상을 주장했습니다(이 알 도즈, 동요의 시대 속의 이교도와 그리스도인, 뉴욕: 더블류 노튼 앤 컴퍼니, 1965년, 14쪽 참조). 따라서 육신은 “어두운 감옥”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탈출을 시도해야만 하는데, 어쩌서 부활을 바라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같은책 30쪽 주1 참조). 이러한 견해는 부활한 육체와 개인의 영이 서로 분리될 수 없게 결합돼야만 “충만한 기쁨”(교리와 성약 93:33, 또한 88:15~16, 138:17 참조)을 누릴 수 있다고 한 현대의 교리와는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 작업을 하실 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상의 물질을 사용하셨으며(이사야 45:18 참조), 창조를 마치신 후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창세기 1:31)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어느 학자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이교도 비평가들 앞에서 당혹스런 일을 당했다”(도즈, 119쪽)고 기술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미련한 것”(고린도전서 1:23)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과 “간결하고 진귀한”(이파이일서 13:40)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복음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간결한 말씀을 경멸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였습니다(야곱서 4:14).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로는 이 “세상에 있지”(요한일서 4:3)않았으며 예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인간들을 설득하기 위해 고안된 허위라고 가르치는 반그리스도인들을 꾸짖었습니다(요한복음 1:1~3, 14 참조).

그리스도인들이 “간결한 말씀을 경멸하”는 또 한 가지 형태는 명백한 역사적 사건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치립 초기에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던 행위들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철학적인 전통 논리가 계시에 의존하는 마음을 지배하더니 결국은 그러한 마음을 완전히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과정은 자신들의 믿음을 시대적인 문화 조류에 합류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속화되었을 것입니다.

역사가인 윌 두랜트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이교도

문화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여 소화했다. 죽어가고 있던 그리스 문화가 변화된 삶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시저와 그리스도, 595쪽)

바울의 말에 의하면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하여 낙심”(히브리서 12:3)하게 되었습니다.

2세기 중엽에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신학 이론이 크게 개조되어 그리스화된 기독교 사상을 띠게 된 과정을 기술했습니다(스티븐 로빈슨, 엔사인, 1988년 1월호, 39쪽 참조).

이러한 일을 맨 처음 목격한 베드로는 참으로 오래 기다려 온 만유를 회복하실 때”(사도행전 3:21)에 관해 희망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역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에베소서 1:10, 또한 로마서 11:25 참조) 특별한 시대인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해 기록했습니다(로마서 11:25, 에베소서 1:10 참조). 태초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충만함을 포함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8:21, 아브라함서 1:3 참조). 앞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채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며, 단지 개인적인 베도 정도만 있을 것입니다(다니엘 2:44, 교리와 성약 65:2 참조).

19세기에 회복된 영광스러운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며, 거룩한 사도와 신권의 열쇠를 부여받은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로 부름받은 일이 포함될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앞으로 계속될 경전의 시작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그리스도와 속죄의 속성에 관한 회복된 충만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결국 첫번째 것이 첫번째가 됩니다! 구세주께서 몸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더 많은 계시를 받은 후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38년, 343쪽). 형제 자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에서 지상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일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됩니다(모사야서 8:18, 교리와 성약 46:26, 모세서 1:39 참조). 이 목적을 위해 성전과 관련된 교리와 의식 및 성약이 회복되었으며, 오랫동안 지나치게 이성에만 의존해 왔던 세상이 다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그런고로 들으라... 너희와 더불어 이치를 논하리라”(교리와 성약 45:15)하고 초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서 고지에 내리찍는 햇살을 흡수 받듯이 이해력이 밝아질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이사야 1:18, 또한 니파이이사서 32:7 참조)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고 초대하시는 것이지만,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지혜롭습니다.

더 큰 충만함이 주어져서 이를 통해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끝날까지의 모두를 계시할 것”(니파이이사서 27:10, 또한 교리와 성약 121:28~32 참조)입니다.

회복의 “기쁜 소식”이 주어져서 매튜 아놀드가 다음과 같이 노래한 상태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치료제가 되는 신앙이 “땅에 증거되게”(교리와 성약 1:21)할 것입니다.

한 때는 가득 차 넘칠 듯한
신앙의 바다...
그러나 지금은
밤바람의 숨결을 따라
황량하고 음산한 저 가장자리
벌거벗은 세상의 지붕을 향해
퇴각해 가며
길게 꼬리를 물고 쫓겨가는

서글픈 호성만이 들린다.
 (“도버해협”)

회복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울러 우리는 인생의 항구에 정박할 수 있고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되시는 성신의 은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경향을 존중하므로써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세뿌리는 자”인 사도들을 존중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지식에 계시된 복음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우리 모두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 회원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여 마음에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히브리서 12:3) 합시다.

스스로를 채질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지 큐 케번 부대관장은 1875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도록 버려 두셔서 주님의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점으로 인해 이 교회가 지상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와도 구분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쫓겨나와 잡초를 골라내는 일은 이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설교집, 18:84)

앞으로 “만물이 동요할”(교리와 성약 88:91)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는 회피하고 어두웠던 과거조차 그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교리와 성약 1:30 참조). 급격한 발전과 복잡하고 온 세상이 함께 빠져 드는 상황속에서 시련과 기회가 함께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실한 교회 회원들은 그속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숨막힐 듯한 환경 속으로 깊숙히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조차 신앙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 이름을 잃어지고 있는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어서(교리와 성약 6:32 참조) 우리를 인도하시고(교리와 성약 78:18 참조) 우리 앞에 가시며(교리와 성약 44:27, 84:88 참조)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도 하십니다(교리와 성약 98:37 참조). 그분은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두려워 말라... 나는 이미 마음에 정하였음이니, 곧 나는 모든 일에 너희를 시험하여 죽음에 이르기 까지 나의 성약을 지키려 하는지를 알아 보아 너희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노라”(교리와 성약 98:14). 그러므로 우리 모두 쇠막대를 굳게 잡은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을 보았던 리하이처럼 인내와 신앙을 가집시다.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손가락으로 쇠막대를 잡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니파이이사서 8:27, 33 참조). 그러나 리하이는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였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일성도로서 교리의 굶주림과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회복의 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주제별로 나누어 어느 한 작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며, 회복의 장엄한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수없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포함하여 참으로 놀랄만큼 방대하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모세서 1:33, 또한 교리와 성약 76:24 참조). 심지어는 성스러운 성전에서 맺는 의식과 약속에도 믿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에 대한 좀더 완전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이 영광스러운 충만함에 최대한의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회복된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를 말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또한 우리 모두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써 감사함을 표합니다(니파이삼서 27:27 참조). 그저 단순하게 예수께 감사를 표하거나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분을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삶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과 영적인 율법은 세상이 지음받기 전부터 제정되었으며, 그것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경전의 가르침과 예언자들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전세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즉 영의 자녀라고 합니다.¹ 성의 구별은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지, 지상에 태어나면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²

천국 회의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되었는데⁴, 그것은 곧 구원의 계획⁵, 구속의 계획⁶, 위대한 행복의 계획⁷입니다. 이 계획에는 시험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⁸ 하나님은 이 계획에서 구속주와 속죄와 부활을 마련해 주셨으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적대자는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하나의 계획을 채택했으며⁹,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육신을 입을 권리를 거부했습니다.¹⁰ 우리가 이 지상에 있다는 사실은 곧 아버지의 계획을 따랐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¹¹

루시퍼의 유일한 목적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방해하여, 가장 순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의 경험들, 즉 낭만과 사랑과 결혼 생활과 신권 등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¹² 비통과 최악의 망령들이¹³ 그의 주위를 따릅니다. 사탄이 낸 상처는 회개만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계획에는 여성과 남성,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의로운 결합이 요구됩니다.¹⁴ 교리는 인간의 행위를 자주 통제하는 자연적인 강한 충동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창조되어¹⁵ 동산으로 안내되었습니다.¹⁶ 처음에는 아담 혼자였습니다. 그는 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¹⁷ 혼자였기 때문에 그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¹⁸

다른 어떠한 남자라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혼자서나 혹은 아담이 다른 남자와 있었더라도 진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브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필인 이브가 창조되었습니다. 결혼이 제정되어¹⁹ 아담은 그의 아내와 결합하고 [그저 한 여성이 아남] "다른 아무 여자와도 결합하지 말라"²⁰고 명령받았습니다.

이브에게 선택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²¹ 이브는 그녀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 다음 아담이 인간을 낳게 하기 위해 타락했습니다.²²

오슨 에프 휘트니 장로는 타락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두 가지 방향, 즉 퇴보와 진보로 볼 수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지상에 와서 전진을 위한 대로에 발을 딛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²³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축복하시고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²⁴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게시에는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보다 더 좋아하신다거나 또는 아들을 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신앙, 선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등 경전에 나오는 모든 미덕은 남자와 여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며²⁵,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높은 신권 의식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²⁶

타락 이후에 자연 법칙이 인간 탄생에 대한 통치권에 깊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 관장님이 소위 자연의 "몸쓸 장난"²⁷이라고 부르신 것이 여러 가지 비정상과 불구와 기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이성에 비추어 아무리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인류를 시험하신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합당한 느낌을 따르고 의로운 충동에 반응을 보이며, 바람직한 모든 인간 관계를 이룩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에서 제시되어 승인받았으며, 그분의 교회에 밝혀진 계명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번성하여 땅을 채울 수 없었을 것이다.²⁸ 상호 보완적인 이 차이점이 행복의 계획의 중심이 됩니다.

어떤 역할은 힘이 요구되는 남성적인 성격에 어울리는 반면 어떤 일은 여성적인 성격에 어울립니다. 경전과 자연 현상 모두 남성을 보호자와 부양자의 위치에 올려 놓습니다.²⁹

교회 관리와 관계가 있는 신권의 책임은 가정 밖에서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은 남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이 신권의 반차는 아담 시대로부터 아들에게로 전하여 내려가도록 확인되었나니, ... 이 반차는 아담의 시대에 제정되었느니라."³⁰

신권을 소유한 남자가 승명을 위한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여자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는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영에 반드시 필요한 특성과 미덕이 자연적으로 여자들에게 주어지며, 그것이 결혼과 모성애를 통해 정제됩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합당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자연의 윤법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 작용함으로써 그것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권에는 커다란 책임이 따릅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임[라]."³¹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제하며 강압하려 하면"³² 그 사람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³³을 어기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³⁴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각각 다른 역할은 해의 영광의 승영의 조건에 따라 세워진 것이지만, 가장 실질적이고 평범한 이 지상의 가정 생활에서 가장 잘 입증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성찬식에서 한 연사가 왜 자기 손자는 항상 할머니 집에 간다고만 말하고 할아버지 집에 간다고는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평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 큰 비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건 할아버지들은 과일을 구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과 영적인 윤법은 세상이 지음받기 전부터 제정되었으며, 그것에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영원합니다. 이것은 사회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될 대상이 아니고, 변경될 수도 없으며, 어떠한 압력이나 항의나 범람로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오래 전에 저는 인디언들의 세미나리를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알부크에르크에 있는 한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1학년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업중에 한 어린 고양이가 교실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방해해서, 그 고양이를 잡아다가 어린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교실 앞에 놓았습니다.

한 어린이가 "그것 암고양이예요, 수코양이예요?"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고양

이일 뿐이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이는 호기심이 강했습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그 고양이가 암놈인지 수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하고 말했습니다.

궁지에 빠졌던 선생님은 "좋아요. 그럼 이 고양이가 암놈인지 수놈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봐요."하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투표를 하면 되잖아요."하고 대답했습니다.

변경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리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 밝혀진 원리들은 여러분이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어떠한 남자들[또는 여자들]의 공모로도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없어질 수 없는 원리들입니다... 이 원리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다루거나 파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은 것이며... 세상이 함께 힘을 기울여도 이 원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의 한 조각이나 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결코 폐지될 수 없습니다."³⁵

2차 대전중 남자들은 전투병으로 불려나갔으며,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아내들과 어머니들은 사역병으로 징집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장 심각하게 받은 곳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이 세대에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194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대관장단은 "은 세상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교회 대관장단의 권능으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아담과 이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또다시 결혼 성약의 원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여 선택받은 수많은 영들이 육신을 입고 이곳에 와서 완전한 영혼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신 계명을 따르는 것이 모든 남편과 아내의 의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을

입지 못하면 그 영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남편과 아내는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성스럽고 영원한 성약 안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선택된 영들을 지상에 데려오으로써, 부모는 각자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용하여 육신을 입은 영과 주님에 대한 가장 성스러운 의무를 떠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맞이하게 될 영원한 운명과 그 영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축복이나 벌이 부모가 그 영에게 베풀어 줄 관심과 가르침과 훈련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적절한 모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상세한 업무 보고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의무 중 이보다 더 큰 의무는 없습니다.”

어머니들에게 주신 권고에서 대관장단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일에 자신을 헌납하여, 첫째 지체를 지키고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아브라함서 3:25)를 증명하기 위해 두번째 지체를 지키기 위해 이 지상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와 정신과 영을 기르고 돌보며 양육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성스러운 부름입니다. 그들이 두번째 지체를 지키도록 인도하는 것이 어머니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아브라함서 3:26) 될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역할은 어머니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간호원이나 유아원에서나 또는 그 일을 위해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아버지나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모든 보살핌을 줄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혹은 사회 봉사물 목적으로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어머니는, 자녀를 ‘임의로 하게 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잠언 29:15)라는 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다’(교리와 성약 68:25)고 말

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 즉 모성은 신성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맡을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성스러운 임무로써, 이를 통해 이 거룩한 부름과 봉사를 존중하는 여성은 천사 다음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³⁷

대관장단으로부터 주어진 이 메시지와 경고의 말씀은 그 말씀이 주어진 때보다 오늘날 더 필요합니다. 교회의 어떠한 조직의 관리자의 음성도 대관장단의 음성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³⁸

천성적으로나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이나 부모가 되는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자녀를 기르고 부양하는 일을 혼자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영생에 관련해서 받게 될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³⁹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⁴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유산으로 열쇠를 두 개 받았는데, 하나는 그가 모든 회생을 치르고서라도 지켜야 할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며, 다른 하나는 그 보물 창고 안에 있는 매우 귀중한 보물이 들어 있는 금고 열쇠였습니다. 그는 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귀중품들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이 유산을 탈취하려고 한다는 경고도 받았습다. 그리고 만일 그가 보물을 가치있게 사용한다면 그 금고는 계속 채워져서 영원토록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다. 그는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 보물들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쓴다면 그의 축복과 기쁨은 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혼자서 보물 창고로 가서 첫번째 열쇠로 보물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열쇠로 금고를 열려고 했으나 열 수가 없었습니다. 금고에는 자물쇠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열쇠 하나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금고를 열 수 없자 그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그 사람은 열쇠를 받았으며, 보물의 적법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대로 따랐지만 금고를 열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한 여인이 보물 창고로 왔습니다. 그 여인도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남자가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열쇠였습니다. 그래서야 그 남자는 겸손해져서 그 여인이 없으면 자신의 유산을 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금고를 함께 열고 또한 지시 받은 대로 남자는 보물 창고를 지키고 여자는 금고를 지키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여인은 남자가 보물 창고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두 개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의 목적은 그들 두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있는 여인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금고 문을 열고 자신들의 유산을 취했습니다. 약속된 대로 금고는 계속해서 다시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큰 기쁨 속에서 그들은 그 보물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자손들은 각자 마지막 세대까지 줄어들지 않는 풍성한 보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후손은 상호 보완적인 열쇠를 물려받을 배우자나 또는 합당하며 보물과 관련된 약속을 기꺼이 지킬 사람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이 계명을 지킨다면 가장 작은 축복이라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물을 그릇되게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에게 열쇠와 성약에 주의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은 열쇠를 두 개나 가진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열쇠를 하나만 가진 일로 인해 미혹당하거나 시기심을 갖거나 혹은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왜 보물을 내 혼자 차지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사용할 수 없단 말인가?”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자손은 물려받은 열쇠의 모양을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서 양쪽 자물쇠에 모두 맞는 열쇠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고는 그들에게는 굳게 잠겨 버렸습니다. 새로 만든 열쇠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그들은 유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보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보물에 관련된 율법에 순종한 사람은 한없이 넓고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이 참되다는 사실을 그 계획을 위해 속죄하신 예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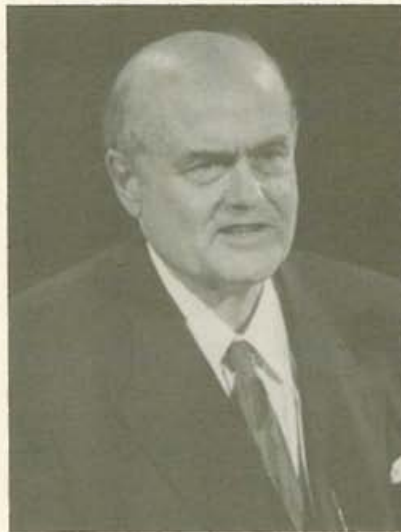
문제는 진리입니다

참고 문헌

1. 교리와 성약 76:24; 민수기 16:23; 히브리서 12:9 참조.
2. 교리와 성약 132:63; 대관장단, "인간의 기원"(1909년 11월), 제임즈 알 클라크 편집,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6권, 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사, 1965~1975), 4:203; 스펜서 더블류 킴볼, 앤서인 1976년 3월호 71쪽; 고든 비 헝클리, 앤서인, 1983년 11월호 83쪽 참조.
3.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영문 348~349, 357, 365쪽 참조.
4. 아브라함서 3:24~27 참조.
5. 에이톰서 1:2; 엘마서 24:14; 42:5; 모세서 6:62 참조.
6. 야곱서 6:8; 엘마서 12:25~36; 17:16; 18:39; 22:13~14; 39:18; 42:11, 13 참조.
7. 엘마서 42:8
8. 엘마서 42:2~5 참조.
9. 니파이서 9:28; 엘마서 12:4, 5; 힐라맨서 2:8; 니파이삼서 1:16; 교리와 성약 10:12, 23; 모세서 4:3 참조.
10.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영문 181, 297쪽 참조.
11.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영문 181쪽 참조.
12. 니파이서 2:18; 28:20 참조.
13. 엘마서 39:5; 모로나이서 9:9 참조.
14. 교리와 성약 130:2; 131:2; 고린도전서 11:11; 에베소서 5:31 참조.
15. 모세서 6:8~9 참조.
16. 모세서 3:8 참조.
17. 모세서 6:67 참조.
18. 모세서 3:18 참조.
19. 모세서 3:23~24 참조.
20. 교리와 성약 42:22 참조.
21. 모세서 4:7~12 참조.
22. 니파이서 2:25 참조.
23. 교리상의 카울리와 휘트니, 포레이스 그린 편집(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사, 1963), 287쪽.
24. 모세서 2:28; 또한 창세기 1:28; 9:1 참조.
25. 갈라디아서 5:22~23; 교리와 성약 4:5~6; 엘마서 7:23~24 참조.
26. 교리와 성약 131:2 참조.
27. "영원한 계획에 있어서의 아내와 어머니들", 1946년 10월 여성 대회에서 행하신 말씀, 제이 루우벤 클라크:종교, 교육 및 청소년 섹션, 데이비드 에이치 안 이세(프로보, 유타:브리감영 대학교 출판사, 1984), 62쪽 참조.
28. 창세기 1:28 참조.
29. 교리와 성약 75:28; 디모데전서 5:8 참조.
30. 교리와 성약 107:40~41; 또한 교리와 성약 84:14~16 참조.
31. 교리와 성약 121:41~42.
32. 교리와 성약 121:37.
33. 교리와 성약 84:39.
34. 교리와 성약 121:37.
35.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영문 308, 367쪽 참조.
36. 실교집, 22:342.
37. 대회보고, 1942년 10월 7, 11~12.
38. 교리와 성약 107:8~9, 22, 91 참조.
39. 교리와 성약 137:7~9 참조.
40. 밀레니얼 스타, 61(1899년 8월 31일):547.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진리의 뿌리를 발견하는 데 중심을 두지 않는 한 모든 배움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는 우선 정직해지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편 4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이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 인간이 모든 진리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자녀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즉 진리의 영이 우리의 계속적이고 무한한 지침이 되게 하지 않는 한 이 필멸의 상태에서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회복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필멸의 생애 동안 자유의지가 영과 이 세상의 요소인 "육체", 즉 "육으로 난 인간"과의 불가분의 연결을 통해 시험받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교리와 성약 88:15 참조). 이 계시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불행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열쇠와 권세도 받게 됩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공부부를 통해 마음이 열릴 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란 순수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실체의 나, 즉 하나님

의 영의 자녀"가 현재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적에 의해 유혹당하고 영향을 받는 육신, 즉 세상적인 요소와 생사를 거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게 됩니다.

물문경의 계시를 통해 이 적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들려고 온갖 횡포와 교활함으로 싸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니파이서 2:27 참조).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그분의 빛을 통해 의와 진리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싸우며 도움을 갈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개개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계획과 대속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오기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우리 마음이 이해력을 갖게 될 때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8:11).

문제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리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올바르게 이해를 하도록 온전히 자신을 일깨우는 것으로, 이 실체의 나는 순수하고 잠재력을 지녀 또 다른 나 즉 이기적인 욕망과 어리석음을 지닌 "육"적인 나의 영향력과 상충되는 것입니다. 것처럼 온전히 정직한 상태에서만 우리는 진리의 완전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직이 최상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도 정직이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정직은 영의 은사로서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우리의 패부를 꿰뚫을 만큼 강력한 방법으로 진리를 간증할 수 있는 힘을 느낍니다.

예언자들의 가르침의 결과에 대한 한 가지 위대한 본보기가 물문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들의 복리를 염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계획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가

이를 매우 엄격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행하여 백성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무가치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완전히 인식하게 됩니다(모사이야서 4:5). 우리 자신의 죄와 필멸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 정직의 인식에 대한 마지막 단계는 베냐민 왕의 백성들로 하여금 한 소리로 "오 긍휼히 여기시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험을 미치사 우리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며"(모사이야서 4:2)라고 부르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격심한 전쟁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완전하고 철저히 정직하게 되어 진리의 하나님인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알든지 모르든지간에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에 관해 확실히 모르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빛의 영향력이 없다면 무의식중에 이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전선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이길 가능성도 없습니다. 전선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의식중에 싸우는 자신 내부의 전쟁은 무의식중에 피해를 당하며 패배로 끝납니다. 이러한 패배는 우리 의식 세계에서 자신감 결여, 행복감과 기쁨의 부족, 신앙과 간증의 부족과 같은 비참



한 모습이나 또는 교만, 방종 및 심지어는 잔인하고 외설스럽게 행동하는 것과 같은 비행의 형태를 보이는 무의식적인 자아의 과잉 행동 등으로 표출됩니다.

안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없으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정직해지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에서 보게 되는 큰 비극 중의 하나는 "육"의 영향력을 통해 적이 우리를 속여 진리의 모양이나 형상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의 모든 기억이 모여 있는 거대한 컴퓨터인 우리 두뇌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육"에 의해 프로그래밍되어 영적인 자아를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와 명상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정직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 한 소위 "지능"은 진리처럼 보이는 그릇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득을 얻고, 협박하

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진리를 조작하고자 하는 많은 짓들을 치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디모테후서 3:2, 5, 7).

진리의 뿌리를 발견하는 데 중심을 두지 않는 한 모든 배움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는 우선 정직해지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중에 우리는 문득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로마서 8:26).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게

주님의 바람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칠십인 정원회

되면 진리를 인정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내지 않게 될 수 있는(니파이이서 28:28 참조) 능력을 키워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깊이있는 기도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진정한 자신을 보게 되는 혼자만의 장소로 마침내 인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모든 작은 것들도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헛됨과 자신의 육적인 안전을 바라는 그릇된 소망을 가진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많은 결점과 가장 작은 것들에 감사가 부족한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거룩한 장소에 있게 되는 데 그곳은 용기가 있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고통을 겪는 무시무시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참된 회개가 생겨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영혼의 개심과 거듭남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예언자들이 봉사하도록 부름받기 전에 예언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개종자들이 죄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을 소망을 갖기 전에 그들 자신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성결과 재헌납과 새로운 성약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갑자기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엄숙히 헌신을 결심했을 때, 갑자기 영혼이 "구속의 사랑을 노래"(열마서 5:26)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신앙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곳입니다. 마음에 이처럼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는 존재하거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없는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팔에 맡기기 전에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 행위의 실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기 전까지는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5 참조).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속죄를 통해 부끄럼없이 설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을 더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며 그 대답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 앙개조 제4조에는 "우리는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와 의식은 제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이, 회개, 제삼,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제사,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깊이 생각해 보면 첫번째의 원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므로 회개를 하게 되고, 침례를 받거나 또 다른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회개가 가능케 되었으며 침례가 의의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거나 침례받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침례 그리고 기타 다른 원리와 의식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의 연장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행하지 않게 되며 신앙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끝까지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또한 깊고도 변치 않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끝까지 견디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시도록 간구를 하지만 그 힘을 주시는 근원에 대하여 대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데 필요한 힘이 우리가 평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는 너무 자주 쉬운 방법만을 찾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고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수년 전 선교사로서 저는 남 태평양에 있는 열 일곱 개의 조그마한 섬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섬 사이를 왕래하는 유일한 교통 수단은 돛을 단 배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전통 때문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일 사람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의 한 회원이 다음 날 해가 질 무렵에 어느 섬의 부둣가에 나가게 되면 복음 토론회에 참여할 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던지 마치 금덩어리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 봉사하고 있었지만 곧 다음날 그 지정된 섬에 저를 데려다 줄 네 명의 항해에 익숙한 회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다섯 명의 우리 일행이 출발을 하였습니다. 순풍으로 인하여 신속히 해안을 따라 암초 사이를 가로질러 넓게 트인 태평양의 바다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순조로왔지만 해가 점점 더 솟아오르고 배가 육지에서 멀어지게 되자 바람이 잠잠해지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완전히 멈춰 잔잔한 대양 위에 정처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뚝뚝배 항해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돛단배는 바람이 있어야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때때로 폭풍이나 큰 파도 없이 바람이 잔잔할 때도 있지만 보통 바람은 폭풍과 커다란 파도를 동반합니다. 뱃사람들은 폭풍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폭풍은 항해에 필요한 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뱃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잠자는 바람이나 배를 나아가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흘러 해는 더욱 더 높이 솟아 오르고, 바다는 더욱 고요해져 조금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무언가 변화가 없다면 해질 무렵까지 그 섬에 다다르지 못 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여 간청해 볼 것을 제의했습니다. 누가 이 보다도 더 의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를 하였고 기도가 끝났을 때 바다는 여전히 고요하였으며 우리는 계속 정처없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은 한 형제님께서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모두의 신앙으로 함께 기도할 것을 제의하였고,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커다란 영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마지막 사람이 눈을 떴을 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금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돛은 흐느적거리며 맥없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뱃전을 때리던 가벼운 물결마저도 잠잠해져 이 커다란 바다는 마치 우리의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형제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큰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제안했습니다. 아름답고 간절하며 진실한 많은 기도가 하늘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람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태양은 여전히 전보다 더욱 뜨거운 열기로 타는 듯이 내리 쬐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사탄이 "이봐 바람없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어. 내 손아귀에 있는 거야."라며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기 원하는 가족들이 부둣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텐데 우리는 지금 바다 한 가운데에서 그들을 가르칠 것을 고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원소들을 지배하신다. 지금 그 가족들에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람인데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보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심하고 있을 때 나는 이 진

실한 나이 많은 형제님이 배의 뒷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가 조그마한 구명선을 풀어 내려 두 개의 노를 조심스럽게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정용 갈고리에 두 개의 노를 설치하고는 한쪽 옆에 내려 두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조용히 그 안에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려구요. 두 명이 타기에는 이 조그만 구명선의 공간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하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이나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타십시오. 제가 노를 저어 해가지기 전에 해안에 닿으려면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노를 저어 어디로 간단 말인가요" 믿어지지 않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는 가족을 향해서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타십시오?"

저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육지까지는 수마일 떨어져 있고 햇살은 뜨거우며 이 형제님은 연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충실한 형제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강렬한 시선과 그의 일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해가 저물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간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 그의 음성에서 굳은 결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노를 젓겠습니다. 형제님은 저보다 나이가 세배나 많지 않습니까" 결의한 찬 표정과 신앙심으로 뭉친 의지로 그 형제님은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 주시고 배에 타십시오. 이제 입씨름으로 시간 낭비는 그만하고 떠납시다." 그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조그만 구명선에 저를 앞에 그리고 그 형제님은 가운데에서 배의 끝을 향해 다리를 뻗힌채 저를 등 뒤로하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같은 바다의 표면은 이 조그만 조각배의 침입에 혼란되어 마치 "여긴 내 구역이야. 나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그마한 구조선이 돛단배에서 떨어져 감에 따라 노를 젓는 삐걱거리는 소리만 날 뿐 바람 움직임이나 어떠한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형제님은 허리를 구부리고는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님은 노를 바다에 담그고 끌어당기고 들어 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노가 바다에 잠길 때마다 거울과 같은 바다의 굳은 결심을 깨어 버리는 듯하였습니다. 노를 당길 때마다 그 조그마한 구조선은 주님의 사자에 길을 내어주며 우리의 바다를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노를 젓는 동안 그 형제님은 주위를 돌아보거나 쉬거나 이야기도 하지 않고 노를 젓고 또 젓었습니다. 신앙으로 강화되고 변치 않는 결의로 움직여지는 팔과 허리의 근육은 마치 정확한 시계처럼 그 놀라운 박자에 맞추어 구부러졌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바람보다도 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 노인은 복음을 듣기 원하는 한 가족에게 선교사를 데려다 주는 주님으로부터의 부름을 이행하는 데 자신의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분은 그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이었습니다.

해가 거의 질 무렵에야 배는 그 항구의 해변에 다다랐습니다. 그 가족은 기다리고 있었고 나이 든 그 형제님은 여러 시간 만에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가셔서 그 가족에게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물으로 걸어나가 그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권세에 대한 간증을 나누면서 저의 마음은 먼 항구까지 노를 저어와 이제는 인내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을 지니게 될 때 우리가 뜻하는 바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열렬히 간증했습니다. 저는 그 가족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 감당하지 못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행하려 결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족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침례를 받았습니다. 훗날 이 작은 사건

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조그마한 섬이나 우리를 기다리던 가족 그리고 추시는 팔과 아픈 허리, 온몸의 통증으로 인한 피로에도 불평 한마디 없었던 알려지지 않은 한 노인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갈증이나 타는 듯한 태양 또는 여러 시간을 힘들게 노를 저으면서도 불평 하나 없었던 그날의 고투를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선교사를 데려다 줄 수 있었던 주님의 대리인이 되는 특권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하였으나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날 그 형제님에게 주님의 바람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며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주님의 바람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보내 주시도록 간구하나 아무런 응답이 없으므로 얼마나 많이 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길 포기하여 버립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듯하여 그냥 주저앉아 기다리며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는 영감과 느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배 위에서 다섯 명이 기도하였으나 단지 한 사람만이 응답을 듣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며 무한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또는 통과해야 할 유일한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결코 멈춰 서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며 그 대답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연로하신 그 형제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돈독한 신앙을 늘 마음에 지녀 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그 신앙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구 합니다. 주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화하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도움을 주시며 또한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자녀들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벤 비 벵크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자녀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느낌과 문제점과 성공에 대하여 자유롭게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느낄 때, 부모는 자녀와 훌륭한 관계를 맺게되는 것입니다.



시 온의 주민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28)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어느 토요일 이른 아침에 저는 벨슨 감독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 감독님은 그의 와드에 속해 있는 켈센 가족이 산에서 가족 소풍을 하는 동안 일곱 살 된 아들 매튜가 길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둠 때문에 아이를 찾는 수색 작업은 금요일 저녁에 이르러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토요일 아침이 되자 순식간에 일백 명이 넘는 스테이크의 형제와 자매들이 구조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구조 지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산의 오솔길에 있는 발자국들과 등산로와 주변 삼림 지역을 여러 시간에 걸쳐 세밀히 탐색한 후에 어린 매튜는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매튜가 어머니와 아버지 품속으로 안길 때의

그 기쁨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매튜의 부모님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묻는 것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매튜가 대답하기를 "길을 잘못 들어서서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날이 어두워져서 몸을 피할 곳을 찾아 잠을 자려고 했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서 다섯 번이나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는데요. 아버지가 저에게 만약 길을 잃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길 위에 나와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에반스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시 이 길을 지나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는 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세상의 어떤 것도 침묵할 만큼의 당당하고도 위압적인 강력한 외침, 즉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가지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아동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어린 자녀들은 일찌기 성격이 형성되고 다듬어진다고 말합니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아주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찾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단순한 관심사가 종종 큰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라면 누구나 훌륭한 부모가 되려는 소망을 가지며, 가정 환경 속에서 어린 자녀들이 복음의 원리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니파이 백성들을 방문하시는 동안에 이사야의 말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네 모든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며 네 자녀를 심히 평안하게 할 것이요."(니파이삼

몇 주 전에 제가 현재 살고 있는 필리핀의 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는 동안 저는 열 한 살 된 조셉이 순수한 신앙으로 연단에 서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의 여동생이 치통을 앓았어요. 저는 여동생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해주시도록 부탁하라고 말했죠. 아버지는 축복하셨고 통증은 사라졌지 뭐예요. 저의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우스꽝스러운 것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어렸지만 항상 경전을 읽었으며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과 가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일성도 가족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가족," 즉 부모와 자녀들이 다 함께 영원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자녀들을 돌보는 책임을 서로 나누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족 중에는 부모 중 한 분을 사별하여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 한 분과 사는 가족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어머니만 계시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저의 선친께서는 제가 두 살이 되었을 때 건축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저의 어머니와 계속 양육받아야 할 일곱 명의 자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분만이 있는 가족에서도, 가족은 계속되며 영원한 것입니다. 아마도 훌륭한 부모님이 되는 것보다 인간이 갖는 더 큰 도전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의도를 가진, 양심적이며 선량한 부모들도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절망감과 실패감,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기도하여 길을 벗어나 절망을 가져다 줄지도 모를 아들이나 딸을 위하여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심이사도 정원회의 헌터 회장님은 "훌륭한 부모가 되는 책임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자신과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에 영원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하여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가도록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엔사인, 1983년 11월호, 65쪽) 부모님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도울 뿐이며 교회가 부모의 책임을 대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자녀들에게 가까이 갈 시간을 가지도록 간구하는 바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깃들게 하고, 자녀들에 대한 온화함과 가르침 그리고 배려가 있게 하여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 하지 마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바쁜 나머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허락하십니다.(리처드 에반스 인 용서, 솔트레이크시티: 퍼블리셔스 출판사, 1971년 21쪽)

우리는 부모가 되는 어 위대한 책임을 지면서 부모가 세상적인 유혹에 대해 자신의 가족을 강화시키고)만인이 바라는 단결과 성공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일찍 시작함**· 켈럼니스트인 시드니 해리스는 한 부모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 "어떻게 하면 열 여섯 살 난 제 아들이 저의 말을 잘 들도록 할 수 있습니까?" 해리스 씨는 간단히, "그 아들이 6개월이 되었을 때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 좀 다른 방법으로 시작해보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문제의 심대 청소년을 갖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별로 고무적이 조언이 못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막 부모가 되려는 분들에게는 사랑과 훈육이 결코 무루이질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존 엠 테일러저-엔사인, 1972년 10월, 9쪽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강화함")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명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93:38, 40)고 하셨습니다.

2. **효과적인 대화**· 부모님들은 단지 말하기 보다는 자녀들의 말을 경청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경청은 마음과 가슴을 열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느낌과 문제점과 성공에 대하여 자유롭게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느낄 때, 부모는 자녀와 훌륭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3. **사랑과 단결을 중요하게 여김**· 어린 자녀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사랑과 느낌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표현은 수 없는 조그만 행위와 몸짓들, 이를테면 기도를 하고 나서 자녀를 침대로 데려다 주는 것, 혹은 자녀가 심하게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지라도 자녀의 몸을 감싸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위로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공놀이나 음악회에 참여함으로써 서로를 지지하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4. **일을 함께 함**· 함께 하는 방학과 오락 활동 또는 가족끼리 하는 일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훌륭하게 일하는 습관과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는 서로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5. **자립심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자녀들에게 자신이 혼자서 결정 하는 것이 때로 실패를 가져오게 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스스로 결정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부모로서 도와서 "선과 악을 알며 스스로 행동하며 강요되지 아니 하느니라"(니파이이서 2:26)는 리하이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행하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사랑으로 훈계함**· "훈계"와 "벌"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벌은 마음을 상하게 하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반면에, 훈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목표를 향해 나아 가는데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윌리엄 이 노만, 리더스 다이제스트, 1969년, 10월호, 187~191쪽) 훈계에는 항상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7. **봉사함**· 맹정들에게 고별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베나민 왕은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다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모사이야서 2:17)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진정 의미있는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감과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상은 우리 삶에서 별로 없습니다.

8.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임**· 교리와 성약 88편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

감사함

애드니 와이 고마쯔 장르
칠십인 정원회 명예 회원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거룩한”이라는 말과 “가볍게”라는 말은 주님의 권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총관리 역원으로 서 받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칠십인으로서의 봉사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기간 동안 저와 제 가족이 받은 많은 축복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저를 지지해 준 제 동반자인 아내에게 진실한 사랑과 감사를 전해 주고 싶습니다. 아내의 지지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부름이나 임무 지명을 받더라도 아내는 항상 제 곁에서 저를 돕고 지지하며, 그 새로운 부름에 관심과 흥미를 가졌었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가 받은 임무 때문에 오랜 세월을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은 저의 자녀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자녀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 사업을 하는 동안 화평과 기쁨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름에 참여하는 일이 저에게 훌륭한 경험이 되었으며,

어떠한 부름을 받더라도 자녀들의 열렬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랜 세월 동안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주신 총관리 역원들 및 친구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그분들의 친절과 관심 및 저희 부부의 복지를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니,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온통 생각이 뒤엉켜 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1829년 4월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신 권고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리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교리와 성약 6편 12절에 기록된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아마도 1829년에 살던 사람들보다도 오늘날 우리에게 더 잘 적용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거룩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은 성전에서 맺어지는 성약입니다. “거룩한”이라는 말과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영예로운 것들을 당연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권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는 거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큰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남편들이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권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로 결혼하기 때문에 이혼율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이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당연하게

미스에게 주신 가르침은 성전을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한 구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가정의 형태를 아름답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교리와 성약 88:119)

오늘날 세상에서 어린 자녀들을 깨끗하고 순결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마가 아들 코리엔톤에게 가르쳤듯이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엘마서 41:10)라는 사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편에 서도록 가르치십시오. 가정의 밤을 정기적으로 가지십시오. 가능하면 하루에 두 번씩 가족 기도를 가지십시오. 자녀들에게 경전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개인적인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또한 성신이 영을 통하여 우리와 어떻게 교통하는지를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이 암시와 생각과 깊은 인상과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지니고 있는 신성한 중요성을 가르치십시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에게 간증,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물문경은 진실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살았으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키 위해 돌아가셨으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간증을 갖도록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마음 상하지 않게 함, 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사, 1991년, 154쪽)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아놀드 글라스코우, 리처드 엘 에반스 인용의 책 18쪽) 모든 부모들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에서 온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깨닫도록 하는 데 있어 성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모로서의 신성한 역할을 다하는 것에서 기쁨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생각해서는 안되며, 자녀와의 관계를 항상 성스럽고 영예롭고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1986년에 열렸던 연차 대회 of 신권 모임에서 우리의 예언자이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교회의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년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권고는 청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두 어머니와 가까이 지낼 것을 권고합니다. 어머니를 존경하고 존중하십시오. 의로운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고 가르쳐 주시는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 계시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훌륭한 성품을 닦으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가족은 영원하며, 여러분은 그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밤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가족 기도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둘러 앉아 무릎을 꿇으십시오. 가족들의 진정한 단합과 단결을 위해 여러분이 맡은 역할을 다하십시오. 그러한 가정에서는 세대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47쪽).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세상 곳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진리를 간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분들의 우정은 우리에게 매우 성스럽고 소중합니다.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정을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존중할 때, 우정은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성스러운 것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이 땅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과 축복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의 고통을 물리쳤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내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여 주님께서 충실한 자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봉사 및 행복

야곱 디야저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명예 회원

교회는 성도들이 일하는 곳이지 성도들을 전시켜 놓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지니신 분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조직의 진정한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은 세계의 형제, 자매 친구 여러분 본 대회의 첫 모임에서 매우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으시고 오늘 오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된 것처럼 오늘부로 저는 명예 총관리 역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분은 만장 일치로 동의하며 감사의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1976년 4월에 칠십인 정원회에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네덜란드 회원들의 진폭적인 사랑을 받았던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은 언제나 저를 “행복한 네덜란드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17년 반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행복한 네덜란드인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그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원회에서 봉사했던 이 기간들로 인해 저와 제 영원한 동반자인 비의 삶에 기쁨과 무한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미의 폰타 아레나스에서 알레

스카주의 앵커리지까지, 또한 호주의 호바트에서 일본에까지 스테이크들을 관리하도록 지명받은 특권을 지녔었습니다. 저는 충실한 지역 대표 및 헌신적인 스테이크 부장단들과 가까이 일했으며 항상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 여러 곳의 교회 선교부들을 방문하여 선교사들에게 선교 사업의 목적, 즉 모르고 살고 있지만 모두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기록한 지식을 전해주는 일에 대해 가르친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줄 거룩한 성약을 맺는 것임을 그들이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이 정원회에 부름받을 때처럼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서부 미국의 전통대로 멋있게 이 직분에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영감을 받아 저에게 의미있는 부름을 주려고 기다리는 사랑스런 신권 지도자가 있음을 압니다.





전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태버나클 지층의 통역실에 있는 통역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헤드폰을 통해서 자국어로 대회 진행과 말씀을 병행할 수 있다.

저의 첫번째 교회 부름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침례받은 지 3일만에 주어진 것으로 와드에서 찬송가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찬송가를 관리하는 일을 다시 맡는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이는 교회는 성도들이 일하는 곳이지 성도들을 전시해 놓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간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을 지니신 분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조직의 진정한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명랑한 성품을 지녀왔으며 이제 몇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여러분과 기쁘게 나누고 싶습니다.

·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니신 부름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그 부름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부름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 만족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만족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 역경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디에서 봉사하든 지간에 여러분은 역경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역경의 바람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연은 바람에 날려가는 때보다 거스르는 때 올라갑니다.

·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들을 말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 현재 순간에 최선을 다해 생활하십시오. 과거나 미래에 안주해서는 안됩니다. 성공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경험해 보는 과정입니다.

· 침례시, 그리고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존중하고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 여러분의 나이가 70세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의 일들을 정리해 주려는 충동을 참아야만 하며 때론 자신이 잘못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얼마전 저는 십이사도 평의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님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던 선교부장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분은 나이들어 간다는 것에 대한 무명 작가의 글을 우리들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단지 수많은 세월을 지냈다는 것으로 늙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자신의 이상, 자신의 믿음을 버림으로써 사람들은 늙어간다는 경이로움에 대한 사랑, 곧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순수한 소망과 삶의 기쁨은 늘 있다네 믿는 만큼 젊어지고 의심하는 만큼 늙게 되며 자신감을 갖는 만큼 젊어지고 두려움과 절망하는 만큼 늙는다네.

“우리들의 가슴 속은 기록하는 곳이라네,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신앙

의 메시지를 받는 한, 우리는 젊음을 유지할 거라네”(엔사인, 1983년 11월호 25쪽).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든지 간에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신앙 및 행복을 가르쳐 주는, 급속히 성장하는 교회에 속해 있어 충실하게 봉사함으로써 마음에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대관장단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은 1993년 10월호 엔사인 잡지에서 “행복, 만인의 추구”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이 생과 다음 생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행복을 얻는 중요한 방법을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근거로 전해 주셨습니다.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며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더욱 큰 행복을 줄 이 분명한 길을 견도록 합시다. 끝으로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인류의 구세주요 구속주라는 것과 요셉 스미스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을 포함해서 교회의 대관장으로 요셉 스미스의 뒤를 이은 모든 분들도 우리 시대의 살아 계신 예언자들이심을 엄숙히 증거합니다. 이러한 저의 개인적이고 영원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변화 속의 불변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비록 인간이 진리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진리 자체는 불변합니다. 영원한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문은 부대관장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피터슨 형제님과 고마즈 형제님 그리고 디야거 형제님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찬사를 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브리감 영 대학교 합창단의 훌륭한 합창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훌륭한 합창이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모두 훌륭하며, 특히 의미 깊은 질문을 할 줄 압니다. 최근에 저는 “룻”과 “존”이라는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룻이 한숨을 내쉬면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지리학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인구 수도 변하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변하고 있죠. 자매님의 조부모님들이 자매님 나이 때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물어 보신다면 그분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거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룻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여쭙 보았죠. 저의 할아버지는 제 치있게 ‘지나간 좋은 시절에다 덧붙여 페니실린이나 다오.’하고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존이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지를 않아요. 두려운 생각마저 들어요. 우리는 마치 움직이는 모래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둘이 함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도 변하지 않을 것이 있을까요?”하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물론 많이 있습니다.”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변화하는 세상에서 룻과 존처럼 불변하는 것을 찾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저는 “변화 속의 불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언자와 사도들은 많은 불변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하늘의 인격체, 계획 및 원리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인격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분리될 수 없도록 결합된, 살과 뼈로 된 영화로운 육신을 갖고 계십니다.² 경전에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영세 무궁토록 불변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교리와 성약 20:17)³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 종교의 머릿돌이 되십니다.⁴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며”(앨마서 38:9)⁵ “인간들에게 구원을 전할 이름이나 길... 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다

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모사이사서 3:17)⁶

또 한 분은 성신으로서 그의 존재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신은 변치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혼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혼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내게로 흘러 들어가리라.”(교리와 성약 121:46)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이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지상의 부모님들의 가장 큰 사랑만큼 영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역시 존재하며,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니파이서 2:27) 노력하고 있습니다.⁷

2. 계획

이제 두번째 범주인 불변하는 계획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천국 회의가 열렸는데, 아마도 우리 모두가 거기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⁸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⁹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이나 그 넓은 범위를 묘사하려고 그래서인지, 이 계획은 행복의 계획,¹⁰ 구원의 계획,¹¹ 구속의 계획,¹² 회복의 계획,¹³ 자비의 계획,¹⁴ 구원해 내시는 계획,¹⁵ 영원한 복음¹⁶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말들을 서로 바꾸어 가며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불리든 관계없이 이 계획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있습니다. 속죄는 이 계획의 중심¹⁷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죄를 이해하기 이전에 아담의 타락을 이해해야 하며, 아담의 타락을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창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즉 창조와 타락과 속죄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세 기둥이며, 이것들은 교리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

지상의 창조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준비 단계에 속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 하나님이 내려가 인간을 그

들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더라. 이에 여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는 저들을 축복하자 하시고”(아브라함서 4:27-28)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어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상에 살게 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¹⁸ 그들은 그 이전에 창조된 식물이나 동물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살과 뼈로 된 그들의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순수한 상태에서, 그들은 아직 불멸의 육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맛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자녀를 가질 수도 없으며,¹⁹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²⁰ 따라서 우리는 그 창조를 **낙원의 창조**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남아 있는 수많은 하늘의 무리 가운데 속해 있을 것입니다.²¹ 그랬더라면 “위대한 [행복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을”(엘마서 42:5) 것입니다.²²

타락

그것이 아담을 타락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의 계획이 결실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낳으라는 계명이었습니다.²³ 그들에게 한 율법이 설명되었는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창세기 2:17)를 먹는 날에는, 그들의 육체가 변화되어 필멸의 육체가 되고 결국은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²⁴ 그러나 그들이 자녀를 갖기 위해서는 그 실과를 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²⁵

저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생화학적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육체가 변화하여 그들의 몸에 피가 돌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필멸의 인간의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행스럽게도 아담과 이브는 자녀를 낳았으며, 세상이 창조된 목적을 성취했으며, 그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주께서 아담[과 이브²⁶]에게, 보라, 나는 에덴 동산에서 지은 네 법법을 이미 용서하였느니라”(모세서 6:5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모든 인류는 이브의 커다란 용기와 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브

는 먼저 금단의 열매를 취함으로써 반드시 행해져야 할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담 역시 그렇게 할 만큼 현명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의 타락을 필멸의 창조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 함”(니파이서 2:25)이었기 때문입니다.²⁷ 아담의 타락을 통해 우리는 다른 축복도 받았습니다. 타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거의 생명만큼이나 귀중한 축복이 추가로 주어졌는데, 이 두 가지 축복은 자유의지와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이는 행사될 수 없습니다.²⁸

속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의 세번째 기동인 속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최종 정착지도 이 지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같이 주어진 현실 속에서 변화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 및 그들의 후손을 구속하기 위해 무한한 속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속죄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더 이상 질병이나 노쇠 또는 죽음을 겪지 않는 피가 없는 형태로 변화²⁹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영원의 율법에 따르면 이 속죄는 죽음에 속박되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개인적으로 희생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속죄자는 불멸의 존재이면서도 죽음을 당하고 다시 자신의 몸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구세주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죽을 수 있는 권세를 물려받았으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죽음을 극복할 권세를 물려받았습니다. 구속주께서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요한복음 10:17-18)

주님은 “인간에게 불사 불멸의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라.”(모세서 1:39)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아버지의 뜻³⁰을 성취하고 그분의 속죄에 관한 모든 예언³¹을 성취시키기 위해 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적인 범법으로 인한 죄로부터 대속받게 되었습니다.³²

따라서 우리는 속죄를 **불멸의 창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린도전서 15:22)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이러한 교훈을 가르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조와 타락과 속죄의 중요성에 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³³

그러나 불변하는 계획에 관한 토론을 마치기 전에 우리는 적대자가 그의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³⁴ 사탄은 변함없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첫번째 계명을 공격하고 있으며, 충실치 못하고 순결치 못한 행위와 기타 자손을 번식시키는 힘을 남용하는 행동 등의 책략을 가지고 인류를 유혹합니다. 사탄의 무리들은 선택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책임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모세서 4:6)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세번째 범주인 불변하는 원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원리

불변하는 원리라 함은 그것이 불변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지구 중력의 법칙이나 심계명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 법칙은 불변합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영원한 복음에 속합니다. 따라서 불변하는 원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권

그 중 한 가지가 신권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신권은 영원 불변하는 원리이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였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니,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느니라.”(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7쪽)✓

우리는 신권이 아담에게 최초로 주어졌으며, 그가 첫 대관장직을 얻었고, 그 열쇠를 쥐었으며, 이것이 대대로 계승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것을 세상이 형성되기 전에 받았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46~147쪽).

경전에는 신권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조상의 혈통을 따라”(교리와 성약 86:8)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³⁶ 그 직분에 성임되는 것 역시 영원하고 직결됩니다. 신권 직분의 임기는 내세에까지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경전에는 어떤 사람이 대제사로 성임되었으면 영원히 대제사가 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³⁷ 약속된 신권의 축복은 온 세상에 있는 남자와 여자 및 어린이들에 미치며,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³⁸

신권의 사용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정하신 조건에 따라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거짓 없는 사랑(으르라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21:41)

“이 [신권의 권능은 인간에게 수여될 수 있나니], 이 또한 사실이나. 그러나 [그들이 자기] 죄를 숨기려 하거나, [자기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능은] 아멘이니라.”(교리와 성약 121:37) 신권은 영원한 원리인 반면, 그 권능을 행사하도록 특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매일 합당한 그릇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율법

불변하는 또 다른 원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도덕적인 율법입니다. 도덕적인 율법을 범하면 징벌을 당하며, 이에 순종하면 “변경되지 아니하며 불변하는”(교리와 성약 104:2) 축복을 받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늘 축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³⁹ 따라서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의를 포용하고 불의를 거부할 것을 가르칩니다.⁴⁰

구세주와 그분의 종들⁴¹은 즐거움을 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

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언제든지 세상의 비평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부드럽게 수정하도록 압력을 가해 왔음을 오랜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⁴²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율법으로서, 결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속죄에서 요구되는 율법을 변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교리들은 켜이 짜고 비틀어서 세대에 말도록 조그마하게 주조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꼭 펼쳐서 자동차 앞 범퍼에 부착시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

형제 자매 여러분, 불변하는 또 하나의 원리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닥칠 심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자신의 행위와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⁴³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빛을 청산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에 속하게 될 해의 왕국이나 달의 왕국 또는 별의 왕국은 우연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각 왕국에 요구되는 불변의 조건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경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불변하는 또 다른 원리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십일조처럼 일시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결코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한 원리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이후부터는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 중 십분지 일을 바치라...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법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119:4) 우리는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불에 타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⁴⁵

진리

불변하는 또 하나의 원리로 진리가 있습니다. 경전에는 “진리는 영원토록 불변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39)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⁴⁶ 비록 인간이 진리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진리 자체는 불변합니다. 영원한 진리와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에게 가르쳐진 최초의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

접 주어졌으며, 그후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빛을 더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과학 실험실에서 나오는 계시에 의해 직접 주어지든 관계없이 복음에 포함됩니다.

가족

불변하는 원리를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문을 지나가겠지만, 이생을 떠나는 시기보다는 영생을 위한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준비 가운데는 교회 봉사가 포함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가족에게 축복이 됩니다. 주님은 “네 의무는 영원히 교회에 있나니 이는 네 가족으로 말미암느니라.”(교리와 성약 23:3)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⁴⁷

다음 경전 구절에 나오는 약속으로 뜻과 존은 물론 여러분 모두 그 개념을 더욱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나의 율법이 되는 나의 말씀과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써 인봉되면],... 왕위와, 왕국과 주변 그리고 권세와 영토[를 상속받으며],... 승영에 이르러 온갖 일에 영광을 누리리니, 그 영광은 완전한 최고의 영광이요,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2:19).

이같은 약속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인내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변화 속에 불변하는 것들은 하늘에 계시는 분들과 계획 및 원리에 의해 보장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인도대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과 영원한 진보와 희망과 자유와 사랑과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들은 지금이나 영원토록 진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참고 문헌

1. 예를 들면, 엘버트 이 보우엔, *변화 속의 불변*,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뉴스사, 1944년; 앤 앨든 테너, *엔사인*, 1979년 11월호, 80~82쪽 참조
2. 교리와 성약 93:33, 130:22 참조.
3. 또한 시편 100:5, 물론서 9:19, 모로나이서 8:18, 교리와 성약 84:102 참조.
4. 에베소서 2:20 참조.
5. 또한 모사이아서 16:9, 니파이삼서 9:18; 11:11, 이더서 4:12, 교리와 성약 10:70; 11:28; 12:9; 34:2; 39:2; 45:7 참조.

6. 또한 사도행전 4:12, 니파이이사 25:20, 모사이야서 5:8, 엘마서 38:9, 힐라멘서 5:9, 교리와 성약 18:23 참조.
7. 또한 니파이이사 2:18, 엘마서 41:4 참조.
8.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영문 348~349, 365쪽 참조.
9. 니파이이사 9:13, 엘마서 34:9 참조.
10. 엘마서 42:8, 16 참조.
11. 에이롬서 1:2, 엘마서 24:14; 42:5, 모세서 6:62 참조.
12. 야곱서 6:8, 엘마서 12:25~33; 17:16; 18:39; 22:13; 29:2; 34:16, 31; 39:18; 42:11~13 참조.
13. 엘마서 41:2 참조.
14. 엘마서 42:15, 31; 니파이이사 9:6 참조.
15. 니파이이사 11:5 참조.
16. 요한계시록 14:6, 교리와 성약 27:5; 36:5; 68:1; 77:8; 79:1; 84:103; 88:103; 99:1; 101:22, 39; 106:2; 109:29, 65; 124:88; 128:17; 133:36; 135:3, 7; 138:19, 25; 요셉 스미스서 1:34 참조.
17.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영문 121쪽 참조.
18. 창세기 3:20, 니파이이사 5:11, 모세서 4:26 참조.
19. 니파이이사 2:23, 모세서 5:11 참조.
20. 니파이이사 2:22 참조.
21. 교리와 성약 38:1, 이브리함서 3:22~23 참조.
22. 또한 교리와 성약 138:56 참조.
23. 창세기 1:28, 모세서 2:28, 아브라함서 4:28 참조.
24. 모세서 3:17, 아브라함서 5:13 참조.
25. 모세서 5:11 참조.
26.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창세기 5:2, 모세서 6:9)
27. 또한 모세서 6:48 참조.
28. 교리와 성약 101:78; 134:1 참조.
29. 고린도전서 15:51~53, 니파이이사 28:8 참조.
30. 니파이이사 27:13 참조.
31. 로마서 5:11, 니파이이사 25:16, 야곱서 4:11, 12, 모사이야서 3:5~11, 16, 18; 19:4; 2, 엘마서 21:9; 22:14; 34:8; 36:17; 힐라멘서 5:9, 모로나이사 7:41, 모세서 7:45 참조.
32. 교리와 성약 138:19 참조.
33. 모세서 6:57~62 참조.
34. 니파이이사 9:28 참조.
35. 또한 출애굽기 40:15, 민수기 25:13, 엘마서 13:7 참조.
36. 또한 교리와 성약 84:6~17; 107:40, 아브라함서 1:2~4 참조.
37. 엘마서 13:9, 14 참조.
38. 창세기 17:1~7; 22:16~18; 26:3~4; 28:13~14, 이사야 2:2~3, 니파이이사 15:18, 엘마서 29:8, 교리와 성약 142:58; 132:47, 아브라함서 2:11 참조.
39. 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
40. 니파이이사 2:25 참조.
41. 교리와 성약 1:38 참조.
42. 예를 들면, 사무엘상 8:4~7, 마태복음 7:21, 누가복음 6:46, 니파이이사 14:21 참조.
43. 교리와 성약 137:9 참조.
44. 요한복음 14:2, 고린도전서 15:40~41, 교리와 성약 76:50~119; 98:18 참조.
45. 교리와 성약 64:23; 85:3 참조.
46. 또한 시편 100:5; 117:2 참조.
47. 또한 교리와 성약 126:3 참조.

신권 모임
1993년 10월 2일

성약을 지키고 신권을 존중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세상의 몇몇 의회에는 "충실한 반대자"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런 원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밤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신권을 소유하신 이 훌륭한 신자들 앞에서 본 적이 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잘못 이해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성신이 도와주시고 형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님들을 매우 사랑하고 깊이 존경합니다. 젊은이 여러분들과 소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을 가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성약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소유한 신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

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은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모세서 1:39)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때 이후부터 모든 인류에게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여러 시대를 통해 인간에게 신권을 주셨습니다. 충실함을 통하여 이 신권의 권능으로부터 영생의 커다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 신권의 축복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신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관리하고 신권의 열쇠를 갖도록 부름받은 지도자들의 말에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단결합시다."라고 하신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님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단결에 있어서 충실함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충실함은 소유하기가 매우 어려운 자질입니다. 그것은 이기심, 탐욕, 욕망 및 인간의 모든 비천한 자질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꺼이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충실해 질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호와 욕망을 버려야 하며, 앞에 놓여 있는 위대한 목표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불사 불멸과 영생, 멜기세덱 신권 학습 과정, 1968~1969년, 163쪽)

4 신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신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며 하늘에 별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입니다. 이 신권에 의해 승영의 위대한 권능이 전 우주를 움직입니다."

예언자 요셉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신권은 '땅의 기초가 놓이고 아침의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치기 전에 제정되었으며, 가장 높고 거룩한 신권으로, 하나님 아들의 반차를 좇은 것이니'"(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 테저렛 출판사, 1938년, 167쪽) 신권의 권세가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이 위대한 권세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반차와 부름에 따라 성임된 모든 자는 신앙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가르며 바닷물을 마르게 하고 강물의 흐름을 바꾸며

"열국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땅을 가르며 모든 사슬을 깨치고 하나님의 전에 설 수 있는 권세를 갖나니... 이는 세상이 놓이기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뜻에 의함이니라"(요셉 스미스역, 창세기 14:30-31).

신권은 성스러운 반차의 체계 안에서 작용됩니다. 그러나 신권은 유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권은 반드시 신권의 직분과 함께 성임에 의하여 부여되어야 합니다. 신권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을 똑같이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할 거룩한 임무를 가지고 그 권능을 사용할 사람이 소유합니다. 어떤 사람도 권능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정식으로 부여받지 않고서는 신권의 권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이 권능을 갖고 있는지, 또 "교회의 머리되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식으로 성임"(교리와 성약 42:11)되었는지는 교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신권의 권능은 신권의 열쇠의 인도에 의해 행사됩니다. 이러한 열쇠는 교회의 지역 관리 역원과 총관리 역원들에게 있습니다. 열쇠를 소유한 분들은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이 널리 퍼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얼마의 다음과 같은 말씀처럼 확실히 교회의 목자들은 양떼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과연 어떤 목자가 양을 많이 가졌으면서 그들을 돌보지 않아 이리가 양떼에게 덤벼들어 양을 잡아 먹게 하겠느냐? 보라 이리가 양떼에게 들어오면 목자가 저를 몰아내지 않겠느냐?(엘마서 5:59)

재판권 즉 선도의 권능을 포함한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온갖 악행으로부터 청결케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20:54; 43:11



참조). 감독, 스테이크 부장, 선교 부장 및 교회를 악행으로부터 청결케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사랑과 친절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징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아니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나 자매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관리 역원들이 모르는 채하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이런 주제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저는 사람들의 죄악을 덮어줘 왔다고 하는 몇몇 감독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독님들께 그분들이 그 죄를 짊어져야 하며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사람들의 죄를 함께 나누거나 그들을 지지한다면 여러분이 그 죄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감독 및 지부장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손에 맡기십니다. 여러분은 의의 원리들을 함부로 변경시킬 위치에 있지 않으며, 사람들의 비행이나 타락을 덮어 줄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대회보고, 1880년 4월, 78쪽).

이 문제에 대해 저희는 관리 역원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고 경전 및 교회 지침서를 공부하고 그것들을 통해 인도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살인, 낙태, 강도, 절도, 사기 및 기타 부정직한 행위, 복수 결혼을 옹호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배도, 혹은 주님의 율법과 교회의 반차에 역행하여 주님의 기쁨 부음받은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포함한 그리스도인 답지 않은 기타 여러 행위들도 해당됩니다.

신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신권 지도자 및 신권 정원회의 결정은 관리 정원회의 형태를 따라야 합니다. "이들 정원회... 가 내리는 결의는 참으로 정의와 거룩함과 겸손과 은유와 오래 참음과 신앙과 유덕과 지식과 절제와 경건과 형제애와 인내로써 이루어져야 하나니"(교리와 성약 107:30)

세상의 몇몇 의회에는 "충실한 반대자"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런 원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이같은 엄숙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리와 성약 38:27) 주님은 관리 정원회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만장 일치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정원회의 모든 회원은 그 결의에 찬성해야"(교리와 성약 107:27)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관리 역원의 지시하에 평의회에서 솔직하고 공개적인 토론 뒤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그 결정은 지지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의로운 원리에 대한 완전한 동의와 하나님의 영의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표현을 권장합니다. 분명히 대부분의 금식 간증 모임이나 주일학교나 상호부조회 및 신권회에서의 공개적인 표현이 그 원리를 입증해 줍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특권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1869년, 조지 큐 캐논 장로님은 개인이 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교회 회원과 총관리 역원들 사이



신권 모임에서 총관리 직원들과 남성 합창단원이 회중 찬송을 부르고 있다.

에 솔직한 견해 차가 있을 때 교회는 그것을 배도라고 간주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총관리 직원의 의견에 대해 솔직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며 배도자가 아니지만 이러한 견해 차를 공공연히 발표하거나 주장, 궤변 및 특별한 호소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분열과 분쟁을 조장케 하고 가능한 한 교회 총관리 직원들의 행위와 권고를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도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우리가 용어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한다면 바로 배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복음전리, 제럴드 엘 뉴키스트런, 총 2권,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4년, 2 : 276~277).

교회에서 배도라고 간주하는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교회나 교회 지도자에 대해 분명하고도 노골적이며, 공공연한 반대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2) 교회의 교리가 아닌 것을 감독이나 다른 관리 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교회 교리로 가르치는 경우, (3) 배도의 무리(복수 결혼을 주장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감독이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에도 계속 따르는 경우”(교회 지침서, 1989년, 10-3)

교회의 기본적인 원리, 관행 및 체제

에 대해 계속해서 공공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으로부터 단절되며 교회에서의 위치와 영향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회원들은 교회의 원리와 교리를 연구하여 이해하도록 권고받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여 솔직한 의견차가 생기면 회원들은 신권 지도자들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 사적으로 토론하도록 권고받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평의회 직원들보다 자신이 영적인 이해력이 더 뛰어나거나 더 학식이 있거나 더 의로울 수 있다는 일종의 교만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의회는 그들이 관리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주님과 더 잘 조화를 이루며, 평의회 구성원 개개인은 일반적으로 그 평의회 지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도력을 인정해 온 이 교회에서는 자신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누군가 관리하게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직업적으로나 전문적으로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직책의 영을 훨씬 덜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사는 동안 보아 온 훌륭한 감독님들 가운데는 벽돌공, 식료품 상인, 농부, 낙농가, 및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느 누가 정식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든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겸손한 분들이었으며, 겸손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성

신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부름을 통해 그분들이 관리해야 할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는 방법을 배워 가면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몬슨 부대 관장님은 “주님이 부르시는 분들은 주님이 자격을 주십니다”(토마스 에스 몬슨, 대회 보고, 1988년 4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은 교회의 여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교회의 자매님들은 처음부터 언제나 주님의 사업에 매우 훌륭하게 공헌해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와 우리의 가족들에게 많은 지혜와 근면과 교양과 우아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자매님들은 가족들의 가치관과 신앙과 장래와 사회의 복지 확립을 위해 전보다 더 많은 공헌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영예롭게 여겨지며 감사받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로 봉사하는 자매님들은 특히 자매, 청소년 및 어린이들이 포함된 문제에 관하여는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신의 아내와 다른 여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아내를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내를 축복해 주어야 하며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관대하게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잠언 31 : 28). 주님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딸들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결혼 생활에서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는 각자 서로 다른 중요하고 거룩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책임 가운데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로서의 부름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충실한 자매님들이 그분들의 천성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특별한 영을 풍부하게 향유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의 재림에 앞서 혼란한 세상에서 의로운 여성이 된다는 것은 특별히 고귀한 소명입니다... 사회의 다른 제도는 넘어지거나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로운 여인은 폭풍과 시련 가운데서도 최후의 보루이며 유일한 성소인 가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149쪽).

신권만이 의로운 권능입니다. 가정에서 그 신권을 불의한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권능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으로 결국 신권을 잃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신권 소유자인 아버지는 자신과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영적, 세상적인 축복을 구해야 할 주된 책임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축복은 그가 자신의 신권을 존중함으로써 의롭게 된 상태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교리와 성약 121:41). 저의 견해로는 성스러운 경전 가운데에서 신권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리와 성약 121편에 있는 다음의 아름다운 언어보다 더 의미심장한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저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저로 내 성실함이 죽음의 사슬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나 신앙의 권속에게 향한 너희 사랑을 가슴에 가득하게 하라.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 들어가리라"(42~46절).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신권 성약에 대한 존중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신 신권의 권세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한계는 여러분이 주님의 영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행사하는 권세에 스스로 제한을 둘 때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블의 가르침, 솔트레이크시티:북그래프트사, 1982년, 498쪽) 킴블 대관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신권 성



약을 어긴다는 것은 계명을 어김으로써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성약을 어길 수 있습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블의 가르침, 497쪽).

우리의 의무와 축복에 관해서 뚜렷하게 상기시켜 주는 또 다른 것으로 교리와 성약 84편에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의 매우 큰 의무는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고 "온 세상 사람에게 간증"하며 "장차 임할 심판"에 관해 세상에 가르치는 것입니다(43절, 61절, 87절). 또 우리가 신권의 책임에 충실한다면 다음과 같은 훌륭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히"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며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33~34절, 38절). 이 생애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는다는 것이야말로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생애에서 최고의 축복은 성약에 순종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받는 의식을 존중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이 포함되고, 이 결혼 성약은 거룩한 엔다우먼트의 관석입니다.

넓은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존경받고 사랑받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와 성약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받으신 분들의 말씀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여호수아가 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적절히 해당됩니다.

"...너희 성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15).

우리는 이 위대한 신권의 권능을 잘 행사하여 이 권능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기쁨으로 가득 찬 영원한 운항을 위한 개인 점검표

휴 더블류 피닉스 장로
칠십인 정원희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비행하고 있는 방향은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 착륙할 곳을 결정합니다.



오늘 밤 저는 아버지나 정원희 고문이나 감독 또는 친구들과 함께 참석하신 교회의 청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을 하늘을 날으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에게는 조용하게 이륙하거나 하늘을 안전하게 비행하거나, 혹은 우주를 안전하게 탐사한 뒤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따르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엔진이 하나뿐인 비행기를 조종하든 매 52분마다 지구 둘레를 한 바퀴씩 도는 우주선을 지휘하든 관계없이 경험이 많고 능숙한 조종사는 비행기나 우주선의 모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여 비행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표를 가지고 세밀하게 점검을 합니다. 항공모함 갑판 위에서 굉음을 발하면서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제트기(F-14 또는 F-18 호넷)나, 워싱턴이나 캔자스에서 농지

위를 날으며 농약을 살포하는 비행기나, 우주로 발사되는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나, 과학 및 의학 실험을 위해 발사되는 인공 위성이나 그 과정은 다 같습니다. 각 엔지니어와 조종사들은 이륙하기 전에 점검표를 가지고 상세하게 점검을 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제대로 정돈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어떠한 비행기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점검표를 세밀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원한 행복을 향해 여행하면서 자주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 분야를 제안합니다. 청남 여러분은 대부분 앞으로 80년이나 90년을 더 살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분명한 목표를 정해 계속 정진해 나간다면, 참으로 밝은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로 점검할 항목은 신권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신권을 깊이 이해하여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신권을 영예롭게 하고 그 권세를 깨달으십시오. 그 중요성을 암시하기 위해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이 지닌 이룬 신권은 예비 신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룬 신권은 델기세택 신권에 부속된 신권입니다. 독생자께서는 전세에 여호와로 계시 때에 델기세택 신권의 권세로써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며(히브리서 1:2, 교리와 성약 76:24, 모세서 1:33 참조), 이 지상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한 현명한 신권 지도자는 지금은 여러분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라고 가르치셨습니다(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와의 대화). 하

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론이 영예롭게 지냈고 침례 요한이 "모든 의를 이루"(마태복음 3:15)기 위해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때 사용했던 그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천 팔백 년 후, 사스케하나 강둑에서 그는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옛날과 똑같은 아론 신권을 성임했습니다.

다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에 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때는 집사 여러분의 연령이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교사 여러분의 나이에 숲속으로 들어가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만행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제사 여러분의 나이에 모로나이의 방문을 받고 금판에 적힌 기록에 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소유한 신권을 통해 성찬의 거룩한 상징인 빵과 물을 준비하고 축복하며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회원들이 "이들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교리와 성약 20:77) 지키겠다는 거룩한 성약을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일주일 중 여러분에게 가장 거룩한 순간은 바로 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금식 헌물을 모읍니다. 여러분 중 많은 청남들이 안내자로 봉사하고 모임을 위해 의자와 탁자를 정돈하며 기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사 여러분은 선교사로 봉사하는 청년들이나 여러분의 부친이나 혹은 다른 연세드신 분들처럼 침례를 베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델기세택 신권으로 이어지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여러분의 신권 지도자들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정원회 회장단 일원이나 정원회 서기로 부르고 성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들을 이끌면서 지도력에 관해 참으로 훌륭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은 정원회 지도자 직분에 있는 청남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경험을 쌓게 해주므로써, 참으로 많은 청남들이 바람직한 미래를 구축하

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적절한 상황에서 제사들에게 다른 사람을 성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점검할 항목은 가족과 친구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님과 가족 및 친구들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부모님께서 대신 해주시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하지만 이 건 저의 아빠가 하셔야 해요.”라고 하거나 “절 위해 이 건 엄마가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바랄지도 모릅니다. 성공적인 가정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의 사랑과 도움을 기초로 합니다.

제가 열 일곱 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날 밤 데이트를 하려고 우리 가족이 함께 쓰고 있는 차를 세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셔서 제가 하는 일을 지켜 보시더니, 마치 제가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만큼 질 나무라셨습니다. 참다 못해 저는 “아빠,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이 일은 제가 열 살이 되어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모르세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보시면서 “야, 이번이 내가 아버지가 된 뒤로 처음으로 야단치는 것이란걸 모르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함께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앞으로 성취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으로 부모님이 완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동생들이 필요로 하면 언제라도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의 영웅입니다. 가정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을 수록,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 다른 곳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게 될 청남 청년들을 사귀십시오. 친구들이 선교사로 나갈 것을 결심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십대 시절에 의로운 일을 즐겨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6세 이상된 청남으로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여자 친구가 여러분이 처음 데리러 갔을 때처럼 집에 데리러 줄 때에도 훌륭하고 순결한 모습을 지키도록 해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을 위한 의자가 비어 있다. 그 의자 앞쪽에 벤슨 대관장님의 보좌인 고든 비 윙클리 부대관장(왼쪽)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앉아 있다.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벤슨 대관장님은 자택에서 대회 진행을 시청하셨다.

주십시오.

세번째로 점검할 항목은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무슨 뜻이냐고요? 계명을 어기는 행위는 여우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가 영국에 살고 있을 때, 아내와 저는 그 지역에, 심지어는 마을에까지 여우가 나타난다는 얘길 듣고, 여우를 보고 싶었습니다. 친절한 이웃분이 우리에게 말하길 여우에게 먹이를 주면 아마도 여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육점에 가서 뼈를 좀 얻어다가 매일 밤 뒷 마당에 뼈를 몇 개씩 던져 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우 한 마리가 와서는 뼈를 먹더니, 그 뒤 몇 마리가 더 왔습니다. 얼마를 더 지나자 이제는 최소한 다섯 마리나 되는 여우가 밤마다 화단을 넘어 앞을 다투어 들어와 잔디를 헤치고 사방을 어질러 놓았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그만 골칫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도 이와 흡사합니다. 한 번의 경솔한 행동이 인생을 그르치고 모든 것이 뒤엎기게 되는 과정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우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여우가 여러분의 마당을 파헤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얼핏 보기에 하찮고 해가 없을 듯한 실수라도 피한다면, 후에 여

러분의 삶은 더 큰 많은 문제를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하여 후회하게 될 일은 시작하지도 마십시오. 계명을 어기지 마십시오. 바른 삶을 살므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 행복한 추억을 만드십시오.

네번째로 점검할 항목은 교육입니다. 학창시절을 잘 활용하십시오. 경전에는 천하에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전도서 3:1~8 참조). 지금은 바로 여러분이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비행하고 있는 방향은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 착륙할 곳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즐겁거나 혹은 유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것은 대부분 도움이 됩니다. 학업에 흥미를 갖고 좀 더 열심히 하는 습관을 키우십시오(마태복음 5:41, 니파이삼서 12:41 참조). 이 습관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큰 일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영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자립된 삶을 준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받쳐

줄 기초를 쌓으십시오(마태복음 7:24-25 참조). 힘든 일을 성취하는 쾌감을 맛보십시오.

몇 년 전에 열심히 노력했던 청년들은 지금 생산적이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청년 시절에 몇 가지씩 일을 해서 선교 사업과 학업을 위해 그 일부를 저축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부모님이 마련해 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42:42, 60:13, 75:3, 88:124 참조).

다섯번째로 점검할 항목은 선교 사업입니다. 예비군단 소장 참모로 복무하는 동안 저는 그 저명한 군 지도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녹크, 자네는 자네가 물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아는가?” 저는 “물론이죠, 각하.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선교 사업 때문이야, 피녹크 군. 바로 그 선교 사업 때문에 그렇지. 자네 같은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권고받는다지? 그들은 선교 사업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욱 더 현명해지며, 더욱 더 자립심을 갖게 되는거야.”

예언자에게서는 청년 여러분에게 봉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의 봉사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기쁨을 얻고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로 선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해도 다른 방면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능숙한 조종사라 할지라도 성공적으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능숙한 지상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비행을 하는 데 부모님이나 감독님, 정원회 지도자 및 훌륭한 친구들이 모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점검표에 맞추어 생활한다면, 훌륭한 미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염려해 주며, 언제나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사악한 은사나 불결한 것은 손에 대지 않도록 하라”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명예 회원

우리는 사탄의 오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서는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성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정겨운 마음으로 사랑과 존경의 영을 갖고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선행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이 임무지명으로 인해 제가 염려하고 있는 바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면 이번이 이 단상에 서서 신권 소유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어떤 분들께는 편치 못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대의 베나민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저도 우리들 각자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마음을 열어” 깨달으십시오. “심령을 열어” 여러

분의 “의사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배우”십시오.(모사이아서 2:9 참조)

오늘 밤 우리 모두 영의 가르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로나이서 10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들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온갖 좋은 은사를 취하며 사악한 은사나 불결한 것은 손에 대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때때로 이 고대의 예언자가 언급한 불결한 것들 가운데 하나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주제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은 음흉하고도 천천히 인간의 사회적 표준을 비참한 파멸의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립니다. 잡지나 책, 콤팩트 디스크나 테이프,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에서는 소동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금가는 무절제한 생활 양식을 더욱 자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 및 인쇄물 등은 성행위, 나체, 저속한 행위 등의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무수한 성인과 소년들이 이러한 류의 소위 오락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커다란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강해서 그런 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위 오락물이라고 하는 쓰레기는 많은 화려한 모조 예복, 즉 흉내내는 데 뛰어난 자들이 가장 잘 만들어내는 부산물 가운데

데 하나를 걸쳐 입은 음란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많은 남자 성인과 소년들이 자신이 덮에 걸려 있거나 머지 않아 걸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는 비극의 일부입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중독되어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이것을 하루 동안의 혼란으로부터 휴식을 주는 일종의 오락물로 봅니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단지 그들이 깨어서 영성을 빼앗아 갈 뿐이며, 필요한 때에 하늘의 권세를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오락물에 맛을 들였을 때 오는 결과에 대해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경고해야 하며 그들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 인식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성인 남자나 소년 누구라도, 설명 정도가 가장 약한 형태일지라도 그러한 명백한 음란물을 보거나 읽거나 들었을 때에는, 분명히 사랑하는 하나님은 슬퍼하시게 되며 자신의 영도 끔찍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거실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든지 이러한 기록하지 못한 것들을 보거나 듣는다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게 되며 그러한 결과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생활함으로써 이 필멸의 생애 동안 행복을 누리는 보상은 극히 일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을 때, 당하는 참담함도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은 정말 길고도 긴 시간입니다.

형제 여러분, 부디 그러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등급에 상관없이 부정한 행위나 표현이 등장하는 영화나 비디오나 책이나 음악, 그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거실에서 그러한 것을 치워 없애십시오. 그러한 테이프나 책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십시오. 그러한 것은 마땅히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경고와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리니, 빛

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88 : 67)

저는 오늘날 이 성구를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매체를 보거나 듣게 되면 그것의 정도가 아무리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내부에서는 어두움이 커져 가기 때문에 빛이 자꾸 희미해져 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업, 교회, 학교, 가족, 개인, 어느 것에서는 삶의 역경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빛의 근원으로 가는 통로가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형상으로 혼란스러워져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극히 제한됩니다. 우리는 학교나 일터에서도 자신의 일을 잘 해 내지 못합니다. 더욱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실수를 범하고 따라서 불행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신은 훌륭한 기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치없는 것이든 아름다운 것이든 입력만 시키면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우리가 부도덕하고 음란한 것들을 보거나 듣게 되면,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우리의 정신은 그것을 기록하게 되며, 정신이 부도덕한 기록을 함에 따라 이름답고 깨끗한 생각들은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소망이 사라져 가고 더욱더 많은 혼란과 불만족이 우리 곁에 자리잡게 됩니다.

형제와 자매 및 부모들은 이전처럼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는 평화와 만족감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분쟁이 그 사악한 머리를 내리게 되며, 분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떠나 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꺼버리고, 그것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태워 버리고 지워 버리고 부숴 버리십시오. 저는 우리가 성인 영화나 부모를 동반했을 경우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입장이 가능한 영화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권고를 드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준이 등급 체계에 의해 평가되어서는 안됩니다. 부연하자면 이러한 유형의 영화나 음악이나 테이프 등은 그것이 실제로 나타내는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암흑

의 왕인 사탄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왜 사탄의 오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서는 깨끗하게 될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성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바로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사람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모든 아들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약의 아들들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전을 통해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모두 신권을 갖고 이곳에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임무는 작거나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몫의 노력을 하도록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희망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략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적은 분들은 부모님이나 감독님께 가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노소를 불문합니다. 과거의 행위를 끊고 우리가 이야기해 오고 있는 부도덕한 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13년 전 이 단상에서 드렸던 저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불순한 영이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진지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 밤 기도로 끝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죄를 혐오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앤서인, 1980년 11월호, 39쪽)

한편, 모든 기도가 반드시 바로 그날이나 바로 그 다음날 응답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단계를 적절히 수행한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단계를 밟지 않고서는 좌절감과 불행과 무력감과 절망감이 계속됩니다."(같은 책)

만일 시도해 보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계시면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해 보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노력할 경우 여러분의 노력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공략 계획의 두번째 단계는 매일마다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더 얻는 것입니다. 경전을 오랫동안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매일마다 해야 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는 오늘 밤부터 당장 경전을 읽기 시작하여, 하루 아니 잠시 동안이라도 경전을 읽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경전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영감이 약속되었습니다.(같은 책 참조)

경전을 통해 우리는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공략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고백의 과정을 통해 오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어떤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에 죄책감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회개의 과정의 일부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을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다면, 간곡히 당부드리건대, 내일이 되기 전에 감독님을 찾아 죄십시오."

구세주께서 이 사업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위대한 예언자였던 모로나이가 작별을 고하면서 했던 말씀을 제가 다시 들려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너희가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비하심이 너희에게 충만할 것이요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지 못하리다."(모로나이서 10:32)

주님에 대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영원의 시각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
철심인 정원회

시야를 넓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눈을 들어 여러분이 소유한 신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중과 봉사라는 말은 회복된 교회에서 흔히 쓰이는 말들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봉사를기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살기 위해 봉사하지 않는다." 신권 소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현명한 말씀입니다. 신권을 묘사하는 다른 말로는 "봉사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신권을 받은 모든 사람은 "봉사를기 위해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베드로전서 2:9)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리아 코즈는 열 일곱 살의 교회 회원으로 여덟 자녀 중 맏이였습니다. 마리아는 오염된 음식을 먹고 생기는 일종의 기생충 감염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 병은 시간이 지나면 뇌로 번져 심한 두통과 실명의 원인이 됩니다. 그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마리아를 솔로라에 있는 집에서 파테말라시로 옮길 수밖에 없었

습니다. 병이 악화되며 생기는 경련 때문에 그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으며, 생명 보조 장치로만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마리아가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역시 교회 회원인 열두 살의 에리카 알론조는 부분 실명의 상태에서 눈 수술을 받기 위해 온두라스에서 스물 두 시간을 여행하여 파테말라로 왔습니다. 에리카는 2주 동안 미국으로부터 눈에 이식할 각막을 기증받기를 기다렸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숨졌습니다. 마리아가 죽은 것은 뇌압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각막은 건강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님은 각막 기증을 허락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993년 7월 12일에 에리카는 처음으로 코즈 가족을 만나기 위해 솔로라로 여행했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볼 수 있니?"하고 묻자 에리카는 "모든게 뚜렷하게 보여요."하고 대답했습니다. 영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객치크어를 사용하는 코즈 자매는 스페인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대화 중에 사랑과 영을 느꼈습니다. 딸의 눈을 기증하여 이제는 에리카가 주위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과 그 부모의 사랑이 또 한 생명에게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의학이라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말씀드리,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남 여러분은 충실하신 부모님과 교사, 감독, 사도 및 예언자들의 눈을 통해 이 세상과 영원을 통해 받게 되는 축복을 깊이 생각해 보면, 매일 조금씩 시간을 드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에 관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아를 넓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눈을 들어 여러분이 소유한 신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열정과 욕망과 욕구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회복의 진리를 전파할 영광스러운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준비하십시오. 그 진리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늘의 사자들에게 의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성약과 의식을 회복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이 독특하였다는 개인적인 확신에 불타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히 선택받은 필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셨으며, 그로 인해 인류의 중재자요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뱀을 때리고 채찍질을 하고 모욕했지만 “그 입을 열지 마라”(이사야 53:7)셨습니다.

예수님은 젊고 건강하시며 무한한 지혜를 지니셨던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33세가 되면 그분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나,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영광과 영생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속죄하심으로 온 인류가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며, 내가 행하는 바를 너희가 본 대로 너희도 행하라”(니파이서서 31:12)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2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4:5 참조).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을 고양시키시고 성품을 형성해 주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과 영원토록 기쁘고 의롭게 살게 해주는 원리를 심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학업과 안락한 생활 등 많은 것을 희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 생활이 너무 엄격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봉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받은 축복에 비해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간



증할 것입니다.

신앙에 관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자인 헤르멜린도 코이 장로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난생 처음으로 과테말라 세나후에 있는 그의 작은 고향 마을을 떠나, 1991년 3월 14일에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코이 장로는 회원이 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두려웠지만, 봉사하겠다는 결의만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학교 교육을 국민학교 5년 과정도 채 못받았으며, 그것도 그곳 원주민어인 켈치크어로 배웠기 때문에, 과테말라의 공식 언어인 스페인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선교 사업 동안 그는 다리에 통증이 생겼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992년 8월에 코이 장로는 통증이 심해짐에 따라 무릎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골수암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좀더 정밀히 검사한 결과 간과 폐와 임파선 조직에도 암세포가 번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병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으며,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통역자의 도움으로 그가 잘 알고 있는 농촌 생활을 예로 들어 가며 설명한 결과, 코이 장로는 자신이 얼마

안 가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이 장로는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생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퍼하지도,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에 순응했습니다. 집으로 가고 싶냐는 질문을 받자, 코이 장로는 선교부에 남아서 죽는 날까지 가능한 한 오래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해 10월에는 걷기가 힘들어 지팡이를 사용해야 했으며, 하루에 몇 시간 밖에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12월에는 그나마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전도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해 실망했습니다. 그의 걱정은 자신이 죽으면 누가 어머니를 돌보아 드리나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한번은 선교부장이 코이 장로를 방문해서 그에게 선교부 간호원과 함께 24시간 간호하고 있던 그의 어머니에게 교회의 기본 교리를 더 가르치라고 부탁했습니다. 모국어로 어머니에게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코이 장로의 얼굴은 확신과 빛으로 밝아져 있었습니다. 코이 장로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권세와 확신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힘이 약해져 갈수록 그는 주님께 더욱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한번은 통증이 심해지자, 코이 장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는 제가 죽는 날과 시간이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의 새로운 임무를 빨리 알고 싶습니다.” 코이 장로는 1993년 2월에 숨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선교사와 지도자와 회원들과 심지어는 끝까지 인내하고 봉사했던 그의 용기를 알고 있는 비회원들에게까지도 축복이었습니다. 코이 장로의 신앙은 매우 단순해서 다른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을 강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코이 장로처럼 신앙으로 봉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지도자들의 눈을 통해 볼 때에, 간증이 강화되고 시야가 더욱 넓어져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에게 광명을 주고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빛과 희망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사만 구천 명의 선교사들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이 사업이 거룩하다는 것을 간증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스카우트상 수상

래클리프 씨:

국제 스카우트 위원회가 수여하는 브론즈 울프상을 토마스 몬슨 부대관장께 전하는 자리를 빌어 이렇게 연차 대회에 참석할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몬슨 부대관장님은 미국 보이 스카우트 연맹의 가장 훌륭한 친구 가운데 한 분이며, 전국 집행 위원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재임하신 분으로 1969년에 선출된 이후로 열심히 봉사해 오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보이 스카우트 연맹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청소년들의 발전을 위해 전례없는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말일성도 교회와 미국 보이 스카우트 연맹의 이러한 긴밀한 협조 관계는 저에게도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조직과 또한 그들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 관계는 더욱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조직은 종교적인 원리에 대한 결심과 또한 가족에 대한 전통적이고 강한 가치관을 믿고 있습니다.

미국 보이 스카우트 연맹의 지도자들은 종교적 원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때, 정신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며, 또한 그 가운데 더욱 잘 준비하여 이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스카우트 활동은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습니다. 훌륭한 스카우트로 많은 후원을 해주셨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 종종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스카우트 조직과 이 교회는 함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확산되고 커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미국 보이 스카우트 연맹이 우리 두 조직이 상호 공유하고 있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 충실할 수 있도록 몬슨 부대관장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훌륭한 스카우트이며, 교회의 가르침과 미국 보이 스카우트 연맹의 사명 끝 일생 동안 계속될 가치관을 가르치는 사명을 격려하고 실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헌신하여 오셨습니다.

몬슨 부대관장님, 우리 모든 스카우트 동료들을 대신하여 축하를 드리며 또한 부대관장님과 사랑스러운 아내 프란시스 두 분에게 행복과 성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의 말씀이 끝난 후 세계 보이 스카우트 연맹에서 온 집행위원들이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에게 브론즈 울프상을 수여하기 전에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이 그들을 소개하였다.

오늘 저녁 수석 집행 위원이신 제리 비 래클리프 씨와 전임 세계 보이 스카우트 위원회 총재이시며 현재 미국 보이 스카우트 연맹

전국 집행 위원이며 국제 위원이신 유진 에프 레이드 씨, 그리고 스카우트 수석 집행 위원 보조이신 시 마이클 후버 씨를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께 특별한 상을 수여하기 위해 오신 래클리프 씨와 레이드 씨 두 분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또한 저에게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수여가 끝난 후 몬슨 부대관장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래클리프 씨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레이드 씨:

세계 보이 스카우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께 이 브론즈 울프상을 수여하게 된 것을 영광이자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은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가 주는 유일한 상입니다. 몬슨 부대관장님,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브론즈 울프상을 수여하며 감사장을 읽겠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미국,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미국 보이 스카우트 연맹, 전국 집행 위원회 위원”

“귀하는 평생을 스카우트 운동에 활동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또한 청소년 시절에 스카우트로서 라이프 스카우트장을 역임하였으며 탐험대 대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귀하는 많은 곳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로상 배지 자문과 캐나다 말일성도 스카우트 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캐나다 켈보리에서는 종교 고문으로 봉사하였습니다. 또한 귀하는 교회 본부의 스카우트 위원회 위원으로 10년을 봉사하였으며, 지난 수년간 지역 사회의 궁핍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조달하는 스카우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1969년 귀하는 미국 보이 스카우트 전국 집행 위원회 위원이 되어 국제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였으며, 실버 버팔로상을 수상하고 한편으로 미국 보이 스카우트를 대표하여 동경과 나이로비 및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계 곳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귀하는 많은 나라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한편으로 귀하는 교회와 미국 스카우트 조직 사이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스카우트 기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일해 왔습니다. 귀하는 스카우트 활동에서 항상 결단력이 있었으며 한결같았고, 또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활동에서 보여 준 지도력은 타인의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제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의 목에 브론즈 울프상을 걸어 드리겠습니다.”

위로 향한 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아론 신권은 성인 시절과 멜기세덱 신권의 더욱 막중한 책임을 위해 준비시키며, 소년단 활동은 우리 소년들이 승명으로 향하는 신권의 길을 똑바로 걷게 해줍니다.



단 활동의 영향력을 전세계의 청소년들에게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세계의 교회 회원들에게 하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의 영감받은 다음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소년들이 가정과 교회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소년단이 표방하는 시민 정신의 자질과 품성 및 건강한 육신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하는 소년단 운동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지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년들을 위한 이 위대한 운동과 이 운동의 중심점이 되는 서약 및 강령에 대해 강하고 확고한 지지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열 네 살 때 저희 대대가 소년단 야외 활동으로 빅 카튼우드 캐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캠프를 설치한 뒤, 저희 지도자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너 낚시 좋아하지? 내게 까만 각다귀와 흰 나방 모양의 인공 미끼를 주마. 이제부터 너는 사흘 동안 우리 대대가 먹을 고기를 잡는거다. 토요일에 너희를 데리러 오마.” 하고 말하고 나서 캠프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 단지 제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한다면 대원들이 먹을 만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 서야 소년단장이 대원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제게 배움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나 보이즈 라이프지의 표지에 실리는 노만 룩웰의 그림은 늘 제게 포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랑하는 친구이자 소년단 지도자로 계시는 제리 클리프 씨, 버드 레이드 씨, 그리고 마이크 후버 씨, 세 분께서 오늘 밤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브론즈 울프 상을 받게 되어 황송한 마음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예를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저의 선배이신 벤슨 대관장님과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의 뒤를 이어 지난 23년 동안 전국 집행 이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교회와 지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는 뜻도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회 의 국제 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나라를 여행하면서 여러 언어와 종족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삶에 소년단 활동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소년단 프로그램을 잘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소년단 운동 조직의 잭키 모레일론 총장의 도움으로 우리는 소년



점의 그림 가운데 하나는 소년단장이 꺼져 가는 모닥불 옆에 앉아 각자 조그만 텐트 속에서 깊이 잠든 소년들을 지켜보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하고, 소년들의 형클어진 머리칼이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입니다. 소년 단장의 얼굴에는 사랑과 신앙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다음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의 삶의 일부를 아이에게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다.”

또 다른 그림은 형의 커다란 소년단복을 입은 조그만 소년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소년은 벽에 걸린 거울속에 비치는 소년단 경례를 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소년단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일부 비뚤어진 어른들이 소년단 활동과 같은 위대한 운동을 폐지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저는 하나님과 조국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고 소년단 강령을 소중히 하는 이 조직을 기꺼이 지지합니다. 이 조직의 모토는 “준비 한다”이며, 슬로건은 “매일 선행한다”입니다.

아론 신권은 성인의 책임과 멜기세덱 신권의 더욱 막중한 책임을 위해 준비시키며, 소년단 활동은 우리 소년들이 승영으로 향하는 신권의 길을 똑바로 걷게 해줍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가장 중요

한 결정을 요하는 굴곡과 우회 도로가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감을 받아 정확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은 살아가는 동안 미래에 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현명한 평가를 내릴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결정이 곧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많은 신권 소유자 가운데는 청소년 시절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경험과 신앙은 그들에게서 인도와 안전을 바라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필요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을 구원하는 특권인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가정과 가족을 경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개인 및 가족 기도의 보호 장벽이 무너지고, “나 혼자 할 수 있어요.”라고 하거나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등의 태도가 매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지켜왔던 예절과 질서에 저항하는 일이 자주 생기며, 대중 심리의 유혹이 압도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찬 신앙인의 앞으로 나서서 주저하는 소년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실패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파

그는 햇살을 받으며 혼자 교차로에 서 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은 동서로 갈라져 있고 젊은이는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리막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경주에 패하여 승자의 왕관도 잃었습니다. 젊은이는 격노의 땀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그 교차로에 서서 그에게 바른 길을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어느 날 같은 자리에 큰 소망을 지닌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년도 경주를 위해 서서 바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아는 사람이 있어 소년에게 갈 길을 알려 주었습니다. 소년은 내리막 길에서 돌아서서 경주에 승리해 승자의 왕관을 얻었습니다. 소년은 누군가 교차로에서 바른 길을 알려 줬기 때문에 오늘은 평탄한 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만 고양시켜 줄 힘과 인도하는 지혜와 구원의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많은 청년 여러분은 집사 정원회 회장단이나 교사 정원회 회장단에서 봉사하거나 기타 제사 정원회를 관리하는 감독을 돕는 지도자로서의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관리하는 분들을 존경하며 부름을 충실히 수행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사 이래로 나 이 어린 자녀들을 신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 앞에서 주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소년 사무엘의 모습은 그 또래 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다가 그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연로한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착각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것이 주님이었다고 말해 주자

사무엘은 엘리의 지시대로 주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시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나이다”하고 대답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³ 재셨습니다.

1805년 버몬트주 윈저 카운티 왜론에서 태어난 소년, 곧 이 경륜의 시대의 첫번째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의 기도가 미친 그 엄청난 결과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인도가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승영으로 이끌려는 목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라한 구유에 한 갓난 아기가 눕임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였던 그 밤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탄생하심으로써 무기보다 더 강한 권세와 가이사의 돈보다 더 오래가는 부가 주어졌습니다. 것처럼 초라한 환경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이시며 약속된 메시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요셉과 그의 어머니]가 보고 놀라 [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⁴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니]...이는 하나님이 함께”⁵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갖게 되는 큰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깨달아 합당한 표준대로 생활하며, 자신에게 정직하고 항상 참된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기로 결심하면 비할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의력을 그러한 목표에 맞추는 데 다음 네 가지 지침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어느 현명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네가 있어서는 안될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곳에서 나오너!”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친구처럼 되기 쉬우며, 그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도 함께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해야 할 말을 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과 말투는 흔히 인격을 반영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는 유혹을 받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했지만, 곁에 섰던 사람은 그의 진짜 신분을 알아채고,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의 느낌과 성품과 간증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셋째, 해야 할 일을 한다.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주인공 피에르는 영적인 비통함에 싸여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왜 나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그릇된 행동을 합니까?” 피에르에게는 새로운 사고방식, 결심, 다시 말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의히 알고 있는 격언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말에 “오늘 해서는 안되는 일은 내일로 미루라”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 같은 상황에 대해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이 잘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날 그렇게 만든 거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때에만 올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되어야 한 사람이 된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친구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분이 되[라]”⁶ 베드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도”라고 질문한 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하고 말했습니다.⁷ 베드로의 생애가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해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⁸

저는 가끔 청년들로부터 “몬슨 형제님, 제가 인생을 더욱 더 완전하게 살기도 제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기억을 더듬다가 저는 몇 해 전에 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친구 몇몇이 말을 타고 들길을 달리다가 곳곳에 작고 깨끗한 개울이 흐르고 파릇파릇한 잔디가 무성한 초원에 다다랐습니다. 사슴에게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으나, 그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겁많은 사슴은 주위 덩불에서 미세한 움직임만 있어도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사슴은 작은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놓치지 않았으며, 사람 냄새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사슴은 모든



방면에서 식별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오직 한 방향, 즉 그의 머리 위에는 약합니다. 사냥꾼들은 사슴이 잘 다니는 지점에 있는 큰 나무 위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가, 사슴이 풀을 뜯거나 물을 마시러 올 때를 기다렸다가 사냥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사냥꾼들이 나무 위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가지도 부러지지 않고 움직임도 없으며 냄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뛰어난 감각이 있어서 압박한 위험을 알려 주는 커다란 수사슴도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적은 알아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안전은 “하나님을 바라보아 살”¹⁰에 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느 시인은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당신의 원대한 사업의 으뜸은
당신의 은 계획의 으뜸은
사람의 가슴 속에
발전의 의지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린 소년에 관한 감동 어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유년대에 속해 있었던 이 소년은 소년단을 매우 좋아 했으며, 이로 인해 소년이 숨졌을 때 이 소년을 알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에게는 생전에 좋아했던 소년단에서 받은 기장을 단 단복이 입혀졌습니다.

1992년 10월, 아홉 살의 제이렛 바니는 뇌암으로 숨졌습니다. 제이렛은 그 짧은 생애 동안 여러 차례의 수술과 방사선 요법과 화학 요법을 견뎌냈습니다.

소년은 1992년 8월 9일에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한달 만에 했던 검사에서 여섯 개의 새로운 종양이 발견됐으며, 그 중 두 개는 이미 매우 커져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화학 요법으로 인해 소년의 몸은 몹시 약해졌으며, 수술도 매우 힘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항상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주님은 소년을 축복하고 지탱해 주셨습니다.

제이렛에게는 다른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이렛은 자신의 느낌이나 병에 걸린 것에 관해서나 혹은 힘든 치료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지 인사하면, 소년은 자신의 기분에 상관없이 항상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년은 매력적인 미소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눈에 있었습니다.

제이렛의 어머니인 올리비아가 아들의 마지막 날에 관해 적은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린 아들을 위한 우리의 많은 기도가 응답되었다. 우리는 제이렛이 끝까지 견고 말하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그런 다음 아이를 빨리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했다. 제이렛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이렛은 삶을 매우 소중히 여겼으며, 우리는 그 아이가 마지막 날까지 삶을 완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했다. “제이렛은 죽기 3주 전에 유년단 상을 받았다. 그 아이가 받은 상으로는 품뱃지와 신앙상과 금 화살촉 하나와 은 화살촉 두 개이다. 우리는 제이렛이 그 상을 받기 위해 삶을 연장했다고 믿고 있다. 당시 제이렛의 건강은 급격히 약

화되고 있었으며, 1992년 10월 14일에 열린 유년대 모임에 참석하여 상을 받기 전까지는 잠조차 자지 않으려고 했다. 유년대 모임에서 제이렛은 세 차례나 손을 들었으며,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상을 받기 위해 매우 오래 기다려 왔으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집에 돌아온 뒤 아이는 내게 뱃지를 달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었다. 그러자 제이렛은 몹시 피곤해서 꼭 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한 뒤 잠자리에 들어, 밤새도록 한 번도 깨지 않았다. 그 때부터 숨질 때까지 제이렛은 대부분 잠을 잤다.

“아이를 매장할 때 우리는 오늘을 위해 오래 전에 마련해 둔, 기장을 꿰매고 핀으로 꿸 유년단 옷을 입혔다. 아이는 아름다운 장례식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제이렛의 용기와 신앙에 대한 모범으로 동네에 친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영감받은 프로그램이 어린 소년과 그의 가족들의 삶에 미친 영향력을 보여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 아버지나 지도자들과 함께 모이신 모든 아픈 신권 소유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소년단을 포함한 교회의 신권 프로그램과 그에 따르는 활동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도움이 되면 되지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여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은사, 곧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참고 문헌

1. 스펜서 더블류 킴볼, *앤서인*, 1977년 5월호, 36쪽.
2. *센트럴 크리스찬 모니터*.
3. 사무엘상 3:4, 10, 19.
4. 누가복음 2:46~48, 52.
5. 사도행전 10:38.
6. 마태복음 26:73.
7. 디모데전서 4:12.
8. 베드로후서 3:11.
9. 니파이삼서 27:27.
10. 엘마서 37:47.
11. 해리 캠프, “조물주이신 하나님”, *세계의 위대한 종교서 선집*, 캐롤라인 마일즈 힐 편집(뉴욕: 맥밀란 출판사, 1954) 211쪽.

나의 간증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제가 받은 은사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이 기록한 사업이 참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몬슨 부대관장님께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학자들은 이 세상의 늑대가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곤 합니다.(주: 몬슨 부대관장이 받은 상 이름이 브론즈 울프[Bronze Wolf]로서 울프[Wolf]의 뜻이 늑대이기 때문에 하신 가벼운 말씀) 이 상은 교회가 지난 80여년 동안 소년단 활동을 충실히 후원해 옴으로써 수많은 소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축복을 주었던 것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모임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는 동안 성신이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청년이었을 때, 이곳 태버나클에서 열린 연차 대회에 참석하여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이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그분이 갖고 계신 간증에 대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말씀을 하실 당시의 그 분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이 어떤 느낌을 갖고 계셨던가를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무엇보다도 이 기록한 사업이 참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소중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에 한번, 집사로 처음 성임받은 열두 살 때의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스테이크 신권 모임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스테이크 부장단의 일원이셨기 때문에 단상에 앉으셨고, 저는 예배당 뒷줄에 앉았습니다. 그 많은 남자 회중이 일어나 다음과 같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예수 기름부어 예언자 삼고
말일의 경륜을 시작케 하니
못왕과 은백성 경배하라
(찬송가, 18장)

저는 그분들이 힘차게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소년 요셉을 부르셨다는 간증을 마음 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님께서 그 간증을 유지시켜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지식이 영의 권세를 통해 오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비평가들의 글에도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서 행복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서 오랫동안 명성을 날리던 조지 산타야나 교수의 글을 좋아합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총명한 것만을

택하지 마소

마음의 영의 일들을 무시하고서

총명하다는 것만으로 지혜는 아니니

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지혜라오

(찰즈 엘 윌리스 편, 보물 상자, 뉴욕: 하퍼앤로, 1965년, 93쪽)

첫번째 시험이 참되다는 간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년 요셉이 무릎을 꿇었던 그 숲에 서서 첫번째 시험이 있었다고 한 그의 말대로 첫번째 시험이 일어났다는 영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저는 1820년부터 지금까지 그 이야기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해 온 비평가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첫번째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1838년까지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몇 차례 각색되었다는 사실을 열거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것입니까? 평범한 서술과 논증법의 부족과 명확한 합리성과 그가 자신의 피로 자신의 간증을 봉했다는 사실을 통해 저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이보다 더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고대에 야고보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록한 것이 이상합니까?(야고보서 1:5 참조)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는다면 이상한 일입니까? 저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영광스럽게도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타나셨으며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게 했던 장막이 권히고 새롭고 약속된 마지막 복음의 경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이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개화의 시대가 세상에 새벽을 열어 주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몸소 형상과 권세와 살아계시는 실체를 보여 주기 위해 나타나셨으며, 그렇게 하여 창조주의 참된 속성을 영원히 밝히신 때가 아닙니까?

저는 성경과 함께 훌륭한 경전인 물몬경에 대해 간증을 갖게 해주신 것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믿음이 없는 비평가들이 요셉 스미스가 예단 스미스의 허브리인에 관한 고찰과 솔로몬 스펀딩의 글에서 얻은 생각들을 책으로 썼다는 옛날의 근거 없는 주장을 아직도 되풀이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상합니다. 이러한 책들과 물몬경을 비교한다는 것은 사람을 말에

다 비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이 나 딸이나 걷는다는 점에서 똑같지만, 그 외의 유사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 책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몇번이고 읽었으며 그 책이 가진 아름다움과 깊이와 권세를 맛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요셉 스미스는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시골인 뉴욕에서 대부분을 살았던 젊은이였는데, 그토록 짧은 기간 동안에 책의 속성상 매우 복잡하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균형이 맞으며 등장 인물도 너무나 많고 그 범위 또는 너무나 광범위한 책을 써 낼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그 언어와 사상과, 지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서 "정말 참된 책이야."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감동적인 영감을 만들어 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영문학 작품을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고대 문학에서 현대문학까지 전 범위에 걸쳐 아름다움과 풍부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천재적인 남녀 작가들의 글을 통해 정신적으로 많이 고양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이 작품들 어디에서도 펜실베니아주 하모니와 뉴욕주 페이엠티라는 시골 마을에서 번역되고 팔마이라의 그린던 인쇄소에서 인쇄된 이 책에서 예언자들이 쓴 글을 읽고 얻었던 장엄하고 영원한 것들에 대한 지식과 영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의 훌륭한 말씀을 포함해 모로나이가 한 마지막 간증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이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말이 거짓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속히 이르며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볼 것임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자로 기록하게 한 나의 말을 사람이 무덤에서 부르짖으며 티끌 중에서 부르짖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선포하여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기록한 것들의 참된 것임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모로나이서 10 : 27, 29)

형제 여러분, 저는 모로나이의 기록이 참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를 만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는 이것을 알고 있으며 성신의 권세로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

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교리와 성약 1:20) 할 수 있도록 성신권을 회복시켜 주신 영원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훌륭한 교회를 관리하는 그 신권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아 왔습니다. 저는 저를 통해 그 권세가 축복과 병자의 병고침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크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겸손한 사람들이 그 신권을 통해 고상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말씀할 때 그 신권을 보았습니다.

저는 복음의 온전함과 그 넓이와 범위와 깊이에 대해 간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생사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저는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주님께서 이루신 속죄에 대해 충분히 감사를 드릴 길이 없습니다. 완전한 삶의 절정기에 맞은 그분의 회생-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그 회생을 통해 죽음의 사슬이 끊겼으며 만인의 부활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이점을 넘어, 해의 영광의 문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어느 문학 작품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에 관해 계시해 주고 있는 다음 말씀보다 더욱 확실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었으므로, 간증하노니, 이는 의로운 자의 부활에 나아올 자에 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간증이니라.

"의로운 자의 부활에 나아올 자는 예수에 대한 간증을 받아 들어 그의 이름을 믿고, 그가 매장된 방법대로...침례받은 자들이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저들의 손에 맡기신 자니라.

"저들은 제사와 왕이요 그의 충만하심과 영광을 받은 자요,

"저들의 몸은 해의 영광에 속하며 저들의 영광은 태양의 광채와 같으니,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것중에 가장 높은 것이니, 하늘의 해가 그 영광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76:50~51, 55~56, 70)

저는 이 말씀이 인간 요셉 스미스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귀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속죄를 당하심으로써 가능케 된 약속된 축

복, 즉 영광스러운 기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해의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오기에 합당하게 되라고 권고하시는 세상의 구속주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저는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해 간증을 갖게 해주신 구속주께 감사드립니다. 또 성전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대한 대리 의식의 합당성에 관해 간증을 갖게 해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 구속의 축복된 영향이 아버지의 자녀 모두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록한 계획의 경이로움과 장엄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의 선교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증을 갖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4만 9천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구원의 훌륭한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전세계 우리 백성들의 마음과 가정에 이 선교 사업의 영이 머물러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이 아들이나 딸을 선교 지역으로 보내는 회생 보다 더 큰 회생은 없습니다. 언젠가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한 젊은이에게 부름을 주었을 때 답신으로 받은 편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께,

"그레고리는 부름장이 도착하기 이틀 전에 사고로 숨졌습니다. 저희는 그레그의 재능과 능력과 간증이 다른 쪽의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6월 19일 토요일에 숨졌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의 선교 사업을 위해 저축한 돈을 가능하다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국제 선교사 기금으로 동봉해 드립니다. 저희는 그 돈이 가난하여 정상적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곳 성도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돈[선교 기금]은 주님의 사업에 바치기로 했던 것이므로 그레그도 이 돈이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저희는 그레그가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일말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업이 온세상에 끊임없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서명,

“그레그의 어머니”

봉투 안에는 그 편지와 함께 약 9천 달러에 해당하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복음의 작은 율법들이라고 부르는 몇 가지에 관해 간증을 갖게 된 것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십일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위대하지만 단순한 원리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 건물을 세우게 했다는 사실에 경탄합니다. 십일조를 내는 사람들은 법적인 구속력 때문에 십일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회원 자격 정지나 파문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습만, 아니 수백만명의 백성들은 충실하고 정직하게, 자의에 의하여 십일조를 바칩니다. 각자 이 사업이 참되고 율법이 거룩하다는 확신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십일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헌신적인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놀라움과 함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들이 바치는 십일조가 거룩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거룩한 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지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이루는 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또 저는 이 위대한 원리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원리에 관하여 주님께 순종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성취된 약속입니다. 저는 천국의 창문이 백성들에게 열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과 건전함과 감사하는 태도와 긍정적인 자세를 봅니다. 저는 그들에게 내미시는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보며, 이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저는 지혜의 말씀에 대한 간증을 갖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더욱 완전히 지키며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배꼽에 건강을 얻고 뼈에 골수를 얻으며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어져 있는 보화까지 찾게 되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않으며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인 우리를 지나치며 살해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고리와 성약 89:18~21 참조) 저로서는 물리적인 속성을 가진 약속보다 거룩하고 영원한 것들에 관한 지식의 감추어진 보화에 관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 기이하기만 합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지도자로의 거룩한 부름에 관해 간증을 갖고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벤슨 대관장님이 비록 건강이 대단히 좋지 않으시지만, 저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높고 거룩한 지분에 부름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지지하며 그분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받들니다. 저는 그분을 충실하게 섬기고 그분의 보좌로서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현재 대관장님 외의 어떤 다른 살아계신 분보다 더 오랫동안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살아계신 다른 어떤 분보다 오랫동안 교회 관리 직분에서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60년 동안 개인적으로 대관장단, 12사도 정의회, 칠십인 제일 평의회, 더욱 최근에 생긴 칠십인 제일, 제이 정의회 및 관리 감독단에서 봉사하신 분들 모두를 보았으며 또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필멸의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약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많은 분들 가운데 두세 분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상의

어느 곳, 어떤 근거에서든지 이분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을 없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이러한 명예를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헌신과 사랑의 영을 갖고 봉사합니다. 그분들은 기도하고 신앙을 가진 분들이며 신권을 갖고 있고 거룩한 권능을 겸손하게 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유일한 목표는 왕국을 세우고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느 지역, 어느 스테이크, 어느 와드, 어느 선교부, 어느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형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충실함과 헌신과 성실함과 기도와 신앙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역시 제 간증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교회의 본부와 지역 단위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많은 충실하고 능력있는 여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성들은 큰 능력과 신앙을 가진 분들로서 이분들이 없다면 이 사업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께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신성함과 그것이 주신 생명의 은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만민에게 최고의 은사, 즉 영생의 은사를 주신 구속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원하신 아버지와 구속주는 제가 경배하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구속주를 통해 영원하신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속주,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들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자녀를 빛과 의로움 안에서 키우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만일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자녀들이 어리고 말을 잘듣는 때에, 그리고 아이들이 귀기울여 듣고 배울 때 아이들과 함께 노력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 곳을 비롯하여 전세계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저의 사랑과 감사로 전해 드립니다. 저는 또 여러분의 굳건한 신앙과 기도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격려와 신뢰가 담긴 편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형제님께서 아내와 결혼한 딸과 함께 저의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방문 목적을 마치고 돌아갈 즈음, 그 부인께서 제게 그분의 열 세살난 딸, 크리스탈이 보낸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 오셨습니다. 그 자매님께서서는 포장 을 풀고 꽃나무 주위를 맴돌고 있는 나

비 두 마리가 그려진 그림 하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자신의 딸이 네 살 적에 커다란 차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 아이의 몸은 중상을 입어 성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깨 아래의 신체가 손상을 입어 팔과 다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탈은 붓을 이 사이에 문 채로 머리를 움직여 가며 이 그림을 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저의 눈에 그 그림이 더욱 소중하고 또 아름답게 비쳐졌습니다. 그것은 나비를 그린 풍경화 이상의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역경에 직면해서도 꽃을 피운 훌륭한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붓을 이로 물고 머리를 움직여야 하는 피나는 연습과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부모들의 보살핌을 받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 어우러져 그러한 심한 신체 장애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이 훌륭한 걸작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그림이 지닌 배경을 모른다면, 그 말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까? 혹시 예술 작품을 볼 때 오는 영감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제가 영적으로 명상을 하는 시간에 손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로 붓을 물어 움직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소녀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

릴 수 있도록 이 그림을 제 서재에 걸어 놓을 작정입니다. 저에게 훌륭한 그림을 보내 주신 귀여운 소녀 크리스탈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크리스탈의 이야기가 좌절에 빠져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가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의 생각이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벤슨 대관장님의 연세가 아흔 다섯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예언자라는 성스러운 직분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며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성한 원리를 토대로 하여 세워졌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예언자들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 이름에 그분의 이름이 담겨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몇몇 사람들이 이 교회를 잘못 인도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교회 앞뒤에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언성을 높이고 언론 매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수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비판이 하나도 없다면, 도리어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늘의 뜻이 종종 세상의 방법과 달랐던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막대한 국가 재정 적자의 수렁에 빠져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의미에서 볼 때 더욱 심각한 적자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성의 결핍, 곧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가치관이 타락하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기반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계적으로 보도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대관장단



로버트 B. 셸러트 부대관장



로버트 M. 벤틀리 집행 디렉터



토마스 E. 문슨 부대관장

십이사도 정위원회



하워드 D. 벨러미 디렉터



로버트 C. 파커



마빈 C. 메이어



존 W. 모란



데이비드 B. 헤이트



레이먼드 E. 파푸스



노먼 E. 로스



로버트 W. 리얼



머릴 A. 로스



토머스 R. 랜달



조셉 B. 위셀



리처드 J. 스프록

칠십인 회장단



제임스 D. 파파스



윌리엄 E. 애덤스



제임스 D. 애덤스



토머스 H. 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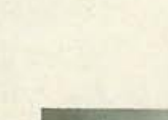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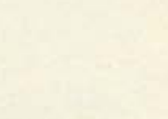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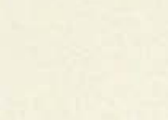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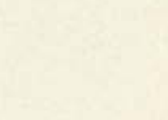









조셉 C. 크라스



마빈 C. 배런



레이먼드 E. 파파스

| | | | | | | | |
|---|--|--|--|--|--|--|--|
|  |  |  |  |  |  |  |  |
| 리노 윌버타드 | 블룸 피크리엔 | 한 진상 | 로버트 피조지 | 리처드 파킨지 | 스틴비트 디나이 | 소리아노 에이타노리안 | 다블뤼 에이울지 |
|  |  |  |  |  |  |  |  |
| 델라스 존 아치볼드 | 리크윈드 윌 카터 | 제이 이젠 | 윌리엄 에스. 필슨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  |  |  |  |  |  |  |  |
| 앤드류 로 이베라 | 클라임 윌 케틀러 | 크리얼 코포드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  |  |  |  |  |  |  |  |
| 마릴 제이 베이트먼 | 올리비아 디제라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  |  |  |  |  |  |  |  |
| 시머스 콜드웰 | 존 비 대순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  |  |  |  |  |  |  |  |
| 제리 제이 코페먼 | 존 이 파델라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  |  |  |  |  |  |  |  |
| 제리 웨이 코페먼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관리 감독단

| | | |
|--|---|---|
|  |  |  |
| 제이노장 | 리처드 시 에틀리 | 제이노장 |
|  |  |  |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 | | | | | | | |
|--|---|---|---|---|---|---|---|
|  |  |  |  |  |  |  |  |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  |  |  |  |  |  |  |  |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  |  |  |  |  |  |  |  |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  |  |  |  |  |  |  |  |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  |  |  |  |  |  |  |  |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  |  |  |  |  |  |  |  |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  |  |  |  |  |  |  |  |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앤디 오. 마틴스 |

| |
|---|
|  |
| 앤디 오. 마틴스 |



“1960년 이래로 미국의 인구는 41%가 증가하였으며, 국민 총생산은 세 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각급 정부 단체가 지출한 사회 부문 비용이 다섯 배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에... 폭력 범죄가 560%나, 그리고 불법 출생이 419%나 증가하였다. 또한 이혼율이 4배로 증가하였으며, 부모 가운데 한 쪽이 없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의 비율이 세 배가 늘었고, 10대 청소년의 자살율이 200% 이상 증가하였다.”(윌리엄 제이 베네트, ‘미국의 타락에 대한 통계’, *월스트리트 저널*, 1993년 3월 15일자)

그 기사의 말미에는 소설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썩어 들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높은 도덕적 및 윤리적 이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의 영적인 축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인 타락을 심각하기 위해 꼭 이러한 통계를 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쉽게 깨어지고 신에 대한 부정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며, 그리고 불량 청소년의 증가 및 약물 남용의 증가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유행병처럼 퍼지며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가는 것을 볼 때, 이러한 도덕적 타락을 명백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적 및 공적 구조물이 낙서로 더럽혀진 것에서 또한 그러한 타락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낙서는 아름다움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모욕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한 끝없는 성의 표현과 폭력, 쓰레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수많은 영화들, 많은 현대 문학 작품에 나타난 과장된 선정주의, 성교육의 강조, 그리고 법과 질서의 광범위한 침해 등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타락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쇠퇴 현상을 변화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한 마디로 우리 사회가 지닌 가치관의 타락에서 오는 추한 현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더욱 많은 법적인 규제와 경찰력 증강에 따른 예산 증액, 더욱 많은 감옥과 보호소를 짓기 위한 세금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조치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참혹하고 커다란 상처에 일회용 반창고를 붙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열매를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지언정 뿌리까지 그 손길이 미치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는 가운데 우리는 학교에서 꼭 행해져야만 하는 한 가지 보다 위대한 일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자들은 이미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는 자신들의 책임을 거의 포기하여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와 그 밖의 다른 교회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주교의 교황께서 덴버에서 도덕적인 함정에 관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저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례 교회가 순결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한 것을 알고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많은 일을 행하고 있으며, 저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주요한 장소는 바로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저는 어느 날 신문 기사에서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에게 보호 차분을 내려 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아들의 태도가 이미 굳어 버린 뒤였습니다. 습관이 형성되어 고치기가 어렵게 된 뒤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자녀들이 어리고 말을 잘 듣는 때에 그리고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듣고 배울 때 아이들과 함께 노력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번째 집에서 가정을 꾸릴 때였습니다. 우리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볼 때 모든 것을 “몸으로 때우던 시기”였습니다. 집안의 조경 책임은 저의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심은 많은 나무 중에서 첫번째로 심은 것이 바로 주엽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 여름에 그늘을 만들어 집안을 시원하게 하는데 일조를 할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그 나무를 계곡에서 동쪽

으로 바람이 가장 세게 몰아치는 구석에 심었습니다. 저는 땅을 파서 나무를 넣고, 그 주위를 흙으로 돌아 주었으며, 그리고 물을 주고는 이후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가지도 없이 줄기밖에 없는, 직경이 겨우 2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제가 쉽게 아무 방향으로나 구부릴 수 있는 잘 휘는 나무였습니다. 저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나무를 거의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뭇잎이 다 떨어져 버린 어느 겨울날, 저는 우연히 창문 밖을 보다가 그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나무가 기형적으로 자라나고 또 균형도 맞지 않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나무를 똑바로 세워 보려고 나무를 향해 힘을 주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무 줄기는 자라서 직경이 거의 30센티나 되어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연장 창고에서 도르레 장치를 가져와 한쪽을 나무에다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을 단단히 박힌 기둥에 매달아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도르레가 조금 움직이더니 나무 줄기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저에게 “이제 당신은 저를 똑바르게 할 수 없어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당신이 내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버려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저는 톱을 가져다가 서쪽으로 뻗었던 가장 무거운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톱질로 인해 20센티미터나 넘는 지지분한 자국이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제가 행한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 나무의 가장 큰 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는 가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나무를 심은 지 반 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제 딸아이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저는 다시 그 나무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여전히 큰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성장하면서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으며 그 나무를 곧게 하기 위해 제가 행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습니까!

제가 그 나무를 처음 심었을 때, 끈 하나만 매달아 놓았어도 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줄을 매달아 놓았어야 했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 나무는 뚝뚝어지게 자라났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의 생활을 지켜 보면서 이와 비슷한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 데려온 부모들이 그들의 책임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극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어머니와 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이러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빠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창조된 아이에 대한 책임은 창조의 행위에 본질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서는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신체에 필요한 음식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마음에 영양분을 주고 방향 제시를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책임입니다.

오래 전에,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판장이 바로 이 연단에서 모든 아버지들에게 가정의 위치로 돌아갈 것을 간절히 호소하신 적이 있습니다(연차 대회 보고, 1958년 4월, 94쪽). 저 또한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분과 똑같은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힘을 남용하거나 또는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들의 필요 사항을 아버지가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필요 사항들은 음식과 의복 및 안식처 이상의 것들입니다. 그러한 필요 사항에는 바로 정직과 성실 및 봉사 같은 기본적인 원리를 비롯하여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우리가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한 행동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행한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 등을 모범을 통해 가르치고 또 의로운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그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과 진리, 그리고 이해와 사랑 안에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이 없다는 것과 어린 자녀들이 유익한 원리를 존중하며, 부모

의 때와 범죄의 수칙에 몰들지 아니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가 바로 결혼 가정과 이러한 가정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 부모가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서 생의 영원한 목적과 결혼에 따르는 의무, 그리고 부모가 되는 것에 따르는 책임 등을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아이를 낳았으나 이들을 포기한 남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버림받은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러한 남성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할 의무 뒤에는 이들을 의로움과 진리 안에서 기르고 보호하며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평화와 안전, 그리고 사랑과 조화가 갖든 가정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또한 그렇게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온 세상에 계신 어머니들에게 그분들이 받은 부름의 고결성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적절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어머니의 그것보다 위대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의무도 여러분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성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데려온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여러분, 딸다툼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을 뒤덮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대입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기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빛과 진리 안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평화보다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훌륭한 방법으로 사회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행한다면, 여러분이 창조하고 기르고 사랑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가꾼 열매를 보고 또한 이들을 무릎에 앉혀 놓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드릴 날이 반드시 오리

라는 엄숙하고 거룩한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는 바입니다.

이 모든 사실과 더불어 저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부모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또 그 자녀들이 의로움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은 그들에게 더욱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계시에 언급된 것처럼 "최악 중에서 자라나며" 그리고 "영원한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희 눈에 탐욕이 가득"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68:31 참조). 이러한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망과 어려운 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분들에게 붓을 이로 물어 제가 앞서 여러분께 보여 드렸던 그림을 그린 13살짜리 어린 소녀가 보여 준 신앙과 결심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는 관대한 사랑과 그 사랑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청소년 시절까지 이어질 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아낌없이 주어진 돈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이 할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자제하고 노여움을 자기 혼련을 통해 이겨내며,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저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잠언 15:1)라고 말하였습니다.

선행을 하면 빨리 격려하여 주시고 꾸중은 천천히 사려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더불어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자녀를 키우는 데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모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자녀들을 사랑과 인내, 그리고 격려로써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와 더불어 자녀들이 보호받으며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선교 사업 - 우리의 책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주님은 그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사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리
는 동안 제 영혼이 소망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
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말씀을 축복해 주
시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아내와 함께 선교 사
업을 떠나는 열 한번째 손자를 배웅하기
위해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도중 기
쁨과 추억이 가득한 이야기를 나누었습
니다. 손자와 정겨운 인사와 포옹을 나
누는 공항에서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우
리는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족
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몇
가지 역사적인 일들을 회상해 보았습니
다. 그 선교사로 나간 손자의 고조 할아
버지인 조셉 토론토 할아버지께서 150
년 전인 1843년, 보스톤에서 선교사들로
부터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 성전의 건축을 도운
분이셨습니다. 브리감 영계서 1845년 7
월 6일 일요일에 성도들에게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십
일조를 바치도록" 강력하게 호소를 하였
습니다. 성도들은 나무를 떠나 서부로

가기 전에 의식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성전이 충분히 완공되기를 열망하였습니
다. 더 많은 인부와 십일조가 절실히 필
요했습니다. 개종한 지 얼마되지 않은
할아버지께서는 모임이 끝난 후 브리감
영을 찾아가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 바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브리감 영께 금화로 2천 6백불을 건네
주셨습니다(처치 뉴스, 1981년 6월 20
일자, 16쪽 참조). 브리감 영은 그 이탈
리아 출신의 개종자에게 "그분이 자신
의 혈통의 머리에 설 것이며, 그분이나
그분의 가족 누구도 생계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조셉
토론토: 이탈리아인 개척자 및 축복사,
토론토 패밀리 오거니제이션편, 1983년
6월 25일 참조). 그 후 1849년에 할아버
지께서는 신입사도인 로렌조 스노우와
함께 할아버지의 고국인 이탈리아로 가
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열라는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또 다른 조상으로서 1856
년, 고향인 유타주 과밍톤에서 스칸디나
비아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으셨던
헥터 시 헤이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
니다. 당시 그분은 덴마크어나 스웨덴어
나 노르웨이어를 거의 혹은 전혀 못하
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신앙과 스
칸디나비아 회원들의 도움으로 그분은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분은 1858년
에 보고하기를 "2,610명이 침례를 받았
고... 990명의 회원들이 시온으로 이주
했다"고 했습니다(앤드류 켄슨, 스칸디
나비아 선교부의 역사, [데저렛 뉴스사
: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1927년], 31
장, 128쪽 참조).

이 조상들은 다른 많은 조상들과 함
께 영감을 주시고 복음과 그 신성한 진
리 및 선교 사업을 사랑하는 선례를 만
들어 주셔서 저희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유산으로 물려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모두 그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하여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이미 한 젊은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선포자로 변형
되기 시작하여 앞으로 2년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을 두고 계속 되어 나갈 기적
을 다시 한번 목도한 저희들의 마음은
매우 고양되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차원
에서의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 및 우리
가족에게 계속 미치는 그 영향력에 대한
저희의 감사와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더
욱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차원에
서의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에 대한, 그
리고 그것이 저희 가족에 지속적으로 미
치는 영향력에 대한 저희의 감사와 신뢰
는 더욱 깊어지고 강화되었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이 나누는 사랑과 기
쁨과 눈물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매 주
삶에서 가장 장엄한 경험을 위해 전 세
계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을 떠나 온 마
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을 섬기고자 나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
과 부부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참으
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위대한 기적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호 처치 뉴스에서는 야구를 대단
히 사랑하는 젊은이인 아론 대처에 대한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아론은 그
의 뛰어난 재능으로 많은 프로 야구 스
카우 제의가 있었지만, 2년 간의 선교
사업을 통해 주님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전에는 프로 입단 계약을 서명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러한 제의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하고 사람들은 말
합니다. 그러나 그는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망이 순간의 명예에 대
한 소망보다 컸던 것입니다. 아론은 이
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선교 사
업을 나가려고 하는 것은 제 아버지가
나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제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
언자들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하고 건강한
모든 젊은이는 복음 선교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온 마
음을 다해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처치 뉴스, 1993년 9월 4일, 5쪽).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선교 사업
의 길을 열어 주시고 그분의 사업이 온
세상에 확장되도록 해주시니, 그분만의
방법에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난 5년 동안
전세계에서 봉사하려 나간 선교사의 수
는 3만 6천 여명에서 4만 9천 7백 여명

으로 늘어났습니다. 선교부의 수도 220개에서 294개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약 1백 5십만 명의 새로운 개종자가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사, 곧 대표자들이 5년 전에는 우리가 봉사하지 않았던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현재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 외에 주님의 사업이 급속하게 번창하는 기적을 어느 누가 예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주님이 예언하셨듯이, 그분은 그 시간 안에 그분의 일을 서두르고 계십니다.(교리와 성약 88:73 참조)

저는 요셉 스미스가 회복된 교회의 초석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을 수 있게 해준, 하늘의 사자들로부터 받은 시련과 영감의 깊이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계속 늘려 갈 때마다 영감을 받습니다. 1842년 3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자신이 경험하고 알았던 것을 담대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온 대륙을 꿰뚫고 모든 땅에 널리 퍼지고 모든 나라를 휩쓸며 모든 이의 귀에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실 때까지, 우리의 선교사들이 여러 나라로 나아가고 있고... 진리의 표준이 세워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가 담대하고 고귀하고 자주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교회 정사, 4:540).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언젠가는 봉사할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리와 조화되게 살기를 원하게 해주는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존 테일러와 윌포드 우드럽과 윌라드 리차드로 하여금 1839년 4월 26일 이른 아침에 파웨스트시의 성도들을 떠나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가도록 지시했던 바로 그 영, 곧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교리와 성약 118:4~5 참조). 그때 그들은 각자 성전 부지에서 차례로 기도하고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 그들은 계시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축복과 성신의 굳건한 영향력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 초기의 사도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견디 내게 해주고 지상에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참됨을 강력하게 증거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방법으로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축복받은 채 선교 사업을 출발했습니다.

작은 부분이나마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에는 커다란 책임이 수반됩니다. 주님은 그분의 메시지에 어울리는 사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이 손에 놓아 주실 위대하고 영원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은 88편에서 그분의 일을 서두르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왕국의 일꾼들에게 “준비를 갖추며 거룩하게 될지어다. 참으로 마음을 순결케 하고 내 앞에서 손발을 성결케 하여 내가 너희를 순결하게 할지어다.”(교리와 성약 88:74)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부름은 우리에게 거대하지만 고귀한 책임을 부여해 줍니다. 1839년 십이사도 정원회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았던 사람들에게 영감과 지시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름, 심지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요 땅 위 나라들에 말씀을 전할 사자의 부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근면, 인내, 충실함 [그리고] 여러분이 전파하는 교리의 정확함 위에 인류 개개인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널리 퍼지게 하도록 부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기셨고, 이 신권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사가 되셨으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충실하라고 명하십니다”(교회 정사, 3:395).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심으로써 선교 사업의 새로운 기대가 도래했음을 알리셨습니다.

“제가 더 많은 선교사들을 요구할 때, 간증이 적거나 함당하지 않은 선교사들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모든 지부와 와드에서 선교사들을 더욱 훌륭하게 훈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젊은이들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커다란 특권이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해야 하고 ‘주님은 털끝만큼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교회의 조직들을 통해 주의깊게 훈련을 받아왔고,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올 선교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앤서인, 1974년 10월호, 7쪽).

“우리는 언어뿐만 아니라 경전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말에 권세를 주는 간증과 타오르는 불로 선교사들을 잘 준비시켜야 합니다”(지역 대표 세미나, 1976년 4월).

대관장단은 지난 3월에 이 중요한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복음 선교사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복음 선교 사업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부름에 응답하는 젊은이들은 젊은 시절에서 직면하게 될 가장 가혹한 난제에 영적, 지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사들이 봉사를 통해 강화되고 향상되고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며, 그들 자신이나 가족이나 지도자 어느 누구도 선교 사업을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은 욕으로나 영으로 그저 건지 않고 뛰는 사람, 곧 그분의 영원한 영향력을 순수함과 힘과 신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외면하거나 거절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과 그들의 가족과 지도자들 각자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대에 함당하고, 능력있고 헌신적인 지원자가 되도록 준비하는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커다란 책임을 짊어질 때, 주님은 우리의 노력을 크게 확대시켜 주시고 우리의 선교사들을 키우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사용하실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칠레에서 선교 사업을 한 캘리포니아의 한 젊은이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참여했던 한 남자와 그의 아내와 두 자녀의 결코 잊지 못할 침례에 관해 적었습니다. 그는 천한 경마장 마구간 인부로 일했으며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지만 복음 원리에 대해서는 큰 신앙을 지닌 그 가장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신앙을 회고했습니다. 그 가장은 복음을 받아들인 뒤 그 복음대로 살았으며, 모범을 통해 가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선교사로서 저희는 어쩌면 이 가족이 저희가 개종시킨 가장 훌륭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장은 가족을 부

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그야말로 일에 대해 흔치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 훌륭한 가장이 이제 칠레의 한 스테이크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막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15년 여 전 김볼 대관장단은 “모든 가족이 매일 밤, 매일 아침, 가족 기도와 은밀한 개인 기도를 통해 다른 나라들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의 가르침, 586쪽)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예언자의 시현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들이 열렸으며, 나라들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문들을 넓히시는 대로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행진해 들어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봉사하라는 부름에 응답한 수많은 분들과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주 주님이 서두르고 계시는 위대한 추수에 참여하려 나아가는 용감한 선교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의 희생과 봉사,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훌륭한 업적을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평안함과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녀들을 떠나는 경향이 많고 원숙한 부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1839년 7월 3일, 십이사도 평의회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낸 서한의 이 영감이 가득한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으로 결론짓겠습니다. 서한의 마지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아우성과 전쟁의 소음과 질병의 창궐과 나라들의 소요와 왕국들의 멸망과 제국들의 분리 가운데서도, 진리는 전능자의 팔로 인도되어 큰 권세를 갖고 전진할 것이며, 나라들 사이에 정직한 이들을 굳건히 세울 것입니다. 시온이 장미같이 피어날 것이며 나라들이 그 깃발 아래 모여들고 이 세상의 나라들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수님이 세세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교회 정사, 3: 397).

그 영광된 날이 올 때, 우리가 모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이스라엘의 현대의 용사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철심인 정원희 회장단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익에 앞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운 좋게도 교사님으로부터 “다윗 왕의 용사들”에 관한 구약성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님은 다윗 왕의 가장 뛰어난 용사들의 무용담을 자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군 중에 “용사”(사무엘하 23: 39 참조)라는 영예의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번에 3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뛰어난 용사들의 자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대상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발하는 자요”(역대상 12: 2) 그들은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들이었으며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역대상 12: 8) 같았습니다.

이 용사들은 고도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무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들은 결의가 굳었으며, 사자와 같은 얼굴이 말해 주듯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전쟁에도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교사님으로부터 이 용사들의 업적과 위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이 카우보이나 우주 비행사나 유명한 운동 선수들의 흉내를 내며 놀고 있을 때, 저는 다윗 왕으로부터 용사로 뽑힌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나무로 칼을 만들고 버드나무 작대기로 창을 만들어 왕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시늉까지 했습니다. 우습게도... 지금 생각해 보니 적은 항상 어린 제 두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용사들의 준비와 열정에 관한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용사들 가운데 베들레헴의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세 용사에 관한 영감이 찬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는 왕이 마시고 싶어했던 매우 시원한 물이 있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원하고 맛있는 그 베들레헴의 우물 물을 맛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명령이나 지시나 임무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 세 용사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경계선을 뚫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다시 적진을 통과해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와 다윗 왕에게 매우 신선한 베들레헴의 물을 바쳤습니다. 다윗 왕은 이들의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에 너무 감격하여 그 물을 마시기를 사양했습니다. 그는 그 행동이 너무도 용감하고 훌륭하다고 여겨 물을 땅에 부었습니다.

경전에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사무엘하 23: 14~17; 또한 역대상 11: 17~19 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헌신과 자발적인 봉사에 관한 영감이 찬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인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왼쪽)와 엘 톨 페리 장로가 고든 비 힐러리 부대관장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명령을 받지 않고도 그렇게 충성스럽고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은 이 용사들에게는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용사들이 어린 소년에게 영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용사들에 관한 또 다른 자질과 공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역대상 12:32)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 상황에 대한 이같은 특별한 이해력과 그에 따라 생기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알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의미 심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용사들은 그들의 시대 상황에 관해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해력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 37명의 용사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다른 족속과 부족에서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통해 이스라엘 군에 더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7명의 용사의 이야기에 몇 가지 언급되었듯이 험난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이 용사들은 그들의 시대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종족의 필요 사항과 당시의 많은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더욱 잘 알게 되었으며, 것처럼 이런 이해력을

가짐으로써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오를 정제히 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역대상 12:33)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용사들은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조직이 제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익에 앞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동기에서 나타나듯이 한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다윗 군대 내의 다른 직책이나 계급을 열망하지 않았습니다. 37명의 용사들은 각자 계급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책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질은 이 용사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항오를 정제히 하고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

을 삼고자 하여”(역대상 12:38)

이 자질이란 곧 “일심”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고대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나타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왕에 대한 충성과 이스라엘의 건설과 배치되는 다른 개인적인 목적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권의 신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모두 그랬습니다.

후에 저는 자신을 용사로 만든 성품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알게 되었습니다. 용감한 베드로의 발전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상고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으로부터 주의깊게 가르침을 받아 용사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충성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세번째 대답을 통해 그의 한 마음이 온전히 완성된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세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는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요한복음 21:17).

또한 훌륭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의 용기와 진취적 기상은 다음의 더욱 확실한 예언을 통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디모데후서 4:6-7) 그 얼마나 뛰어난 용사입니까!

어느 누구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사들의 자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용사의 자질을 갖춘 여인, 롯이 한 말씀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룻기 1:16-17). 그 얼마나 용감한 여인입니까!

다윗 자신도 어린 시절에 나중 그가 휘하에 둔 용사들의 자질을 보여 주었습니다. 거구의 골리앗과 대결했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사무엘상 17:45) 얼마나 용감한 소년입니까?

필멸의 인간 가운데 아마 요셉 스미스가 용사의 자질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에 관한 이야기는 그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교리와 성약 135:4) 그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저는 아직도 용감한 남자와 용감한 여자들에 관한 사례를 더 찾고 있습니다. 교회의 총관리 역원 및 본부 보조 조직 지도자 형제, 자매님들에 관해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도 용사들처럼 오른손, 왼손 모두 창을 던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평생 동안 훌륭하게 준비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의 용사들의 가족이 인생 자체와 일상 생활에서 고난을 면제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극과 병과 사고와 가난과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노쇠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병을 포함한 삶의 경험을 통해 이 용감한 종들은 시대에 대한 이해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감하고 헌신적인 배우자를 포함한 이 형제, 자매님들은 법률, 의학, 가사, 교육, 사업, 혹은 농업 등에서 고도의 경험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확실히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부모나 가장의 역할에서 두드러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교회에서 오랫동안 모든 시간을 다 바쳐 봉사해 왔습니다. 그들은 주 의회나 시 정부나 학교 교문 위원회나 국내 또는 국제 교수 단체에서 봉사해 온 분들입니다. 그들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는 동안 인도주의 단체나 교육 단체에서 봉사하거나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위한 성금 모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대의 용사들처럼 이 현대의 용사들도 여러 다른 주와 나라에서 나왔으며 따라서 경험과 문화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 경험들을 집약하게 되면 자신이 태어난 지역과 다른 곳에서 생활하면서 수백 년간 봉사한 것과 같습니다. 바로 여러



분 앞에 지금 앉아 계시는 이 분들 가운데는 시차 적응이 안되어 힘든 상태에 있거나 업무의 일부인 과도한 여행으로 인해 피로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세계 각처에서 오셨으며, 이제 며칠 후면 다시 그 나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한 마음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녀와 손자녀들을 남겨 둔 채 떠날 것입니다. 저는 이 용사들이 이 현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으며 교회와 교회 회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이해력과 지식은 그들이 원래 가진 능력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일심”을 발전시킴으로써 주로 얻어진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하는 분들의 생활을 잘 관찰하여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중요한 모범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일심”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얼마나 훌륭한 용사들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 누구보다도 가장 용감하시며 우리들 대부분이 본받고자 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섰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헌신하고 순종하겠다고 강력하게 외치신 그분의 기록을 돌본경에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쓴 잔을 마시며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태초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였느니라”(니파이삼서 11:10~11).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 기간 동안 현대의 용사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건대, 그분들은 우리 시대와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해력을 갖게 해주는 한 마음, 곧 일심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세상의 쉽고 인기 있는 가르침은 선택하기에 올바른 것들이 아니며 옳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 임스 엘 타운센드의 감동적인 찬송가의 후련 구절은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언제나 진리가 되는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지혜 네 앞 길 이끄니
의의 일 행하면
주 너를 축복하시리.
(찬송가 163장)

최근 뉴질랜드로 여행하던 중에 저는 한 선교부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의를 택함”을 상징하는 정의반 글자가 새겨진 아름다운 넥타이 핀을 꽂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특이한 “정의반” 핀에는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그분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분의 넥타이 핀에 관한

사연도 함께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관찰력이 매우 뛰어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꽂고 있는 넥타이 핀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넥타이 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핀들은 제 자녀와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초등학교의 상징 글자를 청록색으로 새긴 이 아름다운 방패 모양의 은색 핀을 즐겨 꽂습니다.

“왜냐구요? 아마 그것은 제가 감독으로 있으면서 아른 신권을 받아야 하는 잘 생긴 한 청년과 접견을 한 뒤부터 일 것입니다. 그 청년은 제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방과 후 친구 몇 명과 함께 담배 한 갑을 주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바위 밑으로 난 벼랑으로 내려가 그 담배를 피우기로 했습니다. 모두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그 청년은 자신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 든 연기가 나는 담배를 내려다 보다가 자신의 정의반 반지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재빨리 담배 불을 끄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노라고 대단히 현명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상징이 나타내는 바를 기억하여 ‘의의 일을 선택하여 생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영감이 깃든 정의반 상징에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서 정의반 넥타이 핀을 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부장으로 뉴질랜드에 오기 몇 주 전 애리조나주 커엔틴의 커엔틴 와드에 속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나바호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을 때, 유능하고 젊

은 나바호 감독님이 저를 꼭 끌어 안은 뒤 자신의 넥타이 핀을 빼서 저의 넥타이에 꽂아 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제게 자신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현재 이곳 뉴질랜드에서 이 위대한 부름을 수행하기 위해 매일 아침 옷을 입을 때마다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제 넥타이에 이 아름다운 은색과 청록색의 정의반 상징 넥타이 핀을 꽂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 핀이 이 늙은 일꾼이 하루 하루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님께서 저와 아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별하실 때 주신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그대는 선교부의 모든 선교사들에 대한 사랑의 유대를 즉시 갖게 되리라.’ 선교사를 방문하는 중에 ‘가드너 선교부장님, 선교부장님의 넥타이 핀이 아주 멋있는데요.’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그 선교사들은 자신의 정의반 반지를 제게 보여 줍니다.

“저는 나바호 감독님이 영감을 받아 제게 그 넥타이 핀을 주었으며 제가 그것을 꽂음으로써 매일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파란색과 은색의 정의반 핀은 저를 뉴질랜드 웰링턴 선교부의 충성스러운 선교사들과 저를 묶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 위대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표어와 관련된 특별한 저의 경험을 장로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선교부장으로 계시는 그분의 특별한 편지를 받고 저는 교회의 훌륭한 청소년 여러분께 무언가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옳은 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음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사랑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가르침을 과거에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습니다. 물론경에는 의와 불의의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엘마의 판사 치세 칫해에 니허라고 하는 크고 건장한 사람이 재판관을 받기 위해 엘마 앞에 끌려왔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니히는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분쟁과 불화를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며 스스로 지어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 가르치고 교회를 억눌렀으며, 계사나 교사들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부양되어야 한다고 외쳐 전하니라.”

“또한 그는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이르기를, 마지막 날에 만민이 마땅히 구원을 받을 것인데,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움에 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치켜 들고 기뻐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주가 만 인류를 지으셨고 또한 구속하셨으며 끝날 만민이 영생을 얻겠다 함이라”(엘마서 1:3~4).

니허의 말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지만 그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세상의 쉽고 인기 있는 가르침은 선택하기에 올바른 것들이 아니며 “옳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엠몬아이하 땅에서 엠올레크와 엘마도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엠올레크는 그들을 다시 한 번 참되고 살아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개심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지에즈롬이라는 악마의 계략이 가득한 자가 엠올레크의 가르침에 맞섰습니다. 지에즈롬이 엠올레크에게 “그(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죄진 그대로 구원하시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엠올레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리니”(엘마서 11:34).

그런 뒤에 지에즈롬이 엠올레크를 조롱하였지만 엠올레크는 구속의 계획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놀랄 만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네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이 백성들을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실 수 없으리라. 이는 내가 그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음이니,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이러,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할진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 죄를 짓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리라.

“그가 세상에 오셔서 백성을 구원하시리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의 죄를 거두시어 그들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 외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

라.”

“그러므로 악인은 죽음의 사슬에서 풀릴 뿐 구원이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되리라. 보라 모두가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저들이 각각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을 날이 이르리라”(엘마서 11:37, 40~41).

나중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병고침의 축복을 받고 난 뒤 지에즈롬은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뜻은 행복을 얻는데 있다.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을 따라 간다면, 그곳에 이르게 된다. 그 길은 곧 덕행과 의와 신앙과 고귀함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교회 정사, 5:134~135)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선택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좋은 내용도 나쁜 내용도 보여 줍니다. 서점에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담고 있는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성모독과 폭력과 부도덕에 가득 차 불만한 가치를 지닌 영화들이 거의 없습니다. 광고물도 지혜의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악은 단조로운 박자로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의 이 권고의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같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 하고 결정하고 또 결정할 필요가 없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결정은 한번으로 족합니다. 한 가지 유혹을 두고 고뇌에 고뇌를 거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 소모일 뿐 아니라 위험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 즉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고 성전 결혼을 위해 합당하게 생활하겠다는 등의 긍정적인 것들은 단 한번의 결정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목표와 다른 모든 결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매번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며 결정을 내린 것에 의심을 할 때마다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말일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입장을 빨리 굳힐수록 그만큼 나아집니다!(킴블 대관장 말씀, 솔트레이크시티:대저렛 출



판사, 1981년, 94쪽)

주님은 우리가 그릇된 것을 택하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메시지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옳은 일을 선택”하기 위한 올바른 길을 걷게 하는 순수한 상징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몇 개월 전, 저는 제 손녀딸 하나가 침례받을 때 이러한 상징 가운데 하나를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침례식 전에 간단한 프로그램에서 제 손녀딸은 이 특별한 상황을 위해 자기 어머니가 써 주었던 시를 읽었습니다.

나의 세 가지 흰 옷

엄마가 내게 흰 옷을 사 주셨어요
빨간색도 분홍색도 파란색도 아니지요
엄마는 특별한 옷이라 하셨어요
그런 옷은 별로 없대요.

전에 그런 옷이 하나 있었다요
이젠 없지만요
오래 전 내가 유아 축복 받던 날
입었던 옷이 바로 그 옷이래요.

어린 아기로 처음
흰 옷을 입었을 때
아빠 날 팔에 안으시고
이름과 축복을 주셨대요.

그때 난 무척 순수하고 깨끗했대요
자라면서 난 날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배웠어요
나의 영광을 배워야 했어요.

이제 난 판단할 나이가 되었어요
옳은 길과 그른 길을 말이에요
나 여기 침례받으러 왔어요
이 흰 옷을 입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난 죄에서 벗어나지요
어느 길 가야 할지 분명히 알지요

난 쇠막대 굳게 잡으리라
분명히 맹세하지요.

흙탕물이 내 옷을 더럽히듯이
죄도 내 영혼을 더럽힐 거예요
회개하여 씻어내는 게 중요하지요
깨끗케 되는 게 내 목표니까요.

최선을 다하면
난 풍성한 축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안에서
세번째 흰 옷을 입는 축복 말이예요.

그래서 난 오늘 다짐해요
나 항상 옳은 일 택하리라
이 거룩한 침례식을 통해
내 두번째 흰 옷을 입고요.
(린다 게이 페리 넬슨, 1993)

우리는 세계사적인 면에서 볼 때 사탄이 그의 모든 힘을 발휘하여 사람들을 협박하고 좁은 길에서 끌어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자신이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여호수아처럼 그들도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15).

교회의 훌륭한 청소년 여러분도 끊임 없이 옳은 일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더욱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택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줄 것을 찾거나 만드실 것을 재언합니다. 넥타이 끈이나 정의반 반지나 옷장 속의 흰 옷도 순결하고 의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소망과 관련될 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물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세상의 평화나 행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마음 깊이 확고한 결심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하기로 끊임없이 선택한다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삶의 고난을 헤치며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고난의 짐으로 힘겨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도 같은 길을 지나왔으며 이를 견디고 극복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30년 전 이 대회에서 저는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부름 받고 지지받았습니다. 그 대회에서 저는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를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저는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해 여러분에게 그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꼭 한 달전의 한 국경일에 러셀 엠 넬슨 장로님과 저는 자녀들과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파란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 따스한 물이 가득 담긴 수영장에 갔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들의 노는 모습을 지켜 보듯이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저는 넬슨 장로님께 "물론 부모들이 자녀들을 돌보고 있긴 하지만 할아버지인 우리가 더 큰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 보며 또 그들이 즐거워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저는 수영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체 장애가 심한 아들을 잡고 고서 오그라든 그 아이의 가녀린 몸을 물 속에서 앞뒤로 움직여 주고 있는 한 아버지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식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소년이 정말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년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기쁨에 넘친 소리가 나오질 않았으며, 또 거의 활력이 없는 그의 수족에서는 물놀이시에 생기는 물튀김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심한 질병을 앓은 그는 말도 할 수 없었으며, 뇌에도 손상을 입어 사랑하는 이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소년의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애가 제 손자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잘 데리고 다니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생활에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곧 사람들이 수영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웃음 소리와 놀이가 멈추었습니다. 오후의 태양이 저물기 시작하자 정적이 사방에 드리워졌습니다. 공기가 쌀쌀해지면서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랑과 헌신이 가득한 아름다운 광경이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생각이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이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베데스다라는 언덕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낮게 됨이러라

“거기 삼십 팔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낮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
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
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가니라”(요한복
음 5:2-9).

고통과 슬픔이 담긴 또 하나의 장면을
영국 런던의 국립 미술 박물관에서 찾
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많이 지
나다니는 화랑의 벽에 “병과 건강” 이
라는 제목이 붙은 걸작이 걸려 있습니
다. 그 그림에는 왼손이를 데리고 다니
며 손뎡금을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와 왼
손이의 재주를 보며 재미있어 하는 행복
하고 건강하게 노는 어린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지도 못하고 휠
체어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창백하고 작
은 얼굴을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 그림
을 관람하고 그 아픈 소년의 마음에 이
는 말 못할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소년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고 말 없
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어느 누가 질병의 그 흔적을 남겨 건
강하던 수족이 활력을 잃게 되고 또 사
랑하는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
해 신앙의 기도를 드리게 한 소년, 소
녀, 그리고 성인 남자와 여자들의 수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질병이 우리의 생활을 가로막고 진로
를 바꾸어 놓은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
다. 병적일 정도로 바빠 움직이는 세상
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한 순간에 고통을
안겨 주며, 행복을 파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미래를 앗아갈 수도 있
습니다. 로버트 헨드릭스 형제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3년 전만 해도 건강
하고 걱정이 없던 그는 갑작스런 3중
충돌 사고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으며,
또한 수족의 사용에 제한을 받고 언어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절망감을 토로
하며 아들 곁에 와달라는 그의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가서 저는 병원 중환자실의
하얀 침대에 거의 숨도 없이 누워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생명 보조



장치로 겨우 숨을 부지하고 있었으며 또
머리에는 붕대가 겹겹이 감겨 있었습니
다. 그의 미래가 의심스러웠을 뿐만 아
니라 도리어 죽음이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바라던 기적이 일어
났습니다. 하늘이 도움을 내려 주어 로
버트가 살아났습니다. 회복에 많은 노력
이 들기는 하였으나 천천히 그리고 꾸준
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사고 당시 그의
감독이었던 한 헌신적인 친구가 매주 로
버트를 준비시켜 차에 태우고는 교회 모
임에 데리고 가는 등 여러 모로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충실하게 로버트를 도
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로버트의 전 감독이 그를 데
리고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고가 난
날 밤의 위급했던 순간에 제가 병원을
방문하여 로버트를 면회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가 저를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그의 헌신적인
감독이 자리에 앉자, 로버트가 말하고
싶은 것을 한자 한자씩 말하면 이를 중
이 위에 출력하는 조그만 전자 장치에
의지하여 그는 저와 “대화를 나누었습
니다.” 그는 그 장치를 통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자신을 직접 도와주고 또
심적으로 응원해 준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
운 마음, 그리고 기도를 통해 자신을 지
지해 주고 친절하게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소개해도 될 만한 덜 개인적인
일부 내용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지나
온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
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들의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게 되리라는 것

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기
분이 좋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
나 기도를 통해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그 감독은 “로버트가
부대판장님을 놀라게 해드리고 싶답니
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상당한
노력 끝에 자리에서 일어나 “부대판장
님, 고맙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
니다. 그의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떠올
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
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저는 “또한 사랑이 많은 감독님들
과 친절한 교사들, 그리고 숙련된 전문
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라고 소리내
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로버트는 그의 전 감독님과 현
재의 감독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
움을 받아 성전에 다녀 왔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대
학에 입학하였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데
저렛 산업의 종사자들이 그를 도와 격려
해 주고 중요한 기술도 가르쳐 주었습니
다. 이제 로버트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조금은 더듬기는
하지만 각고의 노력을 하여 말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고나 병이 이에 관련된 사
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장소
나 지위, 그리고 나이나 사는 곳에 관계
없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은
힘없는 다리로 걷는 노인에게만 찾아오
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인생 여정을

반밖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덮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종종 어린 아이들의 웃음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세상 도처에서 아들에게, 딸에게, 형제 자매에게, 어머니에게, 혹은 소중한 친구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애통해 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슬픈 모습들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달 섹스 가든즈 공동 묘지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저 에스 올슨의 친구와 가족들이 모였으며 꽃으로 장식된 관에는 그의 육신이 있었습니다. 아내 클라우디아와 귀여운 여섯 자녀들, 그리고 가족과 친지 및 친구들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로저는 일터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는 특수 촬영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능력있는 전문가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나 그가 탄 헬리콥터가 추락하여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정말 그 모든 일이 사전 경고도 없이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났습니다. 슬픔이 가득하였으나 그나마 신앙의 위로를 받아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남편과 아버지에게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겨우 일시적으로 작별을 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지식을 통해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후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기사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안식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놀라움게도 주님의 시신이 온 데 간 데 없었습니다. 누가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렇게 물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 5-6).

산상수훈의 진위성에 대한 의심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포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그의 율법에 대한 거부 등 이 세상에 만연된 철학과는 반대로 올슨 가족을 비롯하여 곳곳에 있는 참된 신앙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전해 주는 간증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순교로 인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기에 앞서 스테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며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사도행전 7: 56).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사울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륜의 시대에도 요셉 스미스 자신도 직접 주님을 보고 또한 아버지께서 그를 소개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요셉 스미스서 2: 17)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힘차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질병과 사고 및 죽음, 그리고 이 밖에 수많은 작은 난관 등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일들에 관해 곰곰히 생각해 보면, 고대의 읍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욥기 5: 7)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말한 인생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멋 고동이나 환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없었다고 말해도 그리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혼란이나 파괴 그리고 비참함이 없었던 시기도 없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불행한 일이 생길 때는 “하필이면 왜 나에게?”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고난을 잘 제어 할 수 없을 때에도 자기 학대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각자의 불행을 상점으로 가져 와서 한 곳에 모은 후에 모든 사람이 이를 똑같이 나누어 가져 가야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자신의 불행을 기꺼이 그대로 갖고 갈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터널의 끝에서도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거나 혹은 밤의 어둠을 깨치는 새벽이 오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조각난 마음의 고통과 부서진 꿈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사라진 희망에 대한 좌절에 둘러싸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런 탄원이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에레미야 8: 22).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불행을 염세주의라는 사물을 왜곡시키는 비뚤어진 창문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거나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같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시편의 저자가 남긴 확신에 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

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편 30: 5).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고난의 짐으로 힘겨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도 같은 길을 지나왔으며 이를 견디고 극복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욥기 1: 8)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이 경건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리던 욥은 어떤 사람이라도 넘어갈 만한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친구들의 조롱을 받으며, 또한 고통에 시달리며 아내에 의해 유혹까지 받았던 욥은 자신의 고귀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욥기 16: 19)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라”(욥기 19: 25).

이 세대로 돌아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과 용기, 그리고 동정심으로 거둔 승리의 본보기가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고난을 직접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신체적인 장애를 겪으면서도 이에 따른 고통과 아픔을 참으며 결코 불평하지 않는 능력의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유태주 샌디에 사는 웬디 베니온과 역시 유태주 파크벨리에 사는 제이미 팔머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심대 청소년으로 비슷한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당친 상황은 대단히 비슷하였습니다. 웬디가 치른 고통의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청년인 웬디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어린 나이에 암에 걸려 오랫동안 화학 치료 요법에 의지해야 하였던 웬디는 이를 용감하게 참아 나갔습니다. 교사들이 도와주고 부모와 가족들도 도와주었으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원천은 바로 웬디가 지닌 불굴의 정신이었습니다. 웬디는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웬디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범과 신앙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18개월 간의 화학 요법을 마친 뒤의 웬디를 위해 풍선을 띄우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언론들도 이 모임을 취재하였습니다. 그날 띄운 많은 풍선들 가운데 하나를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제인 존슨이 발견하였습니다. 제인은 화학 치료를 받기 위해 떠나려던 순간에 뒷마당에 내려앉은 풍선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제인은 웬디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슬프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풍선 속에서 웬디의 신상과 그녀가 암을 화학 요법으로 치료하면서 겪은 이야기가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또한 웬디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감을 주었다는 내용을 적어 보냈습니다. 웬디는 "그 풍선이 제인에게 발견되어서 제인에게 암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암이 재발되어 웬디가 다시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이 훌륭한 어린 소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며,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용기있고 결단력이 있으며, 또한 신앙이 깊은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이미 팔머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보여 준 모범은 여류 시인 엘라 윌러 윌콕스의 시와 꼭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노래처럼 흘러 갈 때
기뻐하기란 아주 쉬운 것.
그러나 매사가 잘못 돌아갈 때
멋있는 미소를 띄우는 사람
마음의 시험이 어렵기에
그것은 항상 세월과 더불어 오는 것.
세상의 칭송을 받을 만한 미소는
바로 눈물 속에서 빛나는 미소.
(“보람이 있는 일”,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에서 발췌함. 헤이즐 팰러맨[가든 시티, 뉴욕: 더블데이, 1936년], 144쪽)

슬픔과 비통에 싸여 있거나 혹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주님의 탄생을 예언하며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자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



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사야 53:2~5).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며,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입니다. 위대한 성역을 베푸시면서도 그분은 기꺼운 마음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람들의 짐을 같이 지며, 희망을 주고 또한 육체를 고쳐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구세주의 성역 가운데서 나인에서 비롯하게 우는 과부에게 보이신 동정심의 모범보다 저에게 감동을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께 주신대”(누가복음 7:11~15).

구세주께서 얼마나 커다란 권세와 은유, 그리고 동정심을 보여 주셨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분의 고결한 모범을 따르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비참한 곤경에 빠진 이를 볼 수 있는 눈과 상한 심령의 말없는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과 눈으로 혹은 소리와 귀로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구세주께서 보여 주신 놀라운 방법에 따라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선 동정심이 가득한 영혼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라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시며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동반자임을 얻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들을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위대한 행복의 계획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의 목적과 결과도 역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와 같은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것을 구원의 계획이나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8)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우리는 영감을 통해서 이 영원으로 가는 도로의 지도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생에서의 길잡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부모의 영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로서 전 세에서의 영적인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대관장단 말씀, 임프르브먼트 이라, 1912년 3월, 417쪽; 예레미야 1:5 참조) 우리는 영생을 향해 진보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우리에게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인생은 단

지 어떤 임의의 과정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고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특별한 안목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인생에 관한 이해는 천국 회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은 그들의 운명에 관한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육신과 필멸의 경험이 없는 상태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로 발전했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전세에 관한 기억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겠다는 것을 증거해 보여야 했습니다.

필멸의 인생 동안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또한 죄로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구세주를 보내 주시기로 계획하셨으며 구세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 모두는 사망으로부터 구속되며, 그분이 명하신 조건대로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깨끗케 되는 데 필요한 대가가 치루어질 것입니다.(니파이서 9:19~24 참조) 사탄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에게서 선택의 능력을 없애어 죄의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모두를 다 구원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거부되자 사탄은 그를 따르던 영들과 함께 아버지의 계획을 반대하였으며, 결국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의 계획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 아버지와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했던 행동들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지상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비록 육신을 가질 기회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데 그들의 영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시험하는 데 필수적인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사탄은 아버지의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방해하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사탄은 구세주와 그분의 신성한 권능을 방해하며 속죄의 능력을 무효하게 하며 계시를 흉내내어 혼동시키며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피어내며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가볍게 여기게 하며 성의 구별을 혼란시키며 결혼을 중요치 않게 여기게 하고(특히 자녀를 의롭게 양육하게 될 부모들에게서) 산아 제한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남성다움, 여성다움, 결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은 모두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현대의 계시는 성의 차이가 전세에서도 존재했다는 것을 명백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교리와 성약 20:18; 모세서 2:27; 창세기 1:27)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임스 이 탈메지 장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비교적 짧은 필멸의 인생에서만 나타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세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특성이었습니다.”(밀레니얼 스타, 1922년 8월 24일, 539쪽)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지상의 첫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모세서 2:28; 또한 창세기 1:18; 아브라함서 4:28 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순서적으로도 첫째이고 중요성으로 봐서도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지상에 태어나서 영생을 향해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하려는 사탄의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담과 이브가 이 첫째 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영의 세계를 떠나 육신을 갖고는 있었지만 아직 죽음에 예속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출산의 능력도 갖지 못한 과도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행복과 필멸의 인생의 엄청난 시험 및 그와 더불어 오는 훌륭한 기회들을 분리하는 벽을 없애기 위해 범법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그 첫째 계명

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게시되지 않은 이유들을 위한 이 전환, 곧 "타락"은 범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의지를 행사하여 고의로 율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모세서 6:59 참조). 이것은 영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범법이었으며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예언자 리하이는 "아담이 범법하지 않았던들 타락하지 아니하"(니파이이서 2:22)고 애초에 창조되었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이며

"저들 시조는 또한 자녀를 갖지 못하였을 것임에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비참함을 알지 못함에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함에 선을 또한 행하지 못하였을 것"(23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타락이 계획되어졌고 그 이유를 리하이는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지혜로 이루어졌"(24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필멸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먼저 에덴의 한계를 깨뜨린 사람은 이브였습니다. 이유야 어찌했든간에 이브의 행동은 엄밀히 말하면 범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영생의 문을 여는 영광스러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아담 역시 똑같이 행하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브와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함"(25절)이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브의 행위를 비난하여 이브와 그녀의 딸들이 그 때문에 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말일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브의 행위를 찬미하며 타락으로 불리는 그 위대한 사건에 행사하였던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존경합니다.(브르스 알 백콩기, "이브와 타락", 여성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9년, 67~68쪽 참조)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요셉 스미스의 말씀, 앤드류 에프 옛과 린든 더블류룩 편, 유타주 프로보:브리감 영 대학교 종교 연구 센터, 1980년, 63쪽 참조). 브리감 영은 "우리는 결코 이브를 추호라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설교집 13:145)라고 가르쳤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는 "나는 이 타락에서 이브가 맡은 역할을 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으며, 죄를 지었다고 아담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범법이었으나... 죄는 아



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구원의 교리, 1권, 108쪽)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와 범법의 차이점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신앙개조 제2조의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고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아니함을 믿는다."의 신중한 표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법에서 보면 차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같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범죄입니다. 또 면허증없이 운전을 하는 등의 기타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타락을 초래했던 행위는 근본적으로 나쁜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 금지되어졌기 때문에 범법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언제나 어떤 다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차이가 타락의 상황에서는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현대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첫번째 부모가 타락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주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고 또다시 육체로써 하나님을 보리라"(모세서 5:10)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목적과 결과에 초점을 맞춘 이브의 독특한 안목과 뛰어난

난 지혜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악이나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11절)라고 말하였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모인 "위대하고 강한 영들"을 보셨으며 그중에 있는 "영예스러운 어미인 이브"(교리와 성약 138:38~39)도 보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의 목적과 결과도 역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통제하도록 권유하십니다. 우리는 지상 생활에서의 선택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별을 혼란시키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없애려고 하는 정치적, 법적, 사회적 압력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영원한 안목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의무와 특권을 변경시키려는 것들에 대항 할 수 있습니다. 관습이나 법적인 면에서의 변화 중에는 단지 영원한 원리에 전혀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과거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는 것들도 있는 까닭에 우리는 남성과 여성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교회 지침서 1989년판에 대한 1991년 보충자료).

우리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이해하므로 결혼과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 독특한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때문에 우리는 역시 관습과 법률 및 경제적인 면에서의 몇몇 유력한 경향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경시하는 부부가 계속 늘고 있으며, 결혼한 부부 가운데에는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하거나 자녀의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경제적인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는 한 가정당 한 사람이 일하여 가족을 부양한다는 전통적인 통념이 바뀌어 왔습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이 일하는 현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고 양육하는 데 쓰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러한 현상의 영향은 낙태, 이혼, 어린이가 경시 및 청소년 범죄의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합법적인 출생의 환경을 제공하며 영생을 위해 가족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결혼이 필수적임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며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창조에 따라 인간의 수로 가득 채우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9:15~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결혼에 관한 개념은 세상적인 사회학이 아니라 계시된 진리에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는 남자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린도전서 11:11)라고 가르쳤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합당하고 성공적인 결혼 없이는 결코 승영에 이를 수 없습니다."(결혼과 이혼,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6년, 24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습에 따라 남자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이 남성들에게 강력하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종교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복음 교리,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39년, 275쪽)라고 말씀

대우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출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권능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의 오용을 금하는 또 다른 중요한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순결의 법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출산의 능력에 관한 목적을 이해하는 데 근거를 둥니다.

이 출산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혼 관계 내에서만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합법적인 결혼 관계 내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올바른 것이며 신성스럽게 허가되어진 것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사랑을 표현하고 창조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므로 그것이 성스럽지 않거나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블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블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2년, 311쪽)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나 이 출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다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자질을 어떤 정도로든 죄스럽게 타락시키며 오용하는 것입니다. 물론경은 불순결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거스리는 일 다음으로 가장 가증한 일"(앨마서 39:5)이라고 가르칩니다. 현대의 교회 대관

장단은 "남성과 여성의 불법적인 성관계인 성적인 죄는 살인 다음으로 무거운 죄"라는 것을 이 교회의 교리로 선포해 왔습니다.(대관장단 메시지, 1942년 10월 3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단 메시지, 제임즈 알 클라크 편, 6권,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5~1975년, 6:176에서 인용)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난잡한 동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스러운 성약을 맺은 말일성도들에게서는 그러한 점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을 파괴하거나 오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숙한 책임을 집니다.

가장 심각한 파괴 행위는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낙태가 그토록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낙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법적인 취지로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느냐에 관해 알려진 지식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영의 자녀들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와야 하며 우리 개개인의 존재는 잉태하기 오래 전부터 시작하여 영원을 두고 계속된다는 우리의 지식에 근거를 둥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믿는데 그분들은 우리에게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유산하는 행위가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리와 성약 59:6)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30대의 합당한 말일성도 형제가 재산을 모으는 데 바쁘고 가족을 갖는 데서 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즐기며 결혼에 관해 긴박함을 못느끼고 사는 예들을 봅니다. 형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성스러운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말일성도들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알고 있으므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관해서는 독특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자녀들은 가정 경제 조직에 있어서 단순히 일꾼이나 그들의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존재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억압에 대해 반발하면서도 오늘날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의 복리보다 자신의 안락이나 편익을 더 중시하는 것 같은 태도에 대해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6:19~21 참조).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땅과 하늘의 최고의 보물은 바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라고 믿습니다.

김볼 대관장은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가질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입니다."(대회보고, 1979년 5월, 6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물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자녀를 갖는 것을 미룬다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의 자녀를 위한 계획을 진전시키는 일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충실한 말일성도들은 결코 자녀를 세상이 "자기 성취"로 부르는 것에 대한 장애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성약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시간과 사랑과 희생을 기대하는 그 어린 자녀들과 불가분의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 부부가 몇 명의 자녀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무양할 수 있는 만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부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낳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며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주거를 제공하며 또 그들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한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말일성도 부모

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대가족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가질 수 없거나 원하는 수 만큼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젊은 말일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감에 찬 권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인생의 긍정적인 면들과 의미 및 신성함, 영원한 여행에 있어서의 우리 지체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필멸의 인생을 경험할 필요성, 가정에서 자녀가 있음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기쁨 및 훌륭한 후손으로 말미암아 오는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것들이 가르쳐지고 지켜지는 것을 볼 때 저는 기꺼이 자녀 수에 관한 문제를 그 사람들 자신과 주님께로 맡깁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1983~1984년 브리검 영 대학교 노년의 모임 및 영적인 말씀, 프로보유타:대학출판사, 1984년, 11쪽)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하지만 저는 어떻게습니까?"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훌륭하고 합당한 말일성도들이 자신의 진보에 꼭 필요한 조건과 이상적인 기회들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독신, 자녀가 없음, 사망 그리고 이혼 등이 우리의 이상을 좌절시키고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게다가 집에서 어머니와 주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싶어 하면서도 문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야 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좌절은 단지 순간적일 뿐입니다. 주님은 계명을 지키고 성약을 충실하며 옳은 일을 하고자 소망하는 그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영원히 거부될 축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이 생에서 받지 못한 아주 중요한 많은 축복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합당한 자녀를 위한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불완전한 모든 것이 성취될 복천년 기간에 바로잡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의식들 역시 그렇게 될 것임을 압니다. 저는 가족 관계나 경험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순간적인 변화 때문에 성약을 잊거나 영원한 목적



지로 향한 우리의 시야가 흐리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성약을 맺은 우리들은 명백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선택해서 행하기를 소망해야 하며 이 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처한 상황 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되 지혜롭게 순리대로 행하여야 하니, 사람이 제 힘에 겨우게 행함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모사 이야기서 4:27)고 한 베냐민 왕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낙담할 때마다 이 영감에 찬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병과 고통"까지 떠맡으시고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앨마서 7:11~12)고 하신 구세주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협회의 힘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단합하여 노력함으로써 영적인 상승 작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바 이는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로 효율이나 성과가 증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세에서 천국 회의를 소집하여 우리의 영원한 복지를 위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평의회로부터 시작하여 스테이크와 와드, 정원회, 보조 조직 및 가족 평의회로 확대되는 여러 등급의 평의회로 조직됩니다.

스티븐 엘 리처드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체제의 진수는 평의회를 통한 체제입니다. 저는 평의회를 통한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시기 위해 평의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같이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기로 되어 있는 평의회에서 논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리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대회보고, 1953년 10월, 86쪽)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본부의 여러 평의회와 위원회에서 봉사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보조 조직의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우리는 서로 협의하고 경전을 찾아보고 그 보조 조직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회원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축복해 주고 강화시켜 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기도로서 인도를 구합니다.

교회 본부의 평의회는 많은 면에서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평의회는 서로 협의하며 간단 명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유롭고 개방된 토론을 장려해야 합니다. 평의회는 상호 이해를 궁극적인 목표로 해야 합니다. 스테이크와 와드 평의회는 모든 조직의 역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강화시키는 데 이상적인 기구입니다.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는 주안점은 계획을 세우고 일일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

고 활동을 조정하며 청지기 직분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신권 지도자와 보조 조직 지도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함께 검토하고 회원들이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에서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개인과 가족은 세상의 악과 싸우기 위해 교회로부터 현명하고 영감에 찬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성 보조 조직 회장단과의 평의회 모임에서 자매님들은 저에게 신권을 소유하는 데 관심을 표하는 자매들이 교회에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며,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테이크나 와드 및 그 회원들에게 의미있는 공헌을 하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는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젊은이의 합당성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엘레인 잭 상호부조회 회장님은 "벨라드 장로님, 아시다시피 교회의 자매들은 요청만 받으면 선교 사업을 위해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잘 준비할 수 있는가에 관해 훌륭한 제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워니 워니 해도 우리는 그 젊은이들의 어머니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들의 제안은 성전 방문이나 신권 지도자들이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도 똑같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평의회 모임에서 자매님들의 대단히 중요한 조언을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의회 회원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죽은 자를 구원하는 일에 스테이크나 와드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서로 제안하고 제안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교회나 가족 평의회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 관심사를 나누고 복음 원리에 입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는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들이 어떻게 성찬식의 질을 높이고 경건성을 향상시키며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집중하고 어떻게 청소년들을 강화시키며 독신 부모를 포함한 독신자들을 돕고 또 어떻게 구도자와 새로운 회원들을 가르치고 우정 증진을 하며 어떻게 복음 교육을 향상시킬지 또 그 외의 많은 비슷한 사항들에 관한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평의회 모임을 이용한다면 교회와

총 관리 역원들께서는 본 대회 기간 중에 이 연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간결하고 진귀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의 뜻[과]... 주의 생각[과]...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교리와 성약 68:4)을 들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교리와 성약 서문에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우리는 본 대회 기간 동안 벤슨 대관장님과 헌터 회장님 및 에쉬튼 장로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총관리 역원들처럼 저도 똑같은 영과 명확성을 지니고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기를 원하기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가정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동안에 우리는 청소년들의 도덕성에 관해 토론하기 위하여 각 스테이크 대회를 이용해 특별 훈련 모임을 가져 왔습니다.

참석했던 사람들은 스테이크와 와드 평의회 구성원들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가 받은 질문은 모두 와드 평의회에서 가장 적절히 토론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와드 협의 평의회에서 질문하고 관심사를 말하며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교회의 남자와 여자 역원들은 서로 협력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국을 돌보도록 위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큰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모든 회원들을 축복하기 위해 단합하여 평의회에 함께 나와야 할 책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합하여 노력함으로써 영적인 상승 작용 효과(협력함으로써 능력이 상승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바 이는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로 효율이나 성과가 증대되는 것이며 그 결과는 개인이 각각 이룩한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고대의 도덕이 이솝은 상승 작용 효과의 힘을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서 청중 가운데 그것을 부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원자는 막대기 하나를 쉽게 부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이솝은 부러뜨릴 수 없을 때까지 그 막대기를 여러 개 더 보였습니다. 이솝이 나타내 보인 교훈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협력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것은 혼자 할 때보다 더 우리를 강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이 홀로서 있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있고 부모들에게는 교회와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와 사도와 성신이 있어서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사도 바울은 구세주께서 교회를 조직하시고 사도와 예언자와 역원과 교사를 두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철심인 평원회의 맵 데이비드 스텐리와 윤대력 장로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믿는 것... 에 하나가 [될]”(에베소서 4:12~13) 때까지 그렇게 하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회원들과 그들의 여러 가지 책임들을 다음과 같이 신체에 비유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러이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고린도전서 12:14, 18, 20~21, 26)

경전에는 우리 각자의 부름이 각기 다를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나 모든 부름은 교회의 운명에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름대로 극히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부조회, 조동협회, 청년회, 주일학교 및 활동 위원회를 필요로 하듯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신성한 청지기 직분을 완수하기 위해 신권 평원회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영감 받은 조직에서 개인과 가족의 유익을 위해 필요에 따라 서로를 도우며 함께 일할 역원과 임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남자의 일도 아니고 여자의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따르기만 한다면 가정과 교회 직책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것들에 중점을 두십시오. 우리는 이번 연차 대회 기간 중에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에 관해 분명히 배웠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리를 순수한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또 순수한 그대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경전과 승인된 교과 과정을 사용하여 영으로 가르치십시오. 불확실하고 의문이 있는 주제를 소개하거나 거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가정의 밤이나 가족 회의에서 본 대회의 가르침을 공부하십시오. 그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다통과 혼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계시된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평화와 안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십시오. 계획을 조정하고 일정을 세우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너무나 많은 평의회 모임이 처음부터 그 정도만 하고 끝납니다. 조직의 계획과 보고서를 지루하게 열거하는 것보다는 평의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회원 개인의 필요 사항을 검토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러한 일을 할 때 인비 사항을 지키는 것은 아주



대회에서 명예 총관리 역원이 된 아담 디아가 장로

중요합니다. 평의회 회원들은 모임 중에 토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인비로 해야 합니다.

셋째,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발표하도록 장려하십시오. 평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발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도자와 부모들은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게 대접받고 모든 의견이 다 존중받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번에 한 사람씩 말하게 하여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말을 듣게 하라. 이는 모든 사람이 말하므로 모든 사람이... 교화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8:122)라고 훈계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은 평의회 모임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준비해 주어야 하며 평의회는 지도자들이 최소한 말하는 만큼 듣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참여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한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자기 조직의 영역 내에서 일하고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입장을 단호하게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도자의 최종 결정을 도와주고 지지하는 책임도 중요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토의된 어느 십이사도 평의회 모임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분과 다른 사도들은 취해야 할 조치의 과정에

대해 강한 느낌을 받았으며 대관장단과의 모임에서 각자의 의견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움게도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늘 그렇듯이 그 문제에 관해 그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기록 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분이 결정했던 것과 전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십이사도 회장은 첫번째로 일어서서 ‘형제 여러분, 그것이 본 평의회의 의견과 판단이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동의에 찬성합니다.’라고 말했고 결과는 만장 일치였습니다. 육 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지도자의 지혜가 입증되었습니다.”(복음의 이상, 솔트레이크시티, 임프로브먼트 이라, 1953, 264쪽)

평의회의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평의회 회원들은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랑으로 인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에서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은 다음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 39)

신권 지도자는 “설득과 오래 참음과 은화함과 은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교리와 성약 121:41~42)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서로 이웃으로서 맺는 관계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원리들입니다.

신권 소유자들은 가정이나 교회 부름에서 마치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곤봉을 휘두르듯 신권의 권능을 휘두를 권리가 없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교리와 성약 121:3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늘의 특별한 권세를 주장하고 교회나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신권을 사용하려 드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니고 있는 권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권은 봉사하기 위한 것이지 예측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동정을 위한 것이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돌보는 것이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신권의 권능의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아버지와 신권 역원들은 대부분의 어머니와 보조 조직 지도자들처럼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지도력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사실이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자녀들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봉사할 때 영감을 통해 일치 단결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교회와 가족들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평의회에서 단합과 사랑으로 행할 때 그분들의 사업을 더 훌륭히 해낼 수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겸손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워드/지부 가족 :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일부

버지니아 에이처 피어스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이 어떤 워드에 속해 있는 그 워드에 참여하여 즐기고 그 속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위 성 중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는 이 영감에 찬 장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및 그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의 힘도 모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계속해서 행할 때 크고 거대한 그 무엇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종종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청녀들은 함께 큰 소리로 “**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청녀 주제) 등을 말합니다.

단체 안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강한 단체인 가정 안에서 태

어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간, 가족에 관해 훌륭한 권고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회 조직인 워드 또는 지부 가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엔 워드와 지부, 둘다 같은 목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간단히 “워드”라는 용어로만 사용하겠습니다. 워드는 가족 단위를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단위와 가정 내의 올바른 가르침을 지지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워드는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가르침과 성장의 경험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을 때, 우리들 각자를 위해 일종의 “안전망”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힘과 책임이 있는 또 다른 장소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우리가 워드 가족의 힘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그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새로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첫째, 워드 조직은 소속감을 제공해 줍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노동자의 죽음”이란 그의 산문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그대가 돌아가야 할 때
언제라도 받아주는 곳

나는 그곳을 이렇게 부르리라
값없이 주어지는 곳이라고.

(118~120행)

워드도 “값없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함으로써 워드라는 또 하나의 가정을 갖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처럼 워드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소중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신]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고린도전서 12:13~14)라고 말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지주 함께 모이며... 함께 할 때에... 나오는 자를 막지 말”(니파이삼서 18:22)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몇 달 전에 다른 주에 사는 자녀들을 방문했는데, 그때, 저는 두 살된 손자와 함께 예배실에서 유아반으로 걸어갔습니다. 저의 손자가 활기차게 복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최소한 다섯 명 정도의 청소년과 어린이와 성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녕, 벤자민...” “아아, 벤자민...” “벤자민, 좋은 아침이지?” 저의 마음은 벤자민이 한 개인으로서 한 워드 조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음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평생토록 워드 조직은 벤자민을 위해 가족만으로는 해줄 수는 없는 일을 해줄 것입니다.

1992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본부 청녀 회장인 제니트 시 헤일즈 자매님은 성인 회원들에게 워드나 지부에 속해 있는 청소년들의 이름을 외우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80쪽)을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헤일즈 자매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청남 청녀들에게 성인과 어린이들의 이름을 알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수줍음을 극복하고 매주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반겨주십시오. 벤자민처럼 모든 회원들이 예배실에서 공과 교실로 가는 사이에 자신의 이름을 너댓 번씩 듣는다면 우리들의 워드도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그렇게 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 워드 조직은 들어주는 귀의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은 사랑받기보다는 이해받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내심을 갖고 존중하는 태도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침례 성약이 바로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믿습니다. 남의 짐이 어떤 것인지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남의 짐을 나누어 질”(모사이아서 18:9, 8 참조) 수 있

겠습니까?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또한 사고력을 키웁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평가하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보다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의문을 갖고 찾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들어줄 때 무척 위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이먼과 레뮤엘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 불평하는 분위기를 조장해 주었습니다. 와드의 다른 회원들이 불평과 비난과 부정적인 얘기를 전할 때 우리가 그것을 더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회원들이 서로 불평하는 일은 마치 연기가 피어 오르는 불꽃과도 같아서 일순간에 와드를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은 격려의 분위기를 제공해 줍니다.

베키와 대니의 둘째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베키는 그 후 오랫동안 심하게 아픈 아이를 돌보던 나날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지켜 보시면서 아주 힘들어 하셨어요. 어머니는 저 대신 그 아픔을 짊어지고 싶어 하셨죠. 우리들은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매일 겪는 어려움을 듣고서는 무력함을 느끼시곤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는 제게 ‘베키야, 네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난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격려가 제게는 전환점이 되었죠.”

한 와드 가족으로서 우리는 베키의 어머니가 해주셨던 것처럼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해 줄 때,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해줄 때 터널 끝의 불빛은 더욱 환해집니다. 와드 회원들의 강한 믿음은 종종 한 냄비의 요리나 한 덩어리의 빵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바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뛰어들어 왔습니다.

“엄마, 저랑 다투 놀이 하실래요?”
“조금 있다가 하자.” 라고 대답하면 어

린 아들이 불만스러워 할까봐 어머니는 아들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놀이방에 들어서면서 그녀는 “난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웃으면서 “아니, 하나도 안 어려워요.”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화살을 던지면 엄마는 거기서 ‘잘한다! 잘한다!’라고 말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아주 기억하기 쉬운 규칙이 아닙니까?

“잘한다, 잘한다.”라는 말. 짧은 편지, 악수, 포옹, 이 모든 것들이 와드 안에서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비판은 부정적인 행동을 고정화시키며 변화를 막는 반면 긍정적인 격려는 더 좋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19세기의 영국 소설가인 조지 엘리엇은 “우리가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쉽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는가?”(조지 엘리엇, *미들마치*, [펜킨 출판사, 영국 런던, 1965년], 789쪽)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며 너그럽게 대하고 지지해 주며 긍정적이 됨으로써 우리 와드를 정서적으로 안정된 장소로 만들어 서로의 삶을 좀 더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우리들은 반원들이 서로를 존중해주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친절하고 정중한 방법으로 가르쳐 줄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과 교실 안에서 아무도 우습게 여겨지거나 낮게 느껴지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와드 가족은 피난처입니다.

저는 1992년 여름, LA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살았던 한 젊은 부부 가족을 압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 앉아서 공포에 떨며 그 불길에서 뿜어 나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솔트레이크에 사는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라 그 이상의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퍼킨스 부부가 아기와 함께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와드 회원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파트로 되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회원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자연 재해나 사람들에게 의한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감독과 정원회 지도자들은 태풍에 피해를 입은 가정을 찾아 회원들이 음식과 담요를 전해 주도록 합니다... 여러

분이 어디에 살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상관없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여전히 조직체로 존재할 것이며 질서가 지켜질 것입니다. 즉 와드와 “시온의 스테이크”는 “폭풍우... 를 피하는 대피소”(교리와 성약 115:6)가 될 것입니다.

와드 가족은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재능을 바치는 데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바지를 하겠지만 와드의 조직은 훌륭한 훈련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20년 동안 한 와드에 참석하다가 결혼해서 남편의 학업을 위해 멀리 떨어진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저는 수줍음이 많아서 편한 느낌을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제가 예배실 뒤쪽에 앉아 있다가 주일학교에 참석하기 위해 돌아갔을 때 감독단 중 한 분이 웃으며 제게로 와서 악수로 반겨 주셨습니다. 고츠 형제님은 우리와 친해지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셨던 분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악수를 나누시면서 “버지니아, 뒤에 앉아 계시지 말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버리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옳지만 저는 어떻게 자신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고 부름을 받음으로써 저는 제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자연히 뒷좌석에 앉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 자신감과 편안함도 그것에 비례해서 커졌습니다. 부름이나 책임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는 쉬운 방법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 다른 사람들의 필요 상황에 관심을 집중한다면 자기 자신의 필요 사항은 줄어들 것입니다.

와드 가족은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실험실이 됩니다.

한 정의반 교사가 금식에 관한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반원들의 부모님들과 상의한 후 아이들과 함께 몸이 몹시 아픈 회원인 디블 형제님을 방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들이 디블 형제님을 방문할 때 맥리 자매님은 그들에게 초동협회에서 금식에 관해 배웠던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번도 금식을 해보지 않았지만, 반원이 함께 돌아오는 금식주에 디블 형제님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디블 형제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드러운 말씨로 그 어린이들과 복음과 금식의 원리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요일 날, 금식을 하면서 맥리 자매님과 반원들은 교실에서 무릎을 꿇고 디블 형제님을 위해 기도한 후 금식을 끝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어떠한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설명 이상의 것, 즉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어 왔습니다. 엘마가 "말을 실제로 시험"(엘마서 32:27) 해보라고 했을 때 그는 바로 그런 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맥리 자매님의 정의반 어린이들은 이론과 경험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배우는 훌륭한 실험실인 와드 안에서 금식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맥리 자매님의 정의반처럼 청년들은 일요일 청년반 시간에 복음 원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과정인, 개인발견 기록부에 나오는 가치 경험을 통해 "말을 실제로 시험"해보도록 권고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와드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도, '피어스 자매님, 자매님은 가장 이상적인 와드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 와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와드에 적당한 사람들, 즉 이기적이고 자신만 옳다고 여기며 서투르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인내와 사랑과 용서의 원리를 적용할 사람이나 상황이 없다면 어떻게 와드가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실행하는 참 실습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교한 조직에 속해 있는 참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와드에 속해 있던 그 와드를 사랑하고 그곳에 참여하여 즐기고 그 속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속한 와드나 지부를 시온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와드와 지부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훌륭하고 놀랄만한 일부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욱 완전히 사용하여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행복의 추구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
철심인 정원희 회장단

오늘날 인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행복과 단순한 쾌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항상 행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확실히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은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이서 2:25)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독립에 이바지했던 분들도 행복을 생명이나 자유와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독립 선언서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러한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는 사실들이 자명하다고 믿는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전에 어느 조사 대상에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가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조사 결과를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행복의 한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 조사에서는 돈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예가 떠오릅니다. 그중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이 하신 말씀을 회상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당시 세계적인 감부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디 록펠러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위장병이 있었기 때문에 "백만 장자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끼라도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한쪽 눈을 찡긋하시면서 "물론 록펠러가 그런 말을 할 당시에 그는 백만 장자였지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필요한만큼 충분한 돈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기꺼이 인정하지만 그런 문제를 제외하면 돈은 진정한 행복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훌륭한 목적을 위하여 일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경험이야말로 종종 최고의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저의 아버님은 개인 일지에 할머니께서 1800년대 말에 유타주 브리감시에서 생활할 때의 경험을 기록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가족은 덴마크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입을 옷만 조금 등에 지고 왔기 때문에 무척 가난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때에 신을 수 있는 신발 한 켤레를 몹시 갖고 싶어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할머니는 여름 내내 딸기를 따고 아기 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이 무척 귀해서 품삯이 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신발을 구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은 할머니 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어머니가



지 신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분은 서로 의논하셔서 안식일 오전의 주일학교 시간에는 할머니가 그 신발을 신고, 저녁의 성찬식 시간에는 할머니의 어머니께서 그 신발을 신고 가셨습니다.

윌리엄 조지 조던은 다음 교훈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반드시 성공이나 번영 또는 목표 달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기쁨일 수도 있으며, 선한 목표를 위해서 의지와 성력을 바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비이기심에 뿌리를 두며 사랑이 담긴 행동으로 피어납니다.”(윌리엄 조지 조던, **개인적인 면류관**, 78~79쪽)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행복과 단순한 쾌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그동안 매우 효과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이제 사람들은 쾌락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교활하게도 쾌락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복을 가져 온다고 상념합니다.

오늘날의 텔레비전과 영화의 장면들은 노소를 불문하고 열정을 발산하며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추기는 선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위의 결과는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봅니다. 십대 청소년들의 임신, 낙태, 강간, 어린이에

대한 음란한 행동, 성적인 희롱, 성폭행, 약물 중독, 성병, 알콜 중독, 가정 파괴 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모두 그런 생각의 영향 때문입니다. 많은 통계 수치가 계속 이 사실을 입증하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수 년 전에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님은 마치 우리 시대에 대해 쓰신 것처럼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매우 적절히 묘사하셨으므로 그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제 정신을 잃고 자극적이며 실망스럽기만 한 감각적인 것을 향해 미친듯이 달려갑니다. 가짜와 불량품 그리고 저질의 모조품이 판치는 오늘날, 사탄은 유사 이래로 가장 바쁜 가운데 예나 지금이나 쾌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멋지게 포장하여 ‘행복’이라는 가짜 상표를 붙여서 팝니다. 인간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일에 있어서 사탄을 능가할 자는 없습니다. 그는 수백년간의 실습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 기술로 모든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이끌어 갑니다. 사탄은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지를 잘 압니다. 그는 화려한 포장지로 쾌락을 포장해서 멋지게 장식하여 진열해 놓은 다음 사람들을 모아 서로가 정신없이 밀어제치면서 그 상품을 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잘 포장된 물건을

사가지고 만족스럽게 들고 가서 뜯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멋있는 포장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그는 즐거운 행복을 기대했겠지만 오직 그가 발견한 것은 저질스러운 쾌락으로, 사람을 병들게 하는 행복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임프루브먼트 이라, 17:2, 172~173 쪽)

탈매지 장로님이 수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 당시보다도 오늘날의 상황을 더욱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 심장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듣고 세상 만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좋지 않다는 이치를 통해서 위안을 얻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탈매지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탈매지 장로님의 말씀을 반드시 경고로 받아들여서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더욱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부터 옵니다. 교리와 성약 52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속지 아니하도록 모든 일에 규범을 주노니, 이는 사탄이 땅에 널리 퍼져 있어 백성들을 속이려 다니는 연고니라.”(교리와 성약 52:1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규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바로 이 복음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통해서도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니파이의 동생인 야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수백년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녀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기록을 받아 슬픔...을 느끼지 아니하고 기쁨으로...배우기를 바라 우리는 부지런히 이 말씀들을 이 판에 기록하노라.”(야콥서 4:3)

맞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배워야만 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와 진리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올바른 일을 행함으로써 기쁨으로 배우거나 또는 슬픔이나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니라.”(앨마서 41:10)는 성구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인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될 체벌을 주시기 직전에 “말을 듣지 않으면 몸으로 느껴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훈계를 모두 잘 따랐다면 그런 체벌을 자주 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조부모와 신권 지도자 및 조언자로서 우리는 도덕적인 방종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그토록 널리 퍼지고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크게 우려합니다.

도덕적인 방종과 그런 현상의 증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과 더욱 자주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트와 활동 및 파티에 관해 더욱 구체적으로 요청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특정 장소와 계획 및 교제 모임에 대해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의 외설물이라도 피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건전하지 않은 장소와 상황은 피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높은 도덕적 표준을 정하고 유지하십시오. 열심히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관을 높여서 복음의 원리가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이와 같은



너무 엄격한 권고로 여러분의 열정을 구속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동생이 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마차를 잃은 과자 하나와 바꾸려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한 어린 아이가 자동차들이 마구 달리는 큰길 쪽으로, 여러분의 연륜과 경험으로는 분명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은 두 경우, 모두, 즉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도와주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부모님과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 즉 여러분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파멸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 충고하고 경고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러면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쾌락과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더 탈매지 장로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행복은 훌륭한 음식과 같아서 건강에 좋으며 영양가 있고 맛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이루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솟게 해줍니다. 그러나 쾌락은 알코올 음료처럼 가짜 자극제로 실제로는 허약한 사람을 튼튼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

고, 사실은 죽을 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을 건강한 것처럼 오해하게 합니다.

“행복은 뒤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기 소침해지지 않습니다. 행복은 회개를 요구하지 않으며 후회가 없고 죄책감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쾌락은 너무나 자주 회개와 뉘우침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탐닉하면 타락과 파멸을 가져 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되어 항상 진정한 선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부정함 쾌락의 순간은 살에 박힌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에 가시를 남겨 두어 항상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행복은 경솔한 행동이나 경박한 웃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행복은 영혼의 가장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며 가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행복해서 울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임프로브먼트 이라, 17:2, 173쪽)

우리는 정말 물몬경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 온 땅에 불화가 일지 아니하였고,

“시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짓을 범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니파이사서 1:15-1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의 용서

로널드 이 포울먼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용서로 이끄는 회개의 처음과 끝은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구속주이신 나사렛 예수는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권세에 대해 주님이 직접 간증하신 말씀이 신약전서에 나옵니다(마태복음 9:6; 마가복음 2:10; 누가복음 5:20, 24 참조). 그분의 사도들인 베드로와 바울도 이 진리에 대해 증거했으며(사도행전 5:31; 13:38~39; 에베소서 1:7 참조), 물론경의 예언자들(이노스서 1:5; 모사이아서 4:3; 모로나이서 6:8 참조)과 현대의 예언자들(교리와 성약 61:2 참조)도 증거하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으로써 마음의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간증을 갖지 못하여 죄책감과 비통함과 자신감의 결여 등의 짐을 계속 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심각한 범법을 한 뒤,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과 교회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했던 분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셨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하고 묻자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렇다고 대답을 했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자신이 범했던 범법 행위를 어떻게 버렸고 합당한 신권을 소유한 분들에게 어떻게 고백했으며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보상키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분은 복음의 원리와 교회의 표준대로 살고자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구세주와 그분의 속죄와 희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국한된 회개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님은 아직까지 비통과 후회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자신은 죄의 대가를 아직도 계속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일이 그분 한 분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 크든 작든, 과거의 잘못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구속과 사랑에 관한 아버지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것처럼 괴로워하는 분들은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로 이루어지는 소기의 결과인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평생동안 불필요하게 허우적거리며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값을 치름으로써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거나 또 받아야 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잠재력, 즉 영생을 실현키 위해 계속 해서 마음놓고 발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는 바로 물론경입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몇 가지 살펴 보겠습니다.

이노스는 자신의 부친이 영생에 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숲에 혼자 있었던 경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영으로 굶주림을 느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울부짖어 구하며 내 영육을 위해 심령을 다하여 간구하였고...

"한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시기를, 이노스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나의 죄가 씻겨졌음을 알아,
"주여 어찌 이 일을 이루시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이노스서 1:4~8).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나이까? 우리 모두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물론경을 펴서 이해력을 더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친 리하이는 인간이 시련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범사에 상대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취사 선택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니파이이서 2장 참조).

예언자 엘마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약간씩은 위반하고 있는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해야 하며 그 율법은 공의가 요구하는 바에 순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엘마서 42:14, 18 참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를 둔 것으로, 우리는 그 공의에 따라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나 순종에 따른 대가를 받게 됩니다.

공의는 범법한 자들에게 용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형벌을 줍니다(교리와 성약 82:4 참조).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107:84 참조).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는 공의의 요구와 그에 따르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실 것이라는 아버지의 자비의 계획에 관해서 배웁니다. 이에 대해 경전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함이고,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라"(엘마서 42:15).

구세주의 대속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구속자를 믿고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개인적인 범법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친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성스러운 메시야의 뜻 안에서 성스러운 메시야로 말미암아 오시나니, 그는 자비와 진리로 충만하심이라.

"보라, 주는 죄값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어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법의 뜻을 이루시나니, 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율법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니파이서 2:6~7).

용서로 이끄는 회개의 처음과 끝은 "저들의 신앙을 이루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모로나이서 6:4)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내부에는 우리의 범법에 대한 큰 슬픔과 상한 마음과 회개의 심령, 그리고 개인적인 책임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뒤에는 태도에 변화가 오며 하나님께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불순종, 심지어는 부주의까지도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고자 노력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시며 우리의 생활을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쁜 영감으로 채워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피해를 주었는지라도 모르는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한도까지 보상하려고 합니다.

만일 과거의 행위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해당 관리 직원들에게 고백하고, 필요하다면 교회 선도 조치까지 받습니다. 교회 선도는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 주고 새롭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후회와 비통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한 대가로 오는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9:16) 주님은 또 니파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여 개심하고, 내가 너희를 고쳐 주게 하지 아니하려느냐?"(니파이삼서 9:13)

그러나 주님의 용서의 은사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불완전합니다. 참되고 완전한 회개의 과정을 거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그분의 용서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앎이라."(니파이서 25:23)

무한한 속죄의 희생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부활과 불사 불멸이 조건 없이 주어졌다는 것이며, 둘째는 진술한 조건, 즉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모두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구원과 승영의 복음 의식 및 그에 따르는 성약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어 그 의식을 받아야 하며 계속해서 그러한 성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필멸의 인간인 우리는 우리의 결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니파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약함과 유혹과 과거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는 "내가 의지하여 온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면서도"(니파이서 4:19)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노력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자연스런 결의가 뒤따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과 복음의 원리에 순종하겠다는 새로운 성약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를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



나님의 용서를 받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과 그 결과의 예들이 물론경에 나옵니다.

속죄의 교리에 대해 배웠던 베냐민 왕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범법을 알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써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달라고 다음과 같이 자비를 간청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오니이다.

"...주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신지라, 저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죄사함을 받으며 양심에 평안을 얻으니, 이는 베냐민 왕이 저들에게 이른 대로 저들이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은 신앙으로 인함이라."(모사이사서 4:2~3)

우리는 각자 "내가 용서받은 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의지하여 회개의 단계를 마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세주와 그분의 속죄의 희생에 대해 간증하게 되며,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었던 브르스 알 맥쿱기 장로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위안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신의 권세로 간증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의 관계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충실한 성도들은 성신의 동반을 받을 때 마다 주님 앞에 깨끗해 지고 순결해 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깨끗하지 않은 성소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침례를 받은 후에 범한 죄들을 사함받게 됩니다."(필멸의 메시야: 베들레헴에서 여리고까지, 4권,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80년, 3:40~41, 주 1)

복음의 주 핵심은 구세주의 대속 희생으로서, 바로 이 대속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하나님의 자비도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예수 그

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원리와 의식과 성약에 순종하는 사람들 각자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부활과 영생의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고대의 예언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너희 죄가 주홍같은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이사야 1: 16~18)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사야 53: 4~5)

이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와 그의 동반자 시드니 리그돈은 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된 대로 복음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그와 유사한 영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저는 다음에 나오는 그들의 간증을 우리도 해볼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사 [나]의 죄를 풀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나를] 깨끗케 하셨습니다.

"[나]를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76: 40~42)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의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대한 그 계명
친절한 그 교훈
주님께 짐 풀고
영원한 보호 믿으라
무거운 짐지고
어찌 수고하리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편히 쉬 얻으리
하나님 선하심
날마다 계시니
그 앞에 내 짐 부리고
기쁜 노래하리
(찬송가, 81장)

제가 가르쳐 드리고자 했던 이 진리들에 대해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하신 이름으로 개인적인 간증을 엄숙히 드립니다. 아멘. □

“영적인 지식을 얻음”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적인 지식은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는 것은 영적인 법칙에 바탕을 둔 거룩한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감에 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의 훌륭한하고 의로운 회원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영감과 동기 부여를 받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과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결의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대회에 함께 해주신 많은 우리의 친구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으로 생활에 축복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남미에서 한 젊은이가 제게 “저희가 구세주에 대해 잘 알고 그분의 모범을 끊임없이 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로 그 의미 깊은 질문과, 그와 유사한 다른 여러 질문들을 통해 저는 “영적인 지식을 얻음”에 관한 이 메시지를 들려 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영적인 지식의 중요성에 관해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경전 공부하는 것을 평생 동안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탐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끽하십시오. 교리를 배우고, 그 안에 있는 원리들을 숙지하십시오...

“여러분은 경전 탐구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우신 짐이 아니라 커다란 축복이요,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1쪽 참조)

킵블 대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배움이 보다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초가 없는 세상적인 지식은 곧 우유 위에 뜬 거품이나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킵블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킵블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82년, 390쪽)

영적인 지식을 얻고자 할 때는, 원리들을 탐구하십시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부적인 내용들로부터 그 원리들을 분리하십시오. 원리는 곧 농축된 진리로써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참된 원리는 가장 혼란스럽고 격심한 상황 아래에서도 결정을 분명하게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배우는 진리를 단순한 원리의 말씀으로 조직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지식을 얻을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경전을 탐구하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결과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고 지혜롭게 그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를 구한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

한다.

- 주님의 권고에 귀기울인다.
-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영적인 지식을 얻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기억하고 키워야 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경전과 예언자의 말씀과, 어렵지만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고귀한 결과를 사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언들을 통해 여러분이 평생 동안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머지 않아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이 말씀하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가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거룩한 진리를 철저히 완전하게 배움으로써 세상 어떤 사람의 모범이나 행동도 그들이 얻은 지식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느 누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저의 기초는... 제가 배운...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방법의 원리들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복음 교리,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레트 출판사, 1939년, 3~4쪽)

스미스 대관장님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의 삶을 의로움에 중심을 두게 하고 거친 세파에 휩쓸려 가는 것을 피하게 해줄 그러한 안전한 닻이 필요함니다.

다음 성구는 우리가 왜 거룩한 빛 곧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 105)

“...나 추가... 나의 말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빛이 될 것임이라.”(니파이이서 10: 14)

“...말하는 이는 나니, ... 어두움 속에 비취는 빛이라 나의 권능으로써 네게 이 말을 주노라.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영, 곧 정의를 행하게 하며 겸손히 견게 하며 공정하게 심판하게 하는 영을 신뢰하라.”

“내가 나의 영을 네게 나누어 주려니와 저는 네 마음을 밝혀 주며 네 영육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리라.

“그리하면... 내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의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모두 다 이로써 알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 11~14)

물리적인 빛의 비유는 우리가 영적인 빛의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불을 켜면 그 빛은 어두움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둠이 너무 진하면 마치 등불이 검정 먹물 통속에 빠진 것 처럼 어둠이 빛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빛은 무지와 불신앙의 어두움을 이겨냅니다. 범법이 인생에 심하게 구름을 지을 때, 회개라는 영적인 진리에 초점을 맞추면 강한 빛줄기가 가장 검은 먹물을 관통하듯 어두움을 잘라냅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여러분은 영으로부터 가르침받을 수 있고, 경전과 같이 주님의 영감이 담긴 자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이해의 씨앗은 겸손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싹을 틔우고 번성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는 영적인 지식이 그 열매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 11, 14)

훌륭한 지식을 얻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매혹적인 분야에서 끝없이 무언가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고 나누기 위해 기운을 집중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신중하게 택해야 합니다. 저는 매우 훌륭한 지식

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고자 할 때에도 특히 그렇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세속적, 영적인 지식의 보화는 숨겨져 있으나 그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 적절한 탐구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부터 숨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단지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도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지식의 보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김볼 편,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82년, 389~390쪽)

브리감 영은 요셉 스미스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말과 모범과 영으로 배운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 왔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를 통해 브리감 영은 더 많은 진리를 배울 수 있었으며, 요셉 스미스에게서 개인적으로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행사가 기꺼이 그분의 권고를 귀기울여 듣고 자 하는 태도에 바탕을 둔 진지한 노력과 어우러질 때 커다란 개인적인 발전과 축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계명 하나를 주... 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

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
라.

“주의 말씀은 진리인 연고니, 무엇이
든지 진리이면 곧 빛이요, 무엇이든지
빛이면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
라.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
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

“또한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아버지께 나아오느니라.”(교리와 성약
84:43-47)

영적인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순종
의 역할은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께
서 하신 다음 말씀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계명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기
위한 가장 좋은 한가지 자료는 경전입니
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러
한 훈계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회원들의 간증
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악한
사람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해력이 부족하고 영의
인도를 구하지 않음으로써 위협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부지런하고… 복음의 중요한 진리를…
배우라고 명하셨습니다.… 모든 침례받
은 사람들은 영원히 간증을 가질 수
[있으나]… 연구와 순종과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자 부지런히 노력하는 태도가
없으면 그 간증은 점차 약해지고 결국
사라져버릴 것입니다.”(대회 보고, 1963
년 10월, 22쪽)

심오한 영적인 진리는 한사람의 정신
과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간단
히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부지런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고귀한
진리는 신앙과 큰 노력과 때로 힘든 고
투를 통해 한번에 조금씩 옵니다. 주님
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
니다. 모로나이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
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야야 증거를 얻
겠음이라.”(이더서 12:6)라고 말씀합니
다.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가
르침을 주셨습니다.

“구세주의 피, 곧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써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행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복

음의 모든 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
획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한 약속의 원리
입니다.”(너는 세상의 빛이라, 솔트레이크
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4년, 245쪽)

지식의 뿌리를 펼쳤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순종
하고 기억하고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리
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 **이해:** 각 진리의 요소를 대할 때 우
리는 이전의 지식에 비추어 주의깊게 비
교하여 그것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 판단
해야 합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안
팠으로 점검하십시오. 모든 유리한 관점
에서 그 진리의 요소를 연구하여 숨은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올바른 견해로 그
것을 검증하여 여러분이 성급하게 그릇
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음을 확인합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할 때 더 많
은 이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자세는 진리가 영의 느낌으로
올 때 특히 중요합니다.

· **존중:** 지식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 감사를 포함함으로써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
사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
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
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것이
저에게 더하여지리니 참으로 백배 이상
더해지리라.”(교리와 성약 78:19)

· **순종:** 진리를 순종을 통해 적용하는
것이 그 진리를 영원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값
진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 **기억:**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얻는
강한 영적인 지식은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압도되거
나 망각될 수 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
장님은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브리
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발체 및 배
열,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54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를 기
울여 기록한 지식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내용
은 기록한 곳에 보관하여 여러분이 그것
을 얼마나 소중한 여기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려
분은 더 많은 빛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 **확대:** 이 말씀은 진리에 대한 이해
력을 넓히고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함으
로써 얻는 풍요로운 유익에 관한 것입니

다. 지식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전과 예
언자들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지식을
나누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은 더 많은
빛이 정신과 마음에 들어오듯이 더 많은
이해력을 자주 얻게 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8:2-3 참조)

이제 훌륭한 연차 대회가 끝나갑니다.
대회의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은 직접적
인 수고를 많이 하지 않고서도 영감에
가득 찬 진리를 배웠습니다. 연구하고
신중하게 적용하고, 어느 연차 대회 끝
무렵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 내용을 본받음으로써
여러분이 들은 진리들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여기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오늘
밤 이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제 삶에서 제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
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을 머리속에
간추려 보았으며, 대회가 끝나자 마자
그러한 것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75년 10월,
164쪽)

참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은 거
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께서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배우기
를 바라신다는, 아니 열망하신다는 사실
에 경의심을 갖게 됩니다. 영원한 진리
를 배우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
리 각자에게 주어진 놀랄만한 특권에 대
해 제가 민감하게 말씀드린 것을 활용하
십시오. 영적인 지식은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을 얻는 것은 영적인 법칙에 바탕을 둔
거룩한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감
에 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
중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께 겸손히
간구하십시오. 거룩한 빛을 구하십시오.
구세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그
분의 권고에 귀기울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분은 여려
분이 때때로 어렵고 힘든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 교회를 인도하심을
간중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개인적
으로 알고 계시며 사랑하십니다. 여려분
이 충실하게 순종하며 생활할 때, 그분
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시며,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지
식과 능력을 부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
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다양성을 통한 평등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와 여자에게 상이한 책임을 지정해 주시므로써 이들이 성장하고 봉사하며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갖게 해주십니다.



상 호부조회 자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각기 세대에서 가장 크고 오래되었으며 하나님의 예언자에 의해 유일하게 구성된 조직의 일원입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를 인사로 전해 드립니다. 저희와 여러분의 지역 신권 지도자들은 자매 여러분을 소중히 생각하며 매우 존경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가족과 교회와 지역 사회에 베푸시는 헌신적인 봉사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여러분 각자에게 저희의 사랑을 드립니다.

저희 총관리 역원들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과 위원회의 신권 고문으로 봉사합니다. 상호부조회의 임무는 언어, 문화 및 환경의 다양성과 전세계의 변화

무쌍한 상황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무겁습니다. 신중한 계획이 폭넓은 측면과 세밀한 측면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130개 이상의 국가나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3백만명 이상의 여성들의 다양한 필요 사항을 들어 줄 수 있을 만큼 폭넓고 자매 한분 한분의 필요 사항을 들어 줄 수 있을 만큼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호부조회와 복음은 모든 여성을 포용해야 합니다. 열 여덟 살이건 여든 살이건, 기혼이건 미혼이건, 영어를 쓰건 포르투갈어를 쓰건, 섬에 살건 산에 살건, 자녀가 있건 어린이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자녀는 없건, 고등교육을 받았건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건, 남편이 활동이 저조하건 스테이크 부장이건, 간증이 있건 간증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건 간에 여러분은 모두 환영받고 있으며, 모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재능, 힘, 그리고 헌신을 긴급하게 필요로 합니다. 본부 상호부조회의 2대 회장이셨던 엘리자 알스노우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소외되고 입지가 너무 좁아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자매는 한 명도 없습니다."(우먼스 엑스포우너트, 1893년 9월 15일, 62쪽)

저는 오늘 밤 이해하기만 하면 영생을 추구하고 있는 자매 여러분을 강화시켜 주고 축복해 줄 복음의 기본 원리를 가르칠 때 주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온전하고도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아들이나 딸 모두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

신 구세주께서는 남녀 모두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대속과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살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원리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성결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과 회개와 침례와 성신의 은사는 성에 관계 없이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성전 성약과 성전 축복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업과 영광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 불멸과 영생(모세서 1:39 참조)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며, 우리는 모두 그분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남자와 여자가 영원한 기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평등하긴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있어서 다르면서도 똑같이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온전한 공의로써 모든 자녀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동일하게 주시면서도 우리가 가진 차이를 알고 계시며 심지어는 장려하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남자와 여자들이 그분의 영의 아들과 딸로서 그분과 함께





생활할 때 지상에 사는 동안 수행해야 할 임무를 각기 다르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들에게 신권과 가장의 책임을 주시고, 딸들에게는 어머니의 책임을 주셨으며 더불어 각자에게 그에 따르는 임무까지 주셨습니다.

세상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및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한 말일의 복음의 회복 등은 모두 한가지 단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바,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모든 영원한 자녀들이 필멸의 육신을 얻고, 그런 다음, 도덕적인 자유의 지를 통해 구세주의 속죄에 의해 가능해진 구속의 계획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불사 불멸과 영생의 옷을 입고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족은 남녀가 성신권의 권세에 의해 영원을 위한 결혼으로 인봉된 후에야 하나님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축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이 생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증거는 거의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영의 약속은 우리들 각자가 여전히 성취할 수 있는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충실하게 견딘다면 어떤 축복도 보류되지 않는다고 예언자들은 분명하게 말씀해 왔습니다.

남자와 여자들 모두가 승영에서 가족 생활을 하는 데 합당하게 되기 위해 해야 할 일들 대부분은 공통된 책임과 목표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요구되는 사항의 상당 부분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자는 여자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발전을 위한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자신의 가족 및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지만 봉사의 특정 방법은 때때로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 남자는 신권을 받고 가장이 되어야 하며 온유함과 순결하고 가식없는 사랑으로, 또 구세주께서 교회를 이끄실 때 처럼 의로움으로 가족을 이끌고 양육해야 한다고 계시해 주셨습니다.(에베소서 5:23 참조) 남자에게는 가족의 세상적, 육체적 필요 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교리와 성약 83:2 참조) 여자는 자녀를 세상에 데려 올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으며,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이끌고 양육하며 사랑이 가득하고 영이 충만한 환경에서 가르칠 중요한 임무와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동반자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서로를 지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남자와 여자에게 상이한 책임을 지정해 주시므로써 이들이 성장하고 봉사하며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갖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자와 여자들에게 단순히 가족에 대한 개념만을 영속시키기 위해 상이한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족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세상의 힘든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인 계시를 통한 인도와 상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생애 동안에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못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가장 극진하고 세심한 양육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나 신앙이 비틀거리기도 할 것이며, 오히려 가정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사정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식과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헌신함에 있어서 역경과 시험을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유혹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역경이나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방법을 두고 그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일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 좌절감이나 고난이 깃들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안 좋은 점들을 느끼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교회나 그 지도자들이 여자들에게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은 복음의 체제 안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필멸의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권 지도자도 틀리게 일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절한 감수성을 가지고 청지기 직분을 늘 잘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자나 남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완전한 잠재력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죄의 비참한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가족으로서 살겠다는 신앙과 결의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마련

하신 계획을 따를 때에만 우리는 그분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교회나 가족이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음의 길에 발을 굳건히 디디게 함으로써 발전을 진척시켜 줍니다. 우리들 각자는 우리 개개인의 곤경과 고충에 관하여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깊게 구하여 알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이나 지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성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진지한 간구의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계시는 주님의 선견자요 계시자인 예언자들을 통해서만 옵니다.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복음의 길에 발을 굳건히 디디고 서 있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된 진리에 등을 돌리고 세상의 철학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그럴듯한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에게 영원한 관점을 깨끗하고 맑게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줄 새 가지 간단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 원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복음의 단순한 진리에도 큰 깊이와 심오한 내용이 있으므로 공리 공론적인 신학의 열은 물 속으로 힘들여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호부조회와 방문 교육에서 경전이나 승인된 교과 과정에 있는 순수한 원리를 서로 가르치십시오. 성신이 여러분의 가르침을 인도하고 확인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과 회개와 침례와 회복된 복음의 다른 기본적인 원리들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모든 신권 의식을 받으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경전, 특히 물문경을 연구하고 상호하십시오. 분쟁과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평안과 안전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복음 공부에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교리에 관한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이 놓으신 것으로 그리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교리와 원리들은 입법의 과정이 아닌 계시를 통해서만 수립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으로서, 우리는 그것에 간섭하거나 변경을 가할 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우리의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에 복음의 원리들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이 공의롭고 참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영적인 이해력으로 가득차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며 그대로 즐겨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손을 뻗치십시오. "사랑이 결코 실족하지 아니"(모로나아서 7:46)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곳에 계신 분들을 포함한 자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한두 가지 이유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고통받는 분들에게 손을 뻗쳐서, 그분들의 근심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들의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며, 언제나 그분들에게 자신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대해 이론과 모범으로 그분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자유의지의 원리에 대해 아버지께서 하신 변경될 수 없는 언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경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들의 손을 잡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신앙을 갖고 견디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분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실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상호부조회에 속해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모든 와드와 지부에서 신권의 지시하에 조직됩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지도자들은 계시에 의해 부름받고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권능을 소유한 분들에 의해 성별된 현명하고 영감에 찬 여성들입니다. 저는 감독으로 두 차례 봉사했으며,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와드에 꼭 필요한 한 조직의 일원이고 여러분 개개인의 헌신은 주님의 사업에 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 및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 부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충실하게 봉사하시는 여러분께 그분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딸들인 여러분을 저마다 사랑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길은 바로 현세와 영원을 두고 완전한 공의와 자유로 향하는 길임을 평안한 마음으로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간증드리고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

상호부조회 : 그 지도적인 원리인 사랑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활동적인 회원으로서 여러분이 행하는 봉사는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 감사드립니다. 그 음악을 만드신 분들과 연주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힌찬 찬송가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간증이며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간증입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기를 주장하고 또 그것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크신 선함을 우리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을 위해 조직되고 헌납된 이 단체는 151년 사이에 스무 명의 여성에서 범세계적으로 340만 명 이상의 여성이 가입한 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1842년, 교회 초기 시절에 여성 단체에 대한 생각은 의로운 여성들의 창의력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질의에 대한 결과로써,

하나님의 예언자는 우리가 상호부조회라고 부르는 여성을 위한 독립된 조직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오로지 신권의 권세와 예언자의 권능을 통해 교회의 여성들은 그들을 교회 내에서 하나로 묶어주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도록 조직될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가 창립된 직후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이 열쇠를 넘겨드립니다. 이 단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지식과 지혜가 면면히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단체가 누리게 될 더 복된 날의 시작입니다.”¹

최근에 출판된, 상호부조회의 역사가 담긴 *성약의 여성*이란 책에 상호부조회 조직의 현세적인 임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되곤 했으나 그것의 영적인 임무는 영구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여성 상호부조회가... 영혼을 구원하도록 가르치십시오.”² 라고 말했습니다. 1906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시온의 어머니와 딸들의 영적인 복지를 보살피고 구제하며, 그 누구도 소홀히 여겨지지 않고 불행과 재난과 어둠의 권세와 세상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악마로부터 보호받도록 돌보아야”³ 합니다.

1990년에 엘레인 책 자매가 회장으로, 지에코 오까자키 자매와 제가 그녀의 보좌로 부름받았을 때 저희는 전세계에 있는 우리 자매들을 위해 더욱 “더 복된 날”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겸손히 원했습니다. 우리는 자매들의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

며, 상호부조회가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복지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서 4장 13절의 “영은 진리를 말하며 거짓말하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영은 만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장차 이를대로 이야기하나니, 우리들 영육을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간절하게 나타내 보이시느니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여성들은 자신을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지 않고 의로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구원의 의식을 받는 일에 있어 남성과 완전히 동등한 협력자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가장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들이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으며 성찬을 취하고 성전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거룩한 성약을 맺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물론 여성을 묘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심을 가르치기보다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로니아서 7장 48절에서 “우리가 저와 같이 되게 하고”라고 묘사된 축복을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를 돌아보고 오늘날 이 조직의 구조가 일요일 공과, 방문교육, 가사모임, 복지 및 자선 봉사모임으로 묘사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회원들의 복을 원리에 대한 지식을 키우고 서로를 돌보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한달에 한 시간 반 정도를 사용하는 가사 모임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곳으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가족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으며, 의로운 자매와 사랑을 키우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곳마다 상호부조회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단체는 회원들의 신앙과 성품과 봉사를 통해 활기있게 움직여질 때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래된 워드나 새롭게 시작하는 지부, 어디에 속해 있든간에 활동적인 회원으로서 여러분이 행하는 봉사에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무도 소홀히 여겨지지 않게” 살피면서 영혼을 가르치고 구원하는 일에는 커다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며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호부조회의 모토인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넘어서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며 “내겐 어떤 유익이 돌아오지?”라는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못된 일로 너희를 이용...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니파이삼서 12:44)고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배우도록 명하셨던 그 비이기적인 사랑은 참으로 높은 단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배울 때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실제로 그러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어떤 자매님이 저의 집에 와서 기만과 학대로 망쳐진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슬픔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성인이 된 자녀들 때문에 마음아파 하였는데 자녀들은 혼란에 빠져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세 번씩이나 워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였으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도 봉사하였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러한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에게 닥친 비극에 직면하는 데에는 너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마침내 그 자매님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려 그리스도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견뎌내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예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 자매님은 마음의 고통이 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그 자매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보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과 자녀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두 사람은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그녀)에게 모든 것이 잘되리다”(모로니아서 7:47)라고 모로니아가 한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 자매님은 참된 사랑을 키우기 위해 채질당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을 바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 자매님은 힘을 키우고 화평을 얻어 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알바니아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제 친구 셀리즈와 샤론 스미스의 경험에서도 비이기적인 사랑의 힘에 대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셀리즈는 소아과 의사였고 샤론은 간호원이었는데 그들은 알바니아에서 봉사한 최초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부로서 46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들 각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을 발휘할 충분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셀리즈는 어린이를 위한 종합 병원의 임상 지도자로 일했습니다. 샤론은 영양실조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일하도록 지명 받았는데, 그곳에는 젓먹이에서 두 세 살된 연령의 어린이들 80명이 영양 부족과 다른 심각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방대한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좀처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는 부모들이 처한 가난과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곳에 버려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샤론이 도착했을 때 그 어린 환자들은 무감각하고 둔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포대기에 싸인 채 침대에 생기없이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와 간호원들이 전문가로서 그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훌륭하게 먹이고 씻기지만 그 모든 것이 엄격한 일정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나 개인적으로 보살펴 주는 일 같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샤론은 열 명의 어린이를 돌보도록 지명받았습니다. 그녀는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애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샤론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샤론은 아이에게 우유를 줄 때에 우유병을 받쳐주는 대신 아이를 안고 다른 아이들을 칭찬하는 애기를 해주었습니다. 2주일도 안되어 아이들은 샤론을 쳐다보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6주일 후에는 누구라도 그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기 시작했으며 몸무게가 늘었고 개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샤론은 아이들에게 팔다리 운동을 시키고 일어나 앉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샤론이 돌보는 아이들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보고 의사들은 샤론의 힘이 80명의 어린이들 모두를 돌볼 수 있도록 그녀의 시간표를 변경시켰습니다. 어린 환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샤론이 돌보아 주었던 시간으로 말미암아 모두들 각자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삶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의 선함과 여러분이 봉사하고 충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원리가 훌륭하다는 것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신권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며 여러분의 능력을 사용하여 필요 사항을 분석하고 용기 있게 나아감으로써 여러분은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이 축복을 받으며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됩니다. 상호부조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회복된 복음에 필수적인 의식을 받음으로써 온전한 축복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확실히 모든 사람을 “더욱 복된 날”, 즉 영생과 경건함으로 인도해 갈 “지식과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질 멀베이 데르, 제너스 러셀 캐논, 모린 얼렌 바호 비셰르, *성약의 여성: 상호부조회 이야기* (솔트레이크시티, 메저렛 출판사, 1992), 47쪽.
2. 같은 책, 48쪽
3. 같은 책

구세주께로부터 나오는 힘

지애코 엔 오까자키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자매 여러분, 참된 힘의 근원인 구세주를 찾음으로써 자신을 강화하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을 만나고 단지 비디오로 서지만 신권 지도자들의 도움과 지시 하에 봉사를 통해 교회 전역의 우리 모든 자매님들과 연결되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저는 예언자와 사도들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주어지는 지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저는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에 관하여 여러분과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께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에 관해 교회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 기도를 하고, 가정의 밤을 갖고 정기적으로 경신 공부를 하는 일”과 같은 것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중요한 일들에 더하여 여러분 자신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즉 구세주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함으로써 가족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가족이 나오는 곳으로서, 강한 개인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전세계에 있는 수많은 예배실이나 교회 학교 또는 세미나나 신학 연구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시설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수단으로 단지 참된 힘이 되는 것을 위한 보조물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 교회의 힘은 회원들의 마음과, 이 사업의 진실성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과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엔사인, 1993년 7월호 4~5쪽)

모든 우리 여성들은 성전에서 활동적인 신권 소유자와 결혼하여 순종적이고 충실한 자녀들이 있는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1980년에 미국 가정의 단지 14퍼센트만 남편은 일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계속 아이들을 돌보는 전통적인 가정의 이미지와 일치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믿을 만한 통계는 미국 내에 있는 말일성도 다섯 가족 중 한 가족만이 부부가 성전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팀 비 히튼, “중요한 통계”, 물론 이즘 대백과[뉴욕: 맥밀란사, 1992], 4: 1532)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이 이미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처럼 말일성도의 가정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정들은 가족 개개인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강화시켜 주는 의로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두 장의 누비 이불이 있습니다. 둘 다 손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것으로서 기분 좋게 둘러쓰거나 손자를 싸주기에 알맞은 것들입니다. 이 한 쪽의 누비 이불을 보십시오. 그것은 튼튼하고 다음 무늬를 예측할 수 있는 하와이 지방의 누비 이불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반쪽을 보고 나머지 반쪽의 무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도 행복한 방향으로 순조롭게 예측할 수 있는 무늬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 두번째 누비 이불을 보십시오. 이 양식은 미치광이 누비 이불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어떤 조각들은 똑같은 색깔이지만 같은 크기의 조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 야릇한 모양입니다. 그것은 기묘한 각도에서 합쳐지고 있습니다. 이 누비 이불의 무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도 예측할 수 없고 전형적인 양식이 없으며 단정하거나 질서가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각들이 함께 단단히 꿰매지지만 한다면 누비 이불을 만드는 데 단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누비 이불 모두 우리를 따듯하고 포근하게 해줄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아름다우며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토대로, 성약을 맺고 지키며 계명대로 살고 사랑으로 함께 일하기만 한다면 물론 여성이 되는데도 단 하나의 올바른 방법이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가정 환경과 처지에 직면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것에 대처하는 데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구세주의 사랑과 그분의 속죄의 권세에 대한 신앙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손을 구세주께 의심없이 맡긴다면 우리는 그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성찬 기도의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그런 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또 모든 다른 문제들은 영적인 생활을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긴급성에서 볼 때 이차적인 것들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자주 진지하게 기도하고자 할 것이며 주님의 영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로마서 8:26~27 참조) 우리는 봉사하고자 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 부름에 필요한 지혜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자녀와 부모 및 친구들과 사랑이 넘치고 존경에 찬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자녀의 필요 사항 때문에 난처할 때마다 험명한 고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받을 것이며 또 그것을 수행할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독한 우정을 나눌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권고가 우리의 필요 사항에 참으로 적절한 것이라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 이상에 대한 분명한 시현을 볼 것이며 참을성 있게 현실적인 한계에 대처할 때조차도 그것을 열망할 것입니다. 구세주에

대한 신앙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강한 가족은 강한 개인을 만들 것이며 그 개인은 다른 가족 회원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번갈아 가며 서로를 고무시켜 줍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일을 통해 이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할 당시 저는 말일성도였고 남편은 조합 교회 신자였습니다. 저는 비회원과 결혼하는 것에 관해 염려했지만 우리는 구세주에 대한 강한 신앙을 나누었으며 저는 남편이 계속해서 진리를 찾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열 달 후 남편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유일한 말일성도였지만 서로를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에드가 델기세텍 신권을 받았을 때 신권의 개념은 우리 두 사람에게 다 강력적이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오까자끼 집안에서 첫번째 신권 소유자였으며 저에게는 물론 신권을 소유한 친척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권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에드의 선함과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도록 교회에서 그에게 부여해 주었던 많은 기회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에드는 결코 그의 신권을 그저 수여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항상 어떤 특권이었으며 감사와 겸손함으로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부름에 대해 그를 지지해 주는 일과 저의 부름에 대해 남편이 저를 지지해 준다는 느낌은 우리 결혼 생활에서 일어난 협력의 일부였습니다.

1988년에 우리는 선교사 위원회의 집견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부름이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전에 심장에 영향을 미친 발작이 일어났던 에드는 자신이 부름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알기 위해 먼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에드에게 그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드는 바다 건너에서의 부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무척 실망해서 의사의 지시를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에드의 부름에 대해 그를 지지해 주었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후 저는 본부 초등학교 임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으며 일 년 반 후에는 현재의 상호부조회



상호부조회 대회의 연사들: 본부 상호부조회의 회장인 앨레인 엘 잭 자매, 보좌인 지에코 앤 오까자끼 자매와 에일린 에이저 클라이드 자매와 진 비 이노우에 자매

회장단 보좌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희와 알고 지내셨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판장님은 저를 성별하실 때 "에디, 지에코는 이제까지 당신이 감독단과 선교 부장으로서 또 지역 대표로서의 신권 부름을 수행할 때 당신을 지지해 왔어요. 이제는 당신이 그녀를 지지해 줄 차례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드는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에드는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에드와 저는 한 가족으로서 복음 속에서 발전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그 힘을 지닌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섬세한 며느리가 우리 가정에 가져다 준 그 힘을 기쁘게 누렸습니다. 또 우리는 손자들이 태어나 스스로 가족 생활의 궤도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빈사 상태에 있던 작년보다 더 우리 아이들이 지닌 그 힘에 대해 감사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 세 명은 서로 격려해 주고 의논하였지만 저는 의사들 및 병원측과 함께 일할 때 켈이 앞장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에드가 임종하였을 때 장례일정을 잡고 이어서 행해져야 할 법적인 절차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는 봄이 주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장례식을 계획할 때는 제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충격과 슬픔 가운데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할

때 우리에게는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야 했을 때 다른 한 명이 앞장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의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위기에서 먼저 방향을 바꾸는 것은 우리 가족들에 대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처한 가정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은 구세주와 그분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가정 안에 그 힘이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통해 그 사랑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 신앙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때때로 우리를 강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닥쳐 올 어려움과 시련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누가복음 1:37)고 약속해 주고 있으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구세주로부터 나오는 힘에 대한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예언자들의 기쁨에 찬 다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고양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모세는 기쁨에 넘쳐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출애굽기 15:2)고 외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사무엘하 22:33)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서 41:10)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세주의 힘에 대한 이러한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백성들에게 제가 읽어 드리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해주었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찌어다... 항상”(역대상 16:11)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시편 84:5, 7)

자매 여러분, 참된 힘의 근원인 구세주를 찾음으로써 자신을 강화하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시며 여러분의 의로운 소망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힘과 일상적인 동반자와 최막대와 지팡이로 삼으십시오. 그분께 위로 받으십시오. 우리들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은 다른 사람들, 즉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친구들과 복음 속의 자매들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 힘은 여러분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그들로부터 여러분에게로 되흘러 올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걸쳐 제 입장은 변화해 왔습니다. 저는 독신 여성으로 그 다음엔 비회원의 아내로 그 다음엔 성전 인봉을 받은 배우자로, 어머니로 시어머니로 할머니로 지냈으며 현재는 미망인으로 지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거치면서 구세주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저의 신앙은 저의 가정에 구세주의 임재하심과 권세를 느낌으로써 보상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항상 이상적이지만은 않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5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저는 진심으로 구세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자비와 치유의 권세와 완전한 사랑을 베푸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의 사업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가족의 일부로서 우리 가족과 함께 영생을 누리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 주니까!

저는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

“기운을 내어”

진 이노우에 자매

유타, 프로보 에지몬트 스테이크, 프로보 16와드

일에 관한 결정과 어머니로서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해 자신에게 정직하고 주님께 겸손하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열 일곱 살 때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를 성전에 데려가 줄 수 있는 동반자를 찾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며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한동안 공부를 계속한 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십대일 때도 여전히 독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축복사의 축복에서 주어진 약속이 이 생애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당하고 충실하다면 결국에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임을 알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저는 결혼과 가정 생활이 제가 원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어려운 시기에 저는 자주 성전에 갔습니다. 한번은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저의 행복이 시기적절한 결혼과 가정

생활의 축복이나 인생의 다른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 각자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아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경전은 “그러므로 기운을 내어 두려워 말라. 나 주가 너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68:6)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저는 정말 결혼하였습니다. 저는 서른 네 살이었고 남편은 서른 일곱 살이었습니다. 우리는 빨리 자녀를 갖고 싶었지만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아이가 주님을 섬기도록 헌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서른 일곱일 때 첫 아기로 딸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또 한 명의 아이를 더 주시기를 간구하였으며 그 아기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거의 미혼 살이 되었을 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자녀를 구했지만 받지 못하였습니다.

에필리는 지금 열 살이 다 되었고 대니는 일곱 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맺은 약속대로 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말일성도 부모들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고 믿으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저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관해 배울 것이 많지만 상호호조회는 제게 자신의 경험과 친구 및 가족 회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진 생각을 나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하지만 필연적으로 오게 될 어려움에 대해 도와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정말 기운을 낼 수 있다는 확신과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배웠던 한 가지 사실은 어머니

가 되는 데는 어려운 결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첫아이가 태어날 당시 저는 그때까지 약 12년간, 처음에는 교사로서 후에는 법률가로서 일해 왔습니다. 저는 일을 계속해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의 수입은 우리 형편에 충분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새로운 부모들보다 스무 살 정도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가 아이들을 다 키울 때까지 둘 다 살아 있을지 또 만약 제가 혼자 남게 된다면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선교사 부름을 받을 때 써야 할 돈을 벌기 위해 60세에 직장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예언자였던 킴블 대관장님은 교회의 자매들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떤 여성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같은 영원한 사명을 소홀히 하게 할 이차적인 일에 주의를 돌리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기도하십시오.” (스펜서 더블류 킴블, *앤사인*, 1979년 11월호, 103쪽)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만 하는 여성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기도한 후 저는 남편에게 신권 축복을 부탁했습니다. 그 축복은 제가 가족을 위해 훌륭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지만 어떤 결정인지를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결정이 남편과 자녀와 제게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영감을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계속 가정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며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 보고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만 할 시간이 닳칠 수도 있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며 또 고용에 적합한 기술을 지니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을 신뢰해야 하고 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선 순위를 세우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계속해야 하는 과업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교회 자매들 역시 가족의 복리에 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자의 권고를 숙고하고 성신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들의 결정이 당연히 다르고 다양하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해야 하고 또 신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에 관한 결정과 어머니로서 내려야 할 무수한 결정에 대해 자신에게 정직하고 주님께 겸손하다면 우리는 용기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디모데후서 1:7)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순위를 세우려고 노력하면서 저는 우리에게겐 거의 항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서 단 두 명의 자녀와 지내는 어머니인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나 대가족을 가진 여성 또는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독신 부모에게는 그 일이 얼마나 더 많을지요! 저는 우리의 제한된 시간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으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없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도 없고 무엇을 가장 가치있게 여겨야 할지도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종종 어렵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예언자를 불러 주신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주시는 권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머

니가 자녀의 삶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그분의 권고를 다시 살펴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안하신 한 가지 권고를 실행했던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여느 예언자들처럼 우리에게 매일 가족끼리 경전을 읽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악기 연습을 하는 데 저는 그들이 비교적 주의를 산만하지 않은 아침에 연습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때때로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나서기 전에 악기 연습을 마치고 옷을 입고 아침 식사를 하고 경전을 읽을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통 등한시 되는 활동은 경전 읽기였습니다.

어떤 때는 한두 구절을 읽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학교에 갔다 와서 하자고 하고서는 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올해 저는 그 우선 순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음악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해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없는 아침 나절에는 경전을 공부하고 음악 연습을 뒤로 미루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예언자의 권고를 따랐을 때 저는 큰 평화를 느꼈다는 것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경전과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힘과 용기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니파이처럼 우리도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니파이일서 3:7) 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그 자녀의 개인적인 필요 사항에 관련된 지시를 주실 것임을 가르쳐 주었던 경험들입니다.

제가 드린 가장 열렬한 기도 중 몇 가지는 자녀를 위한 축복과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인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응답은 흔히 계획된 행동 방향에 대한 평화로운 확신으로 오지만 저는 이따금 명쾌한 새로운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더 이상의 일도 해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여성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걱정합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인내하지 못하거나 축복해 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했는지도 모르는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가 저지를 수도 있는 잘못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저의 축복문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여성들에게 주어진 위대하고 중요한 일”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가 1:39)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이 특권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관심에 대해서 또 예언자와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에 대해 친절하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증드립니다. 시온의 어머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자매로서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는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네 발의 행할 침경을 평탄케 하며”

엘레인 엘 잭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를 각자는 삶의 고난에 관하여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복음에 대한 저의 느낌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저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참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위대한 사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진실로 큰 축복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우리의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딸로서의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약의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의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은 주님과 맺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성약은 적의 세력을 막아 주는 요새요 강화시켜 주는 실체로서, 또한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목적을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작용합니다. 교회의 여성들과 남성들은 이 생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간증을 세상에 전합니다. 비록 매우 힘들고 험

난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으며, 따라서 지체하거나 주저할 여유가 없습니다.

잠언에는 다음과 같은 훈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발의 행할 침경을 평탄케 하며”(4:26) 교회 안에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힘써 노력하”라는 권고를 받는데 여기에는 “훌륭한 대업”(교리와 성약 58:27)이라는 조건이 따릅니다.

오늘 저녁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훌륭한 대업”입니다.

성약의 여성이 된다는 것은 성스럽고 거룩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받아서 이 지상에 구세주의 길을 따르기 위해 온 것입니다. 물론 샘에서 니파이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침례받을 때 주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모사이사서 18:8-10 참조).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우리의 성약은 신문 지면을 가득 채우는 많은 사람들의 발언과 화면을 가득 덮은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도덕관과 계속 수정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뿌리채 흔들려 버린 많은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입니다.

성약의 여성으로서 우리는 승명과 하늘 왕국에서의 영생을 수반하는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한 결의를 하면 평안과 사랑, 소망과 고상함, 경건, 기쁨 및 순종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위대한 사업

을 이루게 된다고 우리의 영혼에 부드럽게 말해 주고 우리에게 재확인해 주는 고요한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늘날 인간의 권세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속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열의를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여성들은 영에 속한 것들을 갈망합니다. 여성들이 상호 부조회에 참석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영적인 양식을 취하기 위해, 즉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은 이 간증이 자람에 따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우리의 대업을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위 도처에서 사탄이 맹활약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한 그 사탄은 성공을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왜곡시키기 일췌인데다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운데에는 쇠막대를 굳게 잡고 있는 이도 있는가 하면 아마 무의식중에 손가락 몇 개만으로 쇠막대를 잡고 가다가 스크르 미끌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난 아니야"라고 말할 이도 있겠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내고자 하는 성급한 서두름속에서,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속에서, 또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정당화하는 중에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으며, 그분의 반차를 이해하고 있습니다."(밀레니얼 스타, 1871년 9월호, 578쪽) 이러한 성약에는 "이 세상 일을 제쳐 놓고 그보다 나은 일을 간구하라."(25:10)고 교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는 엠마 스미스에 대한 권고의 말씀도 포함됩니다.

저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고 좁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이사야 35:8)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주님께서 이 교회의 여성들에게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거룩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어린 다섯 자녀를 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척추에 부상을 입어서 꼼짝없이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편지에서 밤낮으로 자신을 간호해 준 같은 와드의 "작은 사랑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밥을 먹여 주고 수선해야 할 것들을 다 고쳐 주고 제 눈의 눈물도 닦아 주고, 밤에는 치료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런 일이 힘들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랑을 배우고자 했으며 참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받는 때도 있지만 주님의 도움 외에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이다호주에 사시는 93세 된 자매님 한 분은 그분의 인생 행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행복도 맛보았지만 큰 피로움과 슬픔도 겪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할머니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를 불러 내리실 수 있었지만, 그분의 여정은 자주 쓸쓸했으며 그분은 결국 홀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업은 유일하고 명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라"(니파이삼서 27:13)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을 신중하게 지키고자 할 때,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고난 중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자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 목적 의식, 복음에 대한 헌신, 거룩한 신권을 통해 얻는 축복 등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가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분야 네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진 여성들입니다.

우리 내부에는 우리를 의로움의 길에서 인도해 주는 주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유혹과 선결함 사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으면서 영적인 순간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음 속에 간

직합니다. 우리는 평안이 박수 갈채나 진화 자동 응답 장치를 들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드럽게 속삭이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들을 때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덜 기울이고 하늘에서 들리는 속삭임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영은 자아(self)와 똑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은 이기심이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 교만이나 자기 기반으로 고양되지 않습니다. "영으로 충만함에 영생임을 기억하라"(니파이이서 9:39)

우리의 영성은 서로에 의해서도 재충전됩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보이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비난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질투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십시오.

저는 인도의 방갈로르 지방에 사는 소수 자매님들의 그룹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한달에 한 차례만 상호부조회 모임을 함께 갖습니다. 그 이외의 주에는 가정에서 소규모의 그룹에서 만납니다. 저는 작년에 그분들을 방문했을 때, 주님의 영이 얼마 안되는 그 여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금방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입한 지 2년 정도 되는 30세의 회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시고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 간증하셨을 때, 저는 서로에게 느껴지는 사랑에 깊은 감명을 받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여성들입니다. 저는 오늘 밤 느끼는 것처럼 주님의 영을 그 때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적 의식을 지닌 여성들입니다.

구약전서에서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하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미가 4:5).

이 복잡한 세상에서 가정, 가족, 결혼, 일, 자녀, 나이, 죽음 등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비천할 때 어떻게 주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현명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압박받을 때 어떻게 인내심을 가질 수 있고 거부당할 때 어떻게 존중받게 할 수 있습니까?

자매 여러분, 주님께 향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행복과 복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열심히, 자주 걸을 때, 여러분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우선 순위를 보십시오. 성약의 백성인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마음 가까이 두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가족과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성장기의 어린 자녀를 둔 분들에게는 그 자녀들이 우선 순위에 속합니다. 저는 생계 유지나 빨래나 요리창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이들에게 외로운 원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취향에 앞서 자녀들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 하나가 길에서 떠나 방황할 때 우리가 그 아이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되돌아 오게 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막내 아들인 고든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고든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데다 자신감마저 잃게 되었을 때, 저는 “내가 여기 있잖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팔로 안고 “내가 여기 있잖아.”하고 위로해 주곤 했습니다. 제 말을 들으니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마태복음 28:20 참조)

주님은 예배를 볼 때나 성전에서 의식을 받을 때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침대 곁에서 무릎 꿇었을 때에만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 대로 생활할 때 “바로 곁에” 계시십니다.

우리는 헌신하는 여성들입니다.

저는 필리핀의 한 자매님 댁을 방문했을 때 헌신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자녀가 여덟인 그녀의 가족은 지주대 위에 니파로 만든 방 두칸 짜리 오두막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문

까지 올라간 뒤에, 저는 곧장 한쪽 구석으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에는 이동식 재봉틀이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재봉틀은 320짜짜리 신형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것보다도 더 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님은 그 재봉틀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가족이 인봉을 받으려 성전까지 갈 돈을 벌기 위해 그 재봉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재봉질을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막내는 성약의 자녀로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맺은 성약을 지키는데 전념했으며 충실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찾아 온 신권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교리와 성약 82:3) 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노력으로 인해 영원히 인봉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권의 축복을 알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일에 우리가 밝게 보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상식, 좋은 생각, 의로운 성향 이상의 것을 축복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대제사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 지상의 모든 참된 신권의 권능과 권세의 근원이다.”(물론 *백과사전*, 뉴욕: 맥밀란, 1992년, 1133쪽)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로 임명하신 분들을 우리가 믿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뢰하며,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부 상호보조회 회장으로서는 제가 신권을 소유하신 지도자님들의 지시에 따라 봉사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음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하나라고 부르실 수 있도록 한 백성으로 굳게 뭉쳐 서야 합니다. 존 에이 윌트 장로님은 의로운 원리에 함께 힘을 모아 헌신하는 남자와 여자에게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권의 의식에서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보조자가 아니라 동등한 동반자입니다.”(*상호보조회지*, 1943년 6~7월, 373쪽)

여성과 남성들은 구원에 필수적인 모든 신권 축복, 즉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고 성찬을 취함으로써 성약을 새롭게 하고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는 축복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약에 여성들로서 우리는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위해서도 권고된 교리와 성약의 다음 지침을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이며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이니, “...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21:35~36)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발의 행할 침례를 평탄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훌륭하신 보좌님들과 이 충실한 자매가 오늘밤 이 자리에서 간증드렸듯이 주님을 바라 보고 지시와 인도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께서 직접 전하신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삶의 고난에 관하여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을 알기위해 주의를 기울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음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벨라드 장로님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에게 그 것을 변경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특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 메시지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메시지들은 주님께서 종들을 통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분들의 간증에 저의 간증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딸들이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목적은 가장 힘든 시대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노력을 보고 기뻐하는 때에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행하기 위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하늘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하늘 왕국에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약의 여성들이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을 택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아래의 도표는 교회 회원, 부모 및 교사가 복음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 도표는 1994년도 성인 교과 과정과 관련된 1993년 10월 반연차 대회 말씀을 소개해 주는 것이다.

| 1994년 멜기세덱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 |
|----------------------------|----------------------------------|
| 공과 | 연사 |
| 1 | 몬트 제이 브러프 |
| 3 | 리차드 지 스코트 |
| 4 | 스펜서 제이 콘디 |
| 5 |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벤 비 뱅크스 |
| 6 |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존 에이치 그로버그 |
| 10 | 엘 톰 페리; 더블류 유진 헨슨 |
| 13 | 에프 엔지오 부쉬 |
| 14 | 스펜서 제이 콘디 |
| 15 | 에이치 버크 피터슨 |
| 18 | 휴 더블류 피녹크 |
| 19 |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애드니 와이 고마쯔 |
| 20 | 로버트 디 헤일즈 |
| 21 | 조 제이 크리스티슨 |
| 22 | 델린 에이치 옥스 |
| 23 | 제임즈 이 파우스트; 에이치 버크 피터슨 |
| 26 | 야곱 디야거; 제프리 알 홀런드 |
| 27 | 존 에이치 그로버그 |
| 29 |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야곱 디야거 |
| 30 | 엠 러셀 벨라드 |
| 31 | 데이비드 비 헤이트 |
| 34 | 로날드 이 포울맨 |
| 35 | 리차드 지 스코트 |
| 36 | 조셀 비 위스린 |

1994년 상호부조회

개인 학습 지도서

영적인 생활

| 공과 | 연사 |
|----|---------------------|
| 2 | 리차드 지 스코트 |
| 5 | 닐 에이 맥스웰; 스펜서 제이 콘디 |

| | |
|----|---|
| 6 | 러셀 엠 넬슨 |
| 7 | 엘 톰 페리; 조셀 비 위스린; 휴 더블류 피녹크 |
| 12 | 엘 톰 페리; 조 제이 크리스티슨; 스펜서 제이 콘디; 에이치 버크 피터슨 |
| 13 | 에프 엔지오 부쉬; 더블류 유진 헨슨 |
| 18 | 제프리 알 홀런드 |

가정 관리

| 공과 | 연사 |
|----|----------------------|
| 2 |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
| 10 | 벤 비 뱅크스 |

가정 및 가족 교육

| 공과 | 연사 |
|----|---|
| 1 | 보이드 케이 패커 |
| 4 | 보이드 케이 패커; 델린 에이치 옥스 |
| 7 | 애드니 와이 고마쯔 |
| 8 |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벤 비 뱅크스; 로버트 디 헤일즈 |
| 10 | 리차드 지 스코트 |

자선봉사/사회관계

| 공과 | 연사 |
|----|------------------------|
| 4 | 조 제이 크리스티슨; 에이치 버크 피터슨 |
| 5 | 데이비드 비 헤이트 |
| 8 |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슨 |
| 9 | 에이치 버크 피터슨 |
| 10 | 벤 비 뱅크스; 로날드 이 포울맨 |

1994년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 - 구약전서

| 공과 | 연사 |
|----|---|
| 3 | 보이드 케이 패커; 러셀 엠 넬슨; 조셀 비 위스린; 스펜서 제이 콘디; 애드니 와이 |

| | |
|----|--|
| 4 | 이 고마쯔 보이드 케이 패커;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제프리 알 홀런드; 로버트 디 헤일즈 |
| 5 | 제프리 알 홀런드 |
| 8 | 에이치 버크 피터슨 |
| 10 | 제임즈 이 파우스트; 에프 엔지오 부쉬; 존 에이치 그로버그 |
| 14 |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
| 16 | 엘 톰 페리; 휴 더블류 피녹크 |
| 19 | 조셀 비 위스린; 카를로스 에이치 아마도 |
| 20 | 몬트 제이 브러프 |
| 23 | 리차드 지 스코트; 더블류 유진 헨슨 |
| 28 | 버지니아 에이치 피어슨 |
| 29 | 엠 러셀 벨라드 |
| 31 | 데이비드 비 헤이트; 야곱 디야거 |
| 32 | 벤 비 뱅크스; 로날드 이 포울맨 |
| 36 | 조 제이 크리스티슨 |
| 39 |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
| 43 |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

복지 사업

주제 연사

인생의 시련을 견디며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1993년 10월 2~3일에 개최된 제163차 반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발췌함.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저는 요셉 스미스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시현이 참되다는 간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년 요셉이 무릎을 꿇었던 그 숲에 서서 첫번째 시현이 있었다고 한 그의 말대로 첫번째 시현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영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친구처럼 되기 쉬우며, 그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도 함께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과 말투는 흔히 인격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마음속의 느낌과 성품과 간증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회의 훌륭한 청소년 여러분도 끊임없이 옳은 일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더욱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옳은 일을 택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줄 것을 찾거나 만드실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하기로 끊임없이 선택한다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는 분들의 생활을 잘 관찰하여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중요한 모범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일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주어지는 영감과 느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진 헨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앨마서 41:10)는 성구를 기억해야 합니다.”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성공적인 가정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의

사랑과 도움을 기초로 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동생들이 필요로 하면 언제라도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의 영웅입니다.”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칠십인 정원회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은 없으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정직해지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관리 감독

“저는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저희 누이와 고모들을 자상하게 보살피시는 모습에서 여성을 존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식탁에서 맨 먼저 일어나 식탁을 치우셨습니다. 제 누이와 저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매일 밤 설거지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함께 부엌을 치우시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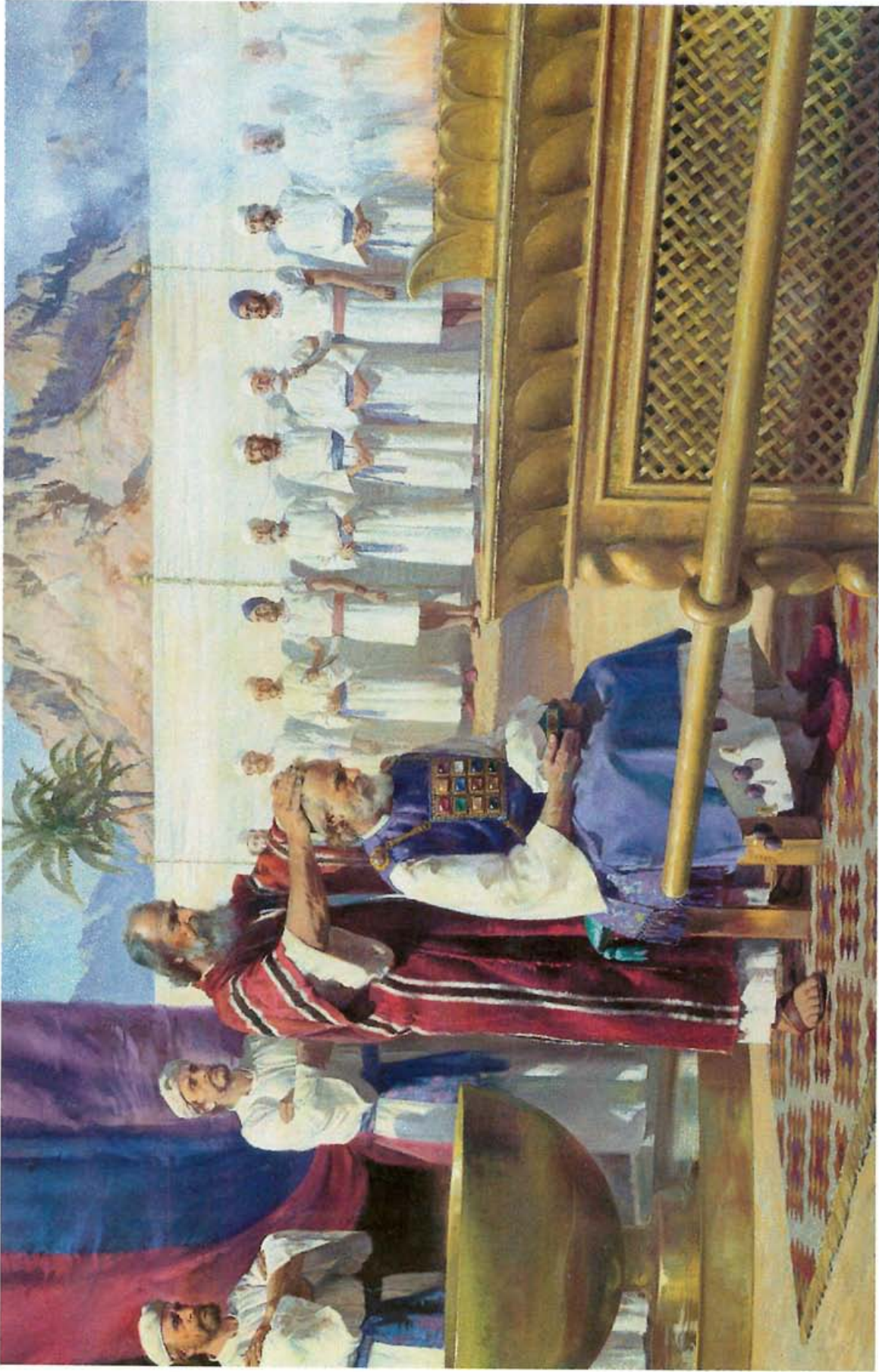
야곱 디야거 장로, 칠십인 정원회

“만족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만족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들을 말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침례받을 때 맺은 성약을 존중하고 그대로 생활하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을 중, 해리 앤더슨 그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리사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쁨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 40:1, 13)



위 새치 산을 등지고 솔트레이크시티 시내가 오후의 햇살에 반짝인다. 개척자였던 성도들에게는 이 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그들을 이끌어 준 계시의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매년 두 번씩 교회의 회원들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인 주님의 종들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에 모인다.